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 34주년
주민에게 드리는 글

헛똑똑이 투사와 투쟁, 그리고 악마와 의인

2022년 12월 12일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기념일 34주년
1979년 12월 12일 광화문에서는 전두환 주도 군사 쿠데타 있었다면
1988년 12월 12일 매항리에서는 전만규 주도 미군 폭격장 점거시위
미군기지 폐쇄의 결기가 어느덧 34년 매항리 매화 향기 가득한 평화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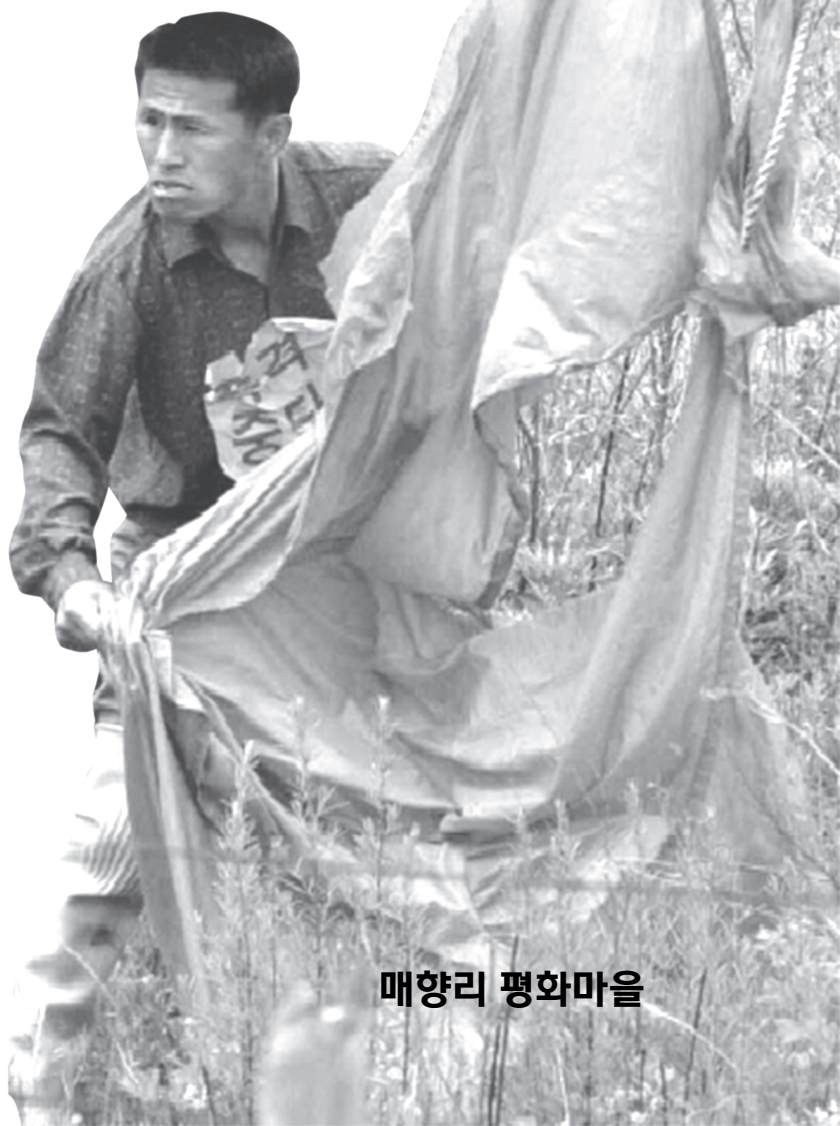
| 전만규 자음 |



매항리 평화마을

헛똑똑이 투사와 투쟁, 그리고 악마와 의인

■ 전만규 지음 ■



매향리 평화마을

1. 신상(身上)

■ 성명 ■ 전만규(全晩奎)

-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폐쇄투쟁 추진위원장

■ 출생 ■ 1955년 2월 20일생(음력)

- 매향1리에서 어부 집안 11대 거주

■ 학력 ■ 삼괴중학교 졸업

■ 직업 ■ 매향리 지킴이(바보 헛똑똑이)

■ 수상 ■ ① KNCC의 인권상

② 사월혁명의 혁명상

③ 환경련의 녹색 시민상

■ 전과 ■ 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미군기지 시설파괴)

②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경찰관 폭행)

③ 건조물 침입(미군기지 철조망 內)

④ 재물 손괴(폭격신호 황색깃발 훼손)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군기지 불법점거 시위)

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⑦ 공직선거법 위반(이회창 대통령 후보 날계란 투척)

⑧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폭탄 수거 비 등/횡령=전만규위원장 생계비)

⑨ 특수공무 방해 및 특수폭행 치상(흥기로 경찰관 상해)

⑩ 특수 폭행치상(흥기) 및 감금(妻)

■ 저서 ■ ① 『오래된 폐허』(공동 저자)

② 『쿠니사격장』(공동 저자)

③ 매향리 평화 청년:전만규(연재 회고록/화성신문)

④ 화성시의 '매향리 백서 발간' 연구 용역 사업 자료 제공

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의 매향리 스튜디오 전시 작품 『청년 전만규』 도서 출간

■ **희망** ■ 생사(生死)를 넘나들며, 거칠고 날카로웠던 지난한 투쟁의 삶을 이제 조용히 누며, 매화 향기 그윽한 고향 매향리에서 이웃 주민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다.

■ **계획** ■ ❶ 매향리 투쟁을 통해 축적한 수많은 역사 자료를 정리하여, 매향리 평화기념관에 소장하도록 기증할 것이다.

❷ 2001년 4월 1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의 회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매향리 평화영농협동조합 청산 및 매향리 투쟁역사 자료로 매향리 평화기념관에 소장하도록 기증할 것이다(2001년 4월 11일부터 회계 정산 이유=이날 소음배상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때부터 발생한 주민대책위 제반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는 주민총회 의결).

❸ 매향리 평화기념관 개관일(2023년 8월 30)에 맞춰 내 인생을 바친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전만규 회고록을 출간할 것이다.

❹ 2023년 8월 30일에 매향리 주민대책위 및 매향리 평화영농협동조합을 해체, 청산할 것이다

2. 의미(意味) : 미군 폭격장 점거 투쟁 34주년

2022년 12월 12일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기념일 **34**주년
1979년 12월 12일 광화문에서는 전두환 주도 군사 쿠데타 있었다면
1988년 12월 12일 매항리에서는 전만규 주도 미군 폭격장 점거시위
미군기지 폐쇄의 열기가 어느덧 **34**년 매항리 매화 향기 가득한 평화 오다

3. 천명(天命) : 불가사의한 숫자

1988년 6월 청년 전만규가 폐쇄 투쟁을 **34**세 일으켰다
2005년 8월 미군 폭격장을 폐쇄하는 데 **17**년 세월이다
2022년 8월 평화생태 공원 조성하는 데 **17**년 세월 흘러
매항리의 자유와 평화 이루는 데 **34**개 성상 흘러간 세월이다
전만규의 나이는 지금 인생 말년 **68**세 되어 떠나간 세월이다

1951년 8월 미군 전투기가 매항리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
2005년 8월 미군 전투기의 폭격장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
매항리의 자유와 평화, 해방의 날 **54**년 만에 만들어지게 된 승리
호사다마 이복의 침투 김신조 등 무장공비 일당이 청와대 습격
1968년 8월 국군 매항리에 주둔하여 서해안 경계 철책
2022년 8월 서해 철책 철거되어 **54**년 만에 주민들 삶터 회복

미군 폭격장이 **54**년 만에 폐쇄가 되었고
국군 철조망이 **54**년 만에 철거가 되었다

매항리 생존권 보장 투쟁이 **17**년 세월이었다
매항리 평화의 공원 조성한 **17**년 세월이었다
매항리 투쟁을 전만규 나이 **34**세에 시작하였다
매항리 평화 이루는 세월이 **34**년 소요되었다

4. 운명(運命)

매향리는 투쟁(鬪爭)이었으며,
전만규는 투사(鬪士)였습니다
가족에게는 악마(惡魔)였으며,
주민에게는 의인(義人)이었습니다

5. 승리(勝利)

- ❶ 전만규를 정신병자로 손가락질하며, 모든 주민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던,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소음피해의 국가배상 청구를 주민들 몰래 청구한 것이 성공하였다.
- ❷ 이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하던, 매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 폐쇄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아비규환 속 전쟁 지옥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 ❸ 매향리의 역사이자 경기도 문화유산 우수 건축물 제1호로 등록 지정된 매향리 미군기지 존치물(쿠니 사격장 건축물)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로, 이를 보존케 하였다
- ❹ 100억 원대 중앙 예산이 지원되어 종말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었다.
- ❺ 한미군 반환 공여지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향리 평화마을 약 4km 구간 왕복 4차선 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 ❻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본부로 사용하던 주민대책위 본부를 매향리 평화역사 전시관 및 방문자 센터로 운영하며, 화성시와 함께 민·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미군 반환 공여지에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및 평화기념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천 1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및 평화기념관이 들어서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이 조성되었다.

- ⑦ 매향리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폭탄 수거 작업과 매화나무 식재 작업을 펼쳤다.
- ⑧ 농섬 일대 갯벌의 총·폭탄 잔해와 불발탄 500여 톤의 중금속 오염원을 제거하는 환경정화를 통하여, 갯벌 생태계 회복 및 주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소득 증대사업을 이루어냈다.
- ⑨ 2009년 4월, 전문가들에게 마을 조사 역사기록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매향리 문화 역사기록 파일을 축적하였다.
- ⑩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주 1회씩 40여 회에 걸쳐 《화성신문》에 〈전만규 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가 실렸다. 2016년 화성시에서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 매향리 백서 발간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전만규가 매향리 투쟁 과정에서 축적하고 보유한 상당량의 역사자료 등을 제공하여 2017년 백서가 발간되었다. 2018년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매향리 스튜디오) 전시 작품전으로, 〈매향리 평화마을 기록전_청년 전만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을 이끌어 온 전만규의 투쟁 역사를 전시하였다.
- ⑪ 전만규 위원장이 매향리 투쟁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하고 간직해 온 역사 자료를 화성시 역사기록 편찬위에서 아카이브(archive) 등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향리 평화기념관에 전시물로 또는 유물과 함께 역사 기록물로 영구 보존될 것이다.
- ⑫ 매향리 전만규의 기구한 운명과 파란만장했던, 우여곡절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2023년 8월 30일 매향리 미군 폭격장 반환 기념일 및 매향리 평화기념관 개관일에 맞추어, 유서와 같은 전만규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
지난날 나의 거친 삶 속에 날카롭고 투박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매향리 투쟁의 역사를 정리 기록하는 소명의식과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집필에 임하면서, 비록 미천하고 어쭙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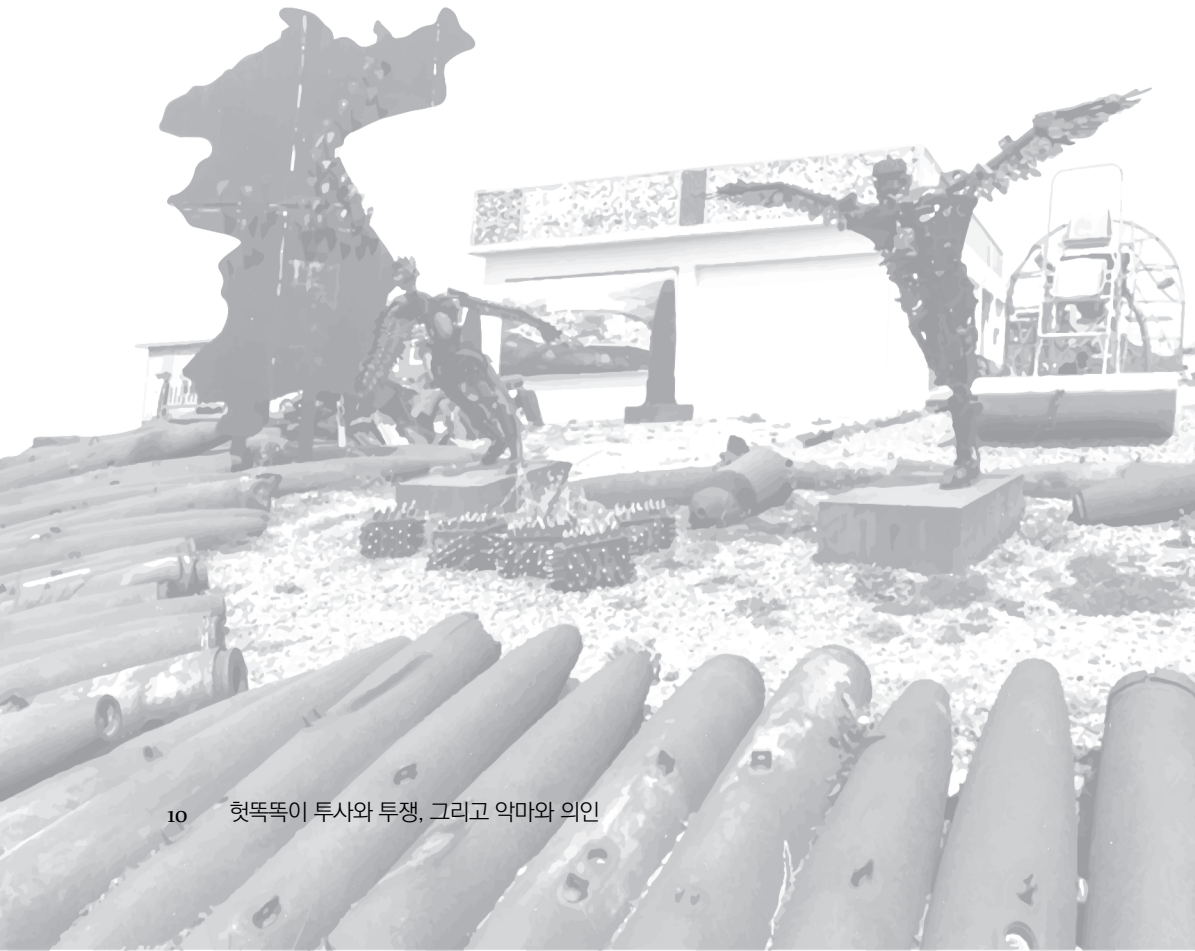
은 촌놈의 문장력이지만, 매항리 역사를 포함하여 내 인생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남기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분단국의 성역이며 철옹성 같았던 이 땅 미군기지를 매항리 주민들이 최초로 점거 시위한 역사적인 날(1988년 12월 12일)이자 나의 68년 인생 절반을 차지하는 34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 12월 12일에 일단, 단편적이고 간략한 소회(所懷) 한 토막을 '주민에게 드리는 글'로 출간하면서 매항리 투쟁의 정신과 역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8월 30일, 매항리 미군 폭격장 폐쇄 55주년을 맞이하여, 괴기(怪奇)한 전만규의 인생과 매항리 미군 폭격장 폐쇄 운동 과정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최종 회고록을 출간할 계획이다.

Contents

1	매항리, 오욕과 투쟁의 역사	13
	매항리, 미군에 침탈되다	15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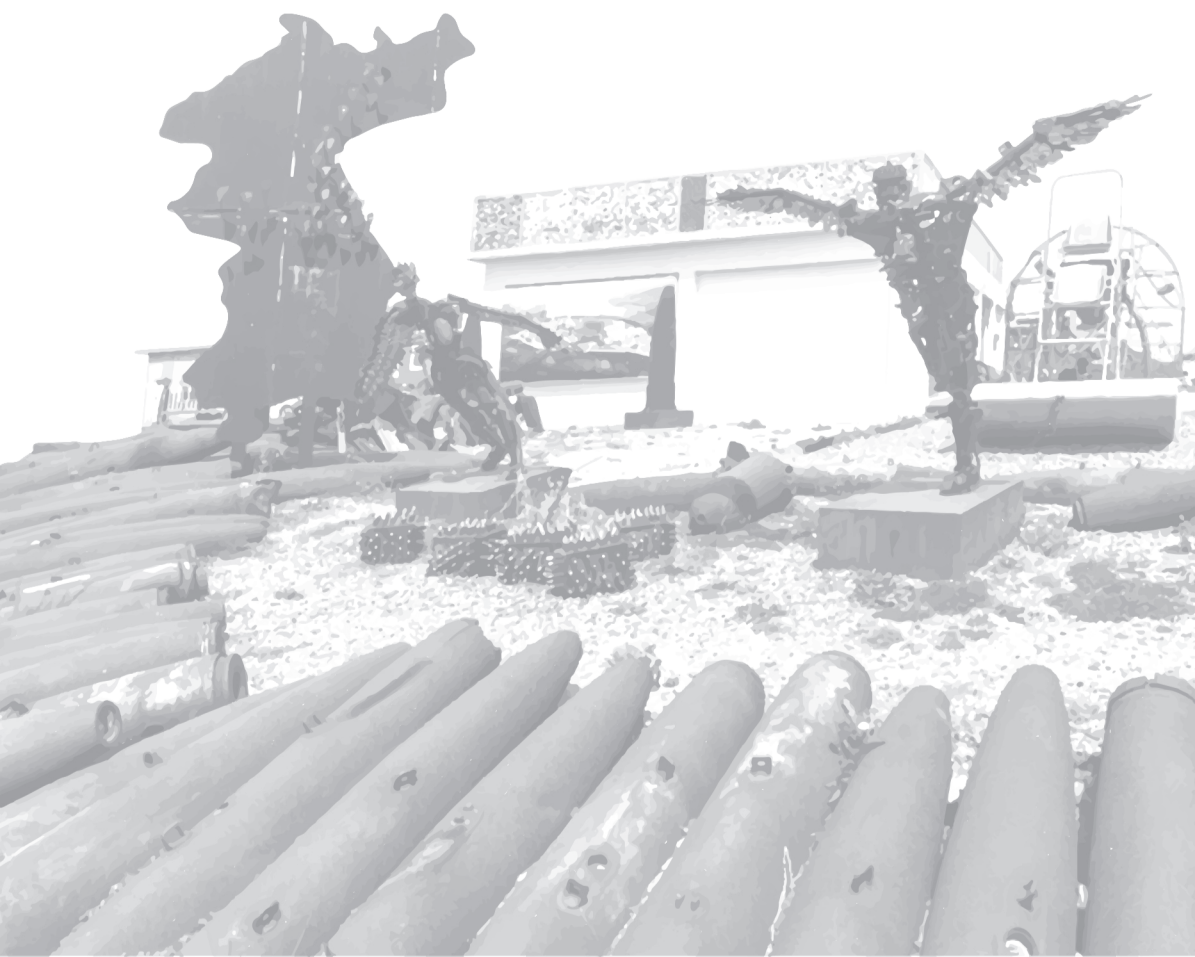
2	다시 투쟁의 깃발 휘날리며	55
	이제 또다시 투쟁이다	57
	악마와 의인	80

3	평화는 반드시 온다	97
	매항리에 와보지 않고 반미를 외치지 마라	99
	제3의 매항리 대투쟁	133
	매항리 역사박물관이 서다	148



1

매항리, 오욕과 투쟁의 역사



매향리, 미군에 침탈되다

1951년 8월

미군이 폭탄을 투하하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던 축복의 땅, 고온리(매향1리)에 어느 여름날 갑자기 나타난 미군 전투기가 매향리 해안에서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구비섬, 즉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구비섬에 폭탄을 투하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서도 곧 안도하며 환영을 했다고 한다. 매향리를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들이 도망한 지도 1년이나 지났고, 이제 전쟁이 끝나 미군들이 쓸데가 없어진 폭탄을 이곳에 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아낙네들은 인민군들한테 몹쓸 해코지를 당할 위험을 제거해 준 미군이기에, 또한 젊은 남정네들은 인민군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노역과 총살을 당할까 두려워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아야 하는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고 해방시켜 준 미군들이기에, 미군 전투기는 수호신이며, 미군 전투기에서 발사 투하되어 터지는 총·폭탄 소리가 마치 축제를 알리는 폭죽이나 팡파르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곳 마을의 지명이 말해 주듯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고온(古溫), 매향(梅香)리가 거대한 외세와 군대에 의하여 또다시 속박당하는 아이러니한 매향리 역사의 질곡은 반복되는 숙명이라는 말인가.

즉, 일본군과 인민군을 몰아낸 미군이 이곳 매향리에서 일본군과 인민군보다도 더 지독한 탄압을 하며, 일제 36년 치하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 깊은 상처를 입히는 압제의 서막이 총·폭탄 소리와 함께 열린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서 벌이는 미군 전투기의 폭격 연습은 오폭과 불발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필연적인 인명 피해를 낳았으며, 폭격장으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며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와 배고픔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극심한 핍음은 고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일제 36년 치하보다도 더 길고 긴, 54년의 압제였다.

매화 향기 피어올라, 아름답고 따뜻한 풍요의 마을이라는 의미의 매향과 고온리가 군사적 요충지로서, 또한 전쟁을 위한 전투기 폭격 연습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A급 폭격장으로, 미군 조종사들의 파란 눈에 발견된 것이다.

1952년 9월

고온리(매향1리)를 최초 점령 주둔한 미군

1951년, 미군 전투기가 갑자기 나타나 마을 앞 구비섬에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한 이후 미 해병대 1개 소대가 한국군 약간 명의 보조를 받으며 매향1리 해안지역(당시 지명은 구름뿌리, 나의 증조부 소유) 밭에 24인용 군용 천막을 치고 주둔하여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을 지원하였다(매향1리 전회초/87세 증언).

미군 전투기가 기총사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안 사구에 대형 나무판으로 된 표적판이 설치되었다. 야간 훈련 때는 서치라이트로 구비섬과 농섬을 비춰주어 폭격 연습 목표물에 정확하게 총·폭탄을 발사·투하할 수 있게 지

원하였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는 무차별했다. 베트남 농어민들의 안전과 생계 대책을 보장하기는커녕 무차별적으로 기총사격을 하고 닥치는 대로 폭탄을 투하했다. 매향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주민들이 경작 활동이나 갯벌 어장에서 조업을 하든 말든, 미군 전투기는 무차별적으로 총·폭탄 사격 훈련을 하였다.

매향리 상공에 미군 전투기가 나타나면, 월남전의 작전지역에서 미군의 공습을 피하려고 북베트남 농민들이 대피하듯이, 매향리 주민들도 피신해야 했다. 인근 야산 나무 밑이나 갯벌 바위 뒤로 대피하였다가, 다음 편대와 폭격 훈련을 교대하기 위해 미군 전투기가 사라지면, 다시 기어 나와 조업을 하였다.

이듬해 1953년에는 군용 천막을 거둬내고 전투기 격납고 모양의 쉼터 함석 막사를 지었다.

위치는 현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해안변 좌측 일대였다. 우리 가문에서 누대에 걸쳐 경작하던 곳이었는데, 1968년에는 국방부가 이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미군에게 무상 공여하면서 육상사격장으로 쓰였다. 1972년부터는 나의 아버지가 국방부로부터 임차해 소작농 신세가 되어, 폭격이 없는 주말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전만규 위원장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을 방해한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년 5월 29일 미군 트럭에 자갈과 모래를 실어다가 모내기를 하려던 모판 위에 퍼부어 매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와 주민들 250여 명이 야간에 미군기지를 습격, 역보복으로 기지 내 레이더 장비 등 시설물을 모조리 파괴하기도 했다. 내가 구속되고, 국내외에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보도되었던 **아이러니한** 역사가 깃든 곳이다(1989년 5월 회고록 일지에 상세 기록).

1955년 2월

미군 전투기 총·폭탄 훈련장 정식 설치

1953년 10월 1일 체결, 11월 18일부터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고온리(매향1리) 미군 전투기 사격 훈련장’(Koon-ni Range)이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1966년 7월 9일에 서명된 SOFA 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음으로써 미국은 이곳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한·미 협정은 미군이 시설 지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우선하여 보호·보장하는 의무 규정보다는 미군이 한국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불평등한 대미 예측 조약이었다. 이로 인해 안전과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고통받는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선조 대대로 이곳 토지와 바다 갯벌 어장에서 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삶을 영위해온 주민들이었다. 농사를 짓고 갯벌에서 조업을 하는 와중에도 미군 전투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커다란 항아리만 한 실전용 폭탄(AN-M65, 750파운드) 등을 투하하기 일쑤였다. 갯벌에 저수지만 한 웅덩이가 파이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수백 미터나 날아가 떨어졌다.

주민들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던지듯이 바위 뒤로 몸을 숨긴다. 그러나 폭탄 파편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바위 너머로 떨어지면서 발뒤꿈치를 자를 듯이 파고들고, 개떡만 한 파편들이 여기저기로 날아가며 개흙을 튀겨댄다.

그래도 배고픔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총·폭탄을 피해 가면서 조개를 채취하고 고기잡이를 해야 했다.

6·25 전쟁 중에 시작된 미군 전투기 폭격 연습·훈련이었기에 한·미 당국 어느 쪽에서도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보상이나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도리어 미군 조종사들은 토지나 갯벌에서 조업하는 주민들을 살아 움직이는 실전 모델로 여겼으리라.

* 1991년 KBS1 TV <뉴스 초점>에서 매향1리 전은성의 조모, 김을동 할머니 등의 생생한 증언 방영.

1963년 5월

미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제2차 강제 징발되다

매향1리 백남휘는 19명의 가족 식량을 조달하는 경작지 6천여 평을 보상한 푼 없이 강제 징발되었으며, 나의 부친 전상천은 논 1,200평, 밭 1,390평을 징발당했다. 주민들의 해안변 경작지 21만 평에 전투기 사격 표적판을 널빤지로 크게 만들어 세워두고 전투기 기총사격을 하였으며, 도로포장용 재료(아스콘)인 타르(tar)를 경작지 밭에 시커멓게 뿌려 놓고 초소형 폭탄 투하 훈련을 하였다(매향1리 전희순/84세 증언).

1개 편대가 총·폭탄 발사·투하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 인근 야산으로 피신해 있던 주민들은 다음 편대가 매향리 상공에 나타나기 전까지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곡괭이, 삽, 호미를 들고 밭으로 달려 들어가 논·밭일을 하다가 전투기가 나타나면, 또다시 후다닥 인근 야산 소나무 숲으로 숨어들어가 썩은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아 자신들의 논·밭에 총·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망



◇당원은 농민들이 앞날을 걱정하고있다.

美軍서 21萬坪

補償策 없는 農士徵發

農事廳 안두고 百40家口 離農危機

【本報 11日電】美軍이 韓半島에 侵入한 후 農地를 占領하고 農家를 徵發하는 行爲이 頻りに 起하고 있다. 美軍은 韓半島에 侵入한 후 農地를 占領하고 農家를 徵發하는 行爲이 頻りに 起하고 있다. 美軍은 韓半島에 侵入한 후 農地를 占領하고 農家를 徵發하는 行爲이 頻りに 起하고 있다.

하루迷兒 2百50명

5日 古宮入場者만 42萬

【本報 11日電】하루에 迷兒이 2百50명 出되는데 5日 古宮에 入場한 者만 42萬 명에 달한다. 이는 去年의 同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軍지프車와衝突

合乘승객6名重輕傷

【本報 11日電】서울에서 發生한 軍지프車와 民衆의 衝突事件에서 合乘승객 6名이 重輕傷을 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한 군지프차와 민중의 충돌 사건에서 합승승객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孤兒 2百50名

구집없는 하루

【本報 11日電】서울에서 發生한 孤兒 2百50名이 구집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거리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邑農務會議

원로세력 起死回生

【本報 11日電】某邑에서 發生한 邑農務會議에서 원로세력이 起死回生の 기세를 띠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1963년 5월 6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고은리(매항1리) 농지 강제 징발 기사

연히 지켜보아야만 했다.

계다가 구비섬, 농섬, 윗섬 등에 총·폭탄 발사·투하 훈련을 하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안전 조치나 통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전투기는 무작정 기총사격을 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갯벌 상공에 미군 전투기가 나타나 향아리만 한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 파편이 갯벌을 헤집으며 사방으로 튀어 날아간다.

그래서 전투기 소리만 들리면, 조업하던 일을 멈추고 후다닥 주변의 바위 뒤로 몸을 숨기지만, 때로는 주변 바위가 사람보다 작은 것이어서 도리어 사람이 폭탄 파편을 막아 바윗돌이 깨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형국이었다. 마치 썰매가 대가리만 처박고 술개를 피하는 것처럼 상체만 바윗돌 밑으로 숙인 채 은폐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개떡만 한 폭탄 파편이 **밭과 다리에** 와 꽃혔고,

동시에 심장이 철렁 떨어졌다.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 속 매향리였다. 일제 36년 치하와 6·25 전쟁 때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말 그대로 전쟁 지옥이었다(매향1리 우언니, 매향3리 최병섭 등 증언).

1988년 4월

매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 투쟁의 계시(啓示)

다가오는 가을에 김 양식 사업을 시도하려면 영어자금 대출 신청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도 수원에 소재한 화성수산업협동조합을 찾아갔다.

대출 신청을 한 뒤 귀가하기 위하여 수원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대합실로 가 버스 승차권을 매표하고, 가판대에서 신문(중앙일보) 1부를 구매하여 조암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좌석에 착석하여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화보와 함께 실린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인근 고강동 주민들이 시위 농성하는 기사였다. 내가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퍼뜩 떠오른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도 이제는 나설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마을로 돌아와 품팔이에 나섰다. 마침, 전년도 해태 양식 시설을 많이 하여, 아직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한 전상태 씨덱 시설 철거작업(일용직)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해태 시설 철거작업 1일 인건비가 1만 5천 원이었다.

나는 10여 일분의 인건비를 받아 받은 아내에게 주고, 반을 호주머니에 넣고 무작정 신문 기사에 실린 부천시 고강동으로 몰어들어 달려갔다.



“우린 귀가 아파요”

경기도 부천시 고강아파트주민 2백여명이 6월 김포공항 국제선공사주차장출구앞 6차선도로에서 비행기소음대책을 요구하며 18시간동안 농성을 벌였다. <사건=하동명기자>

음료수 한 상자를 사 들고, 고강동 아파트 단지 내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 추진위원회 간판이 걸려있는 곳으로 찾아가니 노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

내 소개와 함께 찾아온 이유를 설명한 뒤, 대책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과 행정 민원 절차 등을 여쭙어보았다. 관련 참고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챙기고, 주변 여관에 여장을 푼 다음, 민항기가 이착륙하는 횟수와 발생하는 소음 정도를 육감적으로 체크하였다.

그곳 여관에서 민항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을 자장가 삼아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나는, “이곳 고강동 주민들은 겨우, 뭐, 자장가 소리를 집단 민원하고 시위 농성을 하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의기양양하게 귀향하였다.

나는 일단, 단계별 계획서를 짜 보았다.

먼저 평소 마음이 통하던 고온리(매향1리) 이○섭, 양○운, 이○민, 우○근, 백○현 등 선·후배를 만나 술을 마시며 얘기를 꺼냈다. 신문 기사를 내보이

며 고강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행정당국과 김포공항 측에 소음피해 대책과 피해보상을 1인당 1천만 원씩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곤 “그곳 민항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에 가서 내가 하룻밤을 묵으며 소음을 들어보니, 우리 고온리 미군 사격장에 비하면, 완전히 자장가더라” 우스갯소리를 던지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졌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도 행정 당국과 미군 측에 피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자.”

취중이지만 의기투합이 되어 마을 이장(김○수) 집으로 찾아갔다.

이장님한테 신문 기사 내용을 보여주며, 우리 고온리 마을도 한·미 당국에 집단 민원을 넣고 피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해야겠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수 이장님은 마치 독사(毒蛇)들과 마주친 듯이 화들짝 놀라며, 목덜미에 핏대까지 세우곤 걱정적으로 우리를 쏘아붙였다.

“자네들 지금 빨갱이야! 이것은 한미동맹으로 국방 안보를 위한 것이란 말일세. 나는 못 하나까 자네들이 자신이 있으면 해봐!”

우리는 느닷없이 귀퉁배기를 얻어맞고 쫓겨나는 기분으로 김○수 이장님 댁에서 나와 백○기 노인회장 댁으로 갔다.

역시, 노인회장님한테도 김포공항 민항기 소음피해 집단 민원 상황을 말씀드리며, “마을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지도해 주십사” 청했다.

백○기 노인회장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위험한 물가에 노는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말씀하셨다.

“자네들의 애향심은 충분히 알겠으나, 이곳 고온리 사격장은 김포공항의 민항기 소음피해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네. 자칫 공안 당국으로부터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니, 더 이상 사격장 문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게나.”

이때 백○기 노인회장님이 우리 청년들을 점잖게 타이른 데는 특별한 이

유가 있었다. 그는 경찰 출신이었다. 1960년대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재직하셨다. 경찰 출신이라 사건의 위험성을 간파하셨을 것이다. 사상과 이념적 공안 상황을 인식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1988년 6월

최초의 매향리 유인물을 제작하다

결국 나는 다음 단계를 모색해야 했다. 전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며 설득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유인물 제작에 나서 ‘주민에게 드리는 글’ 초안을 작성하였다. 서울 사당역 앞 서점에서 『국어 대사전』을 4만 5천 원에 구매하기까지 했다. 유인물이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문장의 낱말이 정확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 때문이었다. 사전을 통해 낱말 뜻을 확인해가며 내용을 구성하였다(굳이 사당역 앞 대형 서점에서 사전을 구입한 것은, 당시 노량진에 거주하는 누님댁을 오고 갈 때 자주 들렀던 서점으로, 『국어 대사전』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이었다. 조암 읍내 서점에는 것처럼 큰 사전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4만 5천 원이면, 나에게는 일용직 3일치 인건비로서 망설여지는 금액이었으나 과감하게 구매하였다).

또한 유인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어나 문장 구성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스스로 완전히 이해하면서 공신력을 높이자는 의도였다.

특히, 유인물 표지에 “주최 : 매향1리 청년회/ 주관 : 매향1리장, 매향1리 노인회장, 매향1리 새마을 지도자” 등 공직을 동의도 없이 적어넣었다. 주민들의 유인물에 대한 관심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초안 원고를 들고 수원역에서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곤 기사한테 인쇄소

로 가 달라고 주문하였다.

택시에서 내려 간판을 쳐다보았더니 ‘유신 인쇄소’였다.

나는 잠깐 주춤하며 망설였다. ‘유신’이라 하면, 박정희 철권 시대의 망령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아도 조암 읍내에 있는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행위였다. 조암 읍내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노출되어 압수될까 염려스러워 이곳까지 달려 온 것인데, 하필이면 ‘유신’ 인쇄소라니…. 그렇게 잠시 망설이다가 ‘설마, 이곳 수원 사람들이 고온리 미군 사격장을 알고? 모를 거야’ 자위하면서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참으로 착해 보였다. 마치 시골 처녀 같은 순박하고 선한 인상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자필로 쓴 원고를 내보이며 170부 인쇄를 부탁하였다.

인쇄소 여주인이 타이핑한 원고의 오타 첨삭 후, 다음 날 인쇄물을 찾아와 의기투합한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실 이때까지도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유인물 준비에 대한 상의나 귀뜸을 하지 않았었다. 수십 년간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었다. 미군은 이 땅의 구원자이고, 미군기지를 성역시하는 세뇌된 주민들이었다. 게다가 이웃 마을, 노루물(매향3리 바닷가)과 띠뿌리(매향4리, 석천리 바닷가)에는 전쟁통에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반공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었다. 미군기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곧 빨갱이로 몰리고, 패가망신을 자초하는 길이다. 내가 보기에 반공 이데올로기는 강하게 세뇌된 고질병이요, 정신적 암이었다.

하여간, 그래서 ‘주민에게 드리는 글’도 당시의 주민들 정서와 환경,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온리 미군 사격장에는 우리 주민들 수십 명이 경비원, 시설 관리, 식당 종업원 등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형제와 사촌 5촌 6촌 등 얹히

고설킨 집성촌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들이 천직으로 여기며 근무하고 있는 미군 기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적대적 관계로 비화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었다.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다

1988년 12월

역사상 최초로 미군기지 점거시위를 하다

1979년 12월 12일 광화문에서는 전두환 주도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면,
1988년 12월 12일 매향리에서는 전만규 주도 미군 폭격장 점거시위가 있었다.



1988년 12월 12일, 현 매향리 평화역사관 폭탄 전시장 부지(당시는 밭)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내가 역사적인 디데이(D-Day)를 12월 12일로 잡아 첫 집회 및 기지 점거시위를 결행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전두환 일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것에 대한 심판과 단죄를 원하는 민중들의 외침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이미 사회적 이슈로 각인된 12·12였다. 역설적으로 이날, 민중이 미제의 군사 시설을 점거, 시위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것이다.

드디어, 매향리에서 역사적인 첫 투쟁결의 집회가 열렸다(장소는 현 매향리 평화역사관 터였다.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으며, 겨울이라 농작물도 없던 밭이었다).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석천리, 이화리 등지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이 나오셨다(약 700명). 또한 이곳 매향리에서 처음 겪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석모에 방패와 곤봉 등을 들고 로봇처럼 서 있는 전투경찰들을 마주한 풍경이었다.

조암 시장에서 구입한 광목에 페인트로 직접 현수막 구호를 썼다.

“주거지역 안에 전폭기 폭격장이 웬 말이냐!!”

그리고 벼를 담은 비닐 마대에 “차라리 나를 안전하고 조용한 백담사로 보내다오”라고 썼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유배’ 중이었기에 해학적으로 비유한 구호였다. 매직으로 그렇게 써서 마대에 목과 양팔을 끼워 넣어 방한 점퍼 위로 뒤집어썼다.

광목 현수막을 장대에 매달고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의 투쟁 발언 뒤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온 주민이 쿠니 사격장 정문을 향해 다가갔다. 드디어 미군기지를 점거하려는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매향리 미군기지 정문에 이르자 화성경찰서장은 핸드마이크로 “전만규 위원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서 멈추세요!”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선두에서 “앞으로 진격!”을 외치며 뚜벅뚜벅 나아갈 뿐이었다. 정문을 통과하여 육상의 소형 폭탄(BDU-33 등 로켓탄) 투하 목표물(컨테이너와 폐

차 등)을 점거하였다. 또한, 청년들 수십 명에게는 기총사격 타격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화성경찰서장 노상경 총경이 주민들의 12월 12일 매향리 미군 육상사격장 점거시위 사태를 막지 못한 문책성 인사로, 충남 논산 강경경찰서장에 발령되었으며, 후임으로는 우락부락한 남택선 서장이 부임해 왔다.

성품이 유연한 노상경 서장과는 달리, 다혈질의 남택선 서장의 지휘로 전투경찰들이 주민들을 공격적으로 대했다.

페퍼포그 차(가스 차)가 최루가스를 뿜어대는 가운데, 대부분 호신술 유단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백골단이 신문으로 감싼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공격하였다.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매향3리 유경태 씨가 치아가 여러 개 부러지고, 이화2리 공○식은 쇠 파이프로 맞아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1989년 3월

통제탑 점거시위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저지하다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논밭 갈이와 파종을 해야 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부를 내야겠다고 판단했다.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금번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훈련 저지 투쟁을 결심하고 불시에 주민 총동원령을 내렸다.

결국, 우리 주민 대책추진위는 미군기지 통제소(컨트롤 타워)를 완전 점거하였으며, 책임 있는 협상 채널(국방부)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매항리 쿠니 사격장 컨트롤 타워(Koon-ni Range Control tower) 점거시위

1989년 4월

매항리 촌놈들이 국방부 차관실을 접수하다

미공군 사격장 민원대책 주민설명회

▲ 목 주

고온티 미공군 사격장 민원에 대한 국방부 대책 및 조치사항을
주민에게 설명함으로써 민원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시킴

▲ 설명회 계획

◦ 일 시 : '89.4.28 (금). 11:00

◦ 장 소 : 차관실

◦ 참 석 : 15명

· 차 관

· 국회의원 (확성군)

· 기획관리실장

· 합참작전국장

· 국방부 정책기획관

· 국방부 시설국장

· 확성군수

· 우정면장

· 주민대표 (전만규 외 6명)

- 6 -

4월 28일, 매항리 촌놈들이 철옹성 같은 제국에 입성하듯이 당당하게 국방부 청사에 발을 디뎠다.

이미 1988년 7월 발간한 유인물(제2호 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향후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가 장관 면담을 할 것이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정 합동 대책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모두 “전만규가 우정면장도 면담하지 못하는 촌놈의 신분인데, 감히 장관 중에서도 으뜸 장관인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는 것은 전만규의 뽕이요, 헛소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 화성지역 국회의원 박지원의 중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매항리 미군기지 사건 등 긴급 사안의 국정보고차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상황이었다.

우리 주민대표들이 화성군 관계자들과 관용차로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니, 현관에 김재창 합참 작전국장(소장) 등 장군 2명이 나와 우리 일행을 차관실로 안내하였다.

국방 차관을 비롯하여, 김재창 합참 작전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시설국장 등 장군들과 마주하여 테이블에 앉자마자 나는 소형 녹음기부터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간담회 내용이 군사기밀사항이 아니면, 녹음을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민대표들은 물론, 동석한 장군들이 순간 움찔 놀라면서 얼굴까지 일그러지며 붉어졌다.

당시 녹음된 녹취에는 김재창 장군의 언급이 가관이었다.

“나도 전방에서 근무할 때, 잠을 자야 하는데, 비상이다 뭐다 해서 기관총을 따따따다 쏘면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데, 고온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는

불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마을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산고를 하거나,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놓았는데, 기총사격을 하며 시끄럽게 하면, 결혼하는 사람 기분은 뭘며, 출산하는 산모는 얼마나 힘들겠나. 그럴 때는 현지에서 미군 측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훈련을 중단하고 미군을 떠나라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며, 그다음에 따르는 것은, 기총사격 소리보다도 더 비통한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마친 우리 주민 대책추진위원회는 일단 농번기에 파종을 모두 마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6월 10일 이전에 우리 주민 추진위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와 공식적인 민·군·정 협의 기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을 기점으로 미군기지를 무기한 점거해 농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도 공지하였다.

그러나 미군 측은 매항리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최고장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지 내 경작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마을 이장이 신원 보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기지 내 출입증을 발급하였다.



1989년 5월

농경 민족의 밥그릇에 재 뿌리다

5·29 기습 시위의 전말

이날 오후 3시경 나는 미군기지 내 논에 모내기를 하려고, 썰레질한 논바닥 한 귀퉁이에 모판을 갖다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논 옆 도로변에 나타났다. 쿠니 사격장 부책임자인 모리스 상사가 통역관, 경비원, 우정면 파출소장(강○구, 38세), 김○구 우정면장 등을 대동하여 내게 물려온 것이다.

통역관이 전달하는 내용인즉, “쿠니 사격장 책임자인 부대장(앤더슨 소령)이 미국으로 휴가를 가면서, 부책임자인 모리스 상사한테 지시된 사항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전만규 위원장은 쿠니 사격장 훈련을 방해하는 위험한 인물이므로 쿠니 기지 내 출입과 경작이 금지되어 있으니, 당장 기지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즉각적으로 “아니, 이 땅을 미군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땅이냐! 이 땅은 선조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우리 땅이므로 나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라며 목줄에 핏대를 세워 로켓탄을 발사하듯이 쏘아붙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구 면장이 “전만규 위원장이 앞으로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면, 내가 책임지고 농사를 짓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만약 미군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방해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수천 배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달이 난 것은 오후 6시경이었다. 매향1리 김순환 씨가 내 집으로 헬레벌떡 달려와 이러는 것이었다.

“지금 빨리 위원장네 논으로 가 봐. 미군 트럭으로 자갈 모래를 실어 다가

모판을 덮어 버렸어!”

부라부라 논으로 달려가 보니 참담한 상황이었다.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나는 백○현 부위원장 집에서 막걸리를 한 대접씩 마시며 대책을 논의하였다. 일단 역할 분담을 해서, 나는 언론사 등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백○현 부위원장은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을 집결시키기로 하였다.

백○현 부위원장은 마을 한가운데에 달려 있는 비상종을 치고, 이어서 매향1리 어촌계 사무실에 설치된 마을 방송 앰프를 통해 긴급 고지를 했다.

“주민 여러분들께 긴급 비상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방금 전에 미군이 트럭으로 자갈과 모래 등을 실어 다가 전만규 위원장네 논에 퍼부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미군 부대로 몰려가서 항의할 것이니,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어촌계 사무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의 영농을 마치고 귀가한 주민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곤한 육신을 뉘려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초비상 사이렌과 종소리가 초저녁 밤공기를 뒤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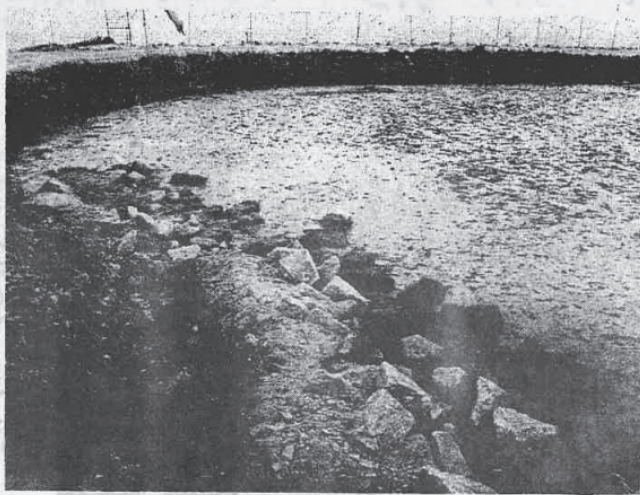
남정네들은 남방셔츠 단추도 미처 채우지도 못하여 옷깃을 휘날리며 달려나오고, 아낙네들은 머리에 비녀나 핀도 꽂지 못한 채 긴 머리를 휘날리며 몸뚱이 차림으로 달려 나왔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어망에 사용하는 굵은 로프를 질질 끌고 나타났다.

어촌계 사무실 앞 버스 종점에 모여든 주민들에게 백○현 부위원장은 큰 소리로 외쳤다.

“전만규 위원장이 주민을 대표하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데모를 하였다고 가족의 목숨 줄인 경작지를 참혹하게 파괴시킨 미군들의 야만 행위를 항의하러 갑시다.”

분노한 남정네들이 앞장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기지 앞에 도착하자, 이미



◇주민 전단구씨가 모래기를 하려고 모래를 옮겨놓은 논에 미군군축이 흙과 돌로 매립, 논을 망쳐놓았다.
(사진=金亨敏기자)

美軍의 농지 매립항의 매항리住民 격렬시위

華城

차량 20여대 유린차량파손
住民 들부심... 20여명 연행

【華城=後援者 金亨敏 기자】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美軍의 농지 매립항에
가동된 미군차량 20여대가
주민들의 논을 망쳐놓았다.

선철역 신설 원 國會 통과

선철역 신설
원 國會 통과

선철역 신설
원 國會 통과

마을의 긴급 비상사태 방송을 접한 미군들과 기지 종업원들이 기지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백○현 부위원장은 “미군은 나와서 우리 주민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파괴한 경작지를 즉각 원상 복구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철책 정문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미군들은 우리 주민들을 조롱하듯이 “Get the fuck out of, that crazy!(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하며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참지 못한 백○현 부위원장은 자신의 태권도 유단자 실력을 과신하여, 정문 철책을 기어올라 기지 내로 넘어 들어갔다.

백○현이 쏜살같이 미군들을 향하여 달려들자, 미군들은 이미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처럼 생긴 보트 나무 노(櫓)를 어깨 위로 치켜올리더니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백○현 부위원장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며 얼굴로 흘러 내렸다.

이 광경을 철조망 사이로 목도한 주민들은 분노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붉은 로프를 철조망 문의 쇠 파이프 기둥에 걸었다. 250여 명의 주민들이 ‘여~영차, 영차’ 하며 힘껏 당기자 쇠 파이프 기둥과 함께 철조망 문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면서 흙먼지가 일어났다.

동시에 주민들은 와~아! 하면서 기지 내로 달려들어 갔다. 그리고 불끈 힘을 켜 내 손에는 흥측한 무쇠 가위가 들려 있었다.

이에 놀란 미군들은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곰들처럼 성큼성큼 뛰며 도망하여, 그들의 총기가 보관된 통제소 1층 대피소로 숨어들었다.

주민들은 기지의 레이더 전자 장비 및 시설물과 차량을 닦치는 대로 모두 파괴하였다.

심지어 미군들의 식당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소시지와 통조림 등을 탈취하고, 대신 그 냉장고에 자갈 모래 등을 채워 넣었다. 역지사지로 미

華城郡 매

[illegible][illegible]

◆주요사업에 이해관계인 차등과 우리청을 각종 기물이 어지럽게 분산시킨

[illegible][illegible]

극한대립 지양 合理的 해결책 절실

[illegible]

그리는 사이, 인근 우정파출소에서 경찰관 5~6명이 출동하였다.

주민들의 극렬한 파괴 행위를 제지하는 파출소장 강○구 경위와 미군 통역관인 전○성 씨를 문○○ 등 청년들이 폭행하였으며, 이 상황은 나중에 내공소장에도 특수공무 방해 및 폭행치상 죄명으로 기록되었다.

야간 습격 사건으로 미군 기동타격대 출동

잠시 후, 무거운 굉음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 공기를 가르며, 괴물 같은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 미군 기동타격대 병력을 싣고 긴급히 나타난 미군 헬리콥터였다. 서치라이트로 주민 시위대들을 조준하며, 쿠니 사격장 상공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모두 쿠니 기지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미군 헬기는 착륙하지 못하고 상공을 몇 바퀴 빙빙 돌더니, 헬기장 옆으로 낮게 이동하여 헬기 프로펠러로 바람을 일으켰다. 회오리바람처럼 갑자기 흙먼지가 사방을 뒤덮자 눈을 뜨지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주민들이 주춤하며 헬기장을 벗어나자 미군 헬기가 착륙하였다.

헬리콥터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미군들이 고릴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민들을 향하여 총기로 위협하며 내리더니, 기지 내 대피소에 숨어있던 미군들을 엄호하며 헬기에 태워 사라졌다.

이어서 전투경찰 400여 명이 나타나 매향1리 마을 전체를 대간첩 작전하듯이 군화발로 집안까지 침입하여 주민 김○수, 이○온 등 50여 명을 화성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지도부는 일단, 피신을 하였다. 석천3리 최원기 추진위원 집에 은신하여 대책을 논의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후 이화리 산기슭에 외딴집으로 자리한 한상동 추진위원 집으로 옮겨 갔다.

주민생존 짓밟는
미공군을 몰아내자!!

매항리 속보

1989년 6월 2일

발행 군사기지 공동
대책위원회

‘부대안 영농’ 금지에 농민들 항의하자

미 공군 기동타격대 총기로 위협

경찰, 26명 연행 3명 입건

경기도 매항리 주민들의 목숨건 투쟁

29일 밤 10시경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미 제7공군 ‘루니’사격장 파견부대 안에서 부대쪽이 주민들의 부대안 출입영농을 막은 데 항의, 주민 3백여명이 시위를 벌이자 미 제7공군사령부 소속 기동타격대 20명이 출동, 총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사격장 경비를 하던 미군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백동현(41)씨 등 주민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오후 1시경 사격장안 1천여명의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던 이 마을 소음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33)씨에게 미군 4명이 찾아와 부대장 연덕은 소령의 지시이며 모내기를 중단시키고 부대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 부대 밖으로 쫓아낸 뒤 전씨의 눈에 흙과 자갈 4트럭 분을 부어 농사를 방해한 데 격분, 밤 8시경 사격장에 불라가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이 부대 안에 세워둔 지프와 건물 유리창 1백여

장을 깨뜨리며 적렬한 시위를 벌이자, 미군측은 완전무장한 기동타격대 20명을 헬기로 지원받아 배치하고 총기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집단을 막았다.

주민들은 밤 11시경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해산했으며 경찰은 주민 20명을 연행, 이 가운데 김남관(37), 김애순(43·여), 박계순(57·여)씨 등 3명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17명을 훈방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시위를 주도한

위원장 전씨를 비롯, 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 등 17명을 입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30일 이상운(31)씨 등 6명을 추가로 연행, 조사중이다.

미 공군은 지난 3월에도 부대안 10만여평의 농지를 국방부로부터 임대,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지역 1백여 농가의 출입을 막은 뒤 “사격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요구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집단 항의를 받기도 했다.

“살인적인 미공군 폭격훈련 중지하라”

—매항리 미공군 핵투하연습장 철폐투쟁현장—



주민들이 철조망을 부수고 폭격훈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우리의 주장 —

1. 경찰은 매항리 주민 대표 전만규씨에 대한 수배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2. 경찰은 불법연행한 주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3. 정부당국은 주민들을 폭행한 미군을 색출하여 즉각 처벌하라!
4. 정부당국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다음 투쟁 단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일단, 우리 지역을 신속히 빠져나갈 것을 결정하고, 오토바이를 탄 탐색조를 남양 방조제로 내보냈다.

조암 방향을 타고 수원으로 나가는 길목은 이미 경찰들이 봉쇄, 검거작전을 펼칠 것이라 판단하고, 평택으로 빠져나가 상경 투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다.

매향2리 이정원 추진위원의 승용차인 현대 포니2에 몸을 싣고, 탐색조의 오토바이 안내로 남양 방조제를 거쳐 평택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다.

평택 시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이정원 위원님의 누님댁 모텔로 숨어들어 하룻밤 잠을 자고 아침에 평택 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직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달리는 시외버스에서는 라디오 방송 뉴스를 통하여 ‘매향리 전만규 위원장이 치안본부로부터 긴급 수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방송에 귀를 기울이다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통일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 도착하였다.

한편, 미8군 사령부 대변인 링크 대령은 파렴치하게도 성명서를 통해 “매향리 주민들은 폭도”라고 지칭했다. “미군기지를 침입하여 식품 등을 약탈하였다”며 파렴치한 폭도들로 매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미군 측은 기지 내 차량과 레이더 전자 장비 등을 파괴한 손해 배상금으로 나에게 41만 불을 청구하였으며, 공안 당국은 나와 백○현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하였다.

하여튼 나는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 당사를 접거해 시위하기로 작정한 터였다. 당사 근처에서 매향1리 청년들과 만나기로 전화 통화한 후, 우리 일행(전만규, 김○기, 양○윤, 이○선 등)은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통일민주당사로 탐색조를 들여보냈다. 다행히 그들은 검문 검색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대동하여 중앙당사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전혀 예기치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다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복 경찰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이었다. “전만규 씨죠” 하며 다가선 그들에게 나는 긴급 체포되었고, 일행들은 귀향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탐색조 중 화성경찰서 정보과 경찰들과 친교가 있던 선○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나는 마포경찰서 지하 유치장에 약 2시간 정도 갇혀 있다가, 화성경찰서 형사들(3명)에게 인계되어 수갑과 포승줄로 꼼꼼 묶인 채로, 그들이 타고 온 포니2 승용차 가운데 좌석에 갇혀 화성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전만규가 서울에서 체포되어 화성경찰서로 압송된다는 소식에 주민들 수백 명이 화성경찰서 마당에 앉아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수갑과 포승줄로 묶여 형사들 팔짱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본 할머니들은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시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유치장으로 접견 온 주민대표들이 하는 말인즉,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군이 된 매향리 백성○의 형, 백○현이 국제 전화로 “매향리 사건을 미국 신문과 방송에서 보았다”며, “전만규는 사형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백성○)는 데모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와전되어, 순박하고 무지한 시골 할머니들이 정말 전만규가 사형당할 것이라 걱정하는 상황에서, 전만규가 진짜 중범죄자처럼 팔목의 수갑에 포승줄로 꼼꼼 묶인 꺾마른 모습으로 화성경찰서 마당에 등장했으니 할머니들의 눈물을 이해할 만했다. 마치 삼복더위에 보신탕용개가 와이어 줄에 묶여서 뗏짚으로 그을려 놓은 물골이었기에, 더더욱 가슴이 짝한 안쓰러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1989년 봄 매향리 주민들이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벌이며, 매향리 미군기

지를 야간에 습격하여 레이더 장비 등 기지 시설물을 파괴하고, 농섬의 폭격 목표물 시설에 기름을 부어 방화하는 등, 목숨 건 투쟁을 벌이는 현장 상황이 미국 본토의 텔레비전과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연일 보도가 되자, 미국으로 이민 간 매향리 출신의 몇몇 주민들이 국제 전화로 묻더라는 것이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기에, 매일같이 톱뉴스로 보도가 된다”며 “미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몰라도 ‘매향리’ 하면 알고, 노태우 대통령은 몰라도 ‘전만규’ 이름은 안다”면서, “도대체 전만규가 누구냐?”고.

매향1리 정경자 씨는 전화를 걸어온 시누이에게 “전상국 오빠 아들”이라고 말하자, 시누이 김○○은 매향리를 떠난 지 오래되어 전상국을 얼른 기억하지 못해 “전상국 오빠가 누구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문화방송 전상국 오빠를 모르냐”고 하니까 김○○은 “아니! 그 오빠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느냐”고 하더라.

꺼내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 나의 아버지 전상국(호적 이름은 상천)은 술에 취하면,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별거벗은 몸으로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의 대가리만 반복(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3천 리,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3천 리)하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입에 게거품을 물고, 동네가 다 떠내려가도록 고성으로 두서없이 지껄이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문화방송이 시작되는구먼” 했다.

하여간, 화성경찰서로 끌려온 나는 밤마다 경찰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낮에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았다가 밤만 되면 소파가 있는 2층 사무실로 데려갔다. 3명의 형사들이 취조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니 나를 잠재우지 않고 억박지르기 일췌였다. 집요하게 취조하다가 결국 나의 목을 움켜쥔 것이 문제가 된다. 경찰 손톱에 목 부위가 긁혀 캐주얼식 반팔 와이셔츠 흰 칼라(collar)에 피가 묻었다.

다음 날 민주당 인권국장 직함으로 최병모 인권변호사(김대중 정권 때 옷로

비 특별검사)가 선임계 상담을 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나의 목 굵힘과 칼라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최 변호사는 경찰서장한테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수사관 조치를 요구하였다.

1989년 10월

어린 자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마을 할머니

내가 5·29 사건으로 구속되어 안양구치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을 때, 매향2리(현 매향3리) 이중원의 어머니께서 추수한 쌀 2말을 머리에 이고, 땅거미가 진 황톳길 5리를 걸어서 내 가족이 기거하는 매향1리로 오셨다고 한다.

지친 숨을 몰아쉬는 그 어머니 얼굴에는 구슬땀이 흐르고 있었다. 힘에 겨웠던지 이내 내 아내(최선자)에게 머리에 이고 있는 쌀을 받으라고 하여, 아내는 엉겁결에 쌀자루를 받아 내리며 의아한 마음에 여쭙었다고 한다.

“아니! 이 밤에,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하자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무서워서 밤길에 왔다”고 하시더라.

그 어머니의 장남(이중원)은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였다. 혹여 어머니께서 전만규 위원장(빨갱이)을 돕다가 교사인 아들까지 빨갱이로 몰릴까 염려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밤에 왔다고. 전만규 위원장이 우리 큰아들과 동창이라오. 누구에게도 내가 왔었다 말하지 말고, 어린 애들과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 먹구려. 좌절하지 말고, 힘내시게나” 말씀하시고, 그 아주머니는 총총히 어두컴컴한 밤길을 더듬어 가셨다고 한다.

1990년 6월

집단 폭행 사건으로 5인 가족이 체포, 구금되다

1989년 5월 미군기지 기습 파괴 사건으로 화성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최초로 무료 변론을 자청하셨던 서울 덕수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를 만났다.

점심시간에 덕수법무법인 사무소 근처에서 만났는데, 최 변호사님 왈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고 피해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원대가 수반될 것이다”라고 했다.

마침, 이전에 수원 남○파 식구들로 인하여 규사 골재 채굴사업에 대한 정보를 캐치한 나는 평택항만에 소재한 규사 골재 하치장을 찾아가 사업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 임강현 화성군수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임강현 군수가 나의 면담 요청을 즉시 받아들여 조암 읍내 식당에서 만찬을 곁들인 대담을 하였다.

나는 임강현 군수에게 자료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노스벌 일대에서 규사 골재 채취 공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인근 지역은 현재 평택항 해사(海土) 골재 채취 회사에서 채굴하니까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내 의향을 밝혔다. 그렇게 매향1리, 매향2리, 석천4리 어촌계의 어업권 어장 지역인 노스벌에 매장된 규사 골재 채취 허가와 매향1리 어항 내에 골재 하치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임강현 군수는 대동한 관련 부서장들에게 타당성을 조사하여 적
극적으로 지원 계획서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3. 정책적인 생활안정대책 요망

況且 국방안보를 위한 군사 시설로 또한 국가산업기지 등 대단위 건
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인 토지와 바다여장을 국가에 의해 일방적
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 당했던 만큼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
아려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만이 극심한 민생고와 열악한 주거환경(미
공군 사격장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이곳 우리 주민들의 怨聲이 더이
상 대내외적으로 表出되지 않을것으로 思料됩니다.

또한 연고권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별첨 참조의 공유수면점용 및
끝채취 허가등을 득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처 바랍니다.

〈끝〉

서기 1990. 6 . . .

발 신 : 화성군 우정면 매항 1,2,3리 석천 4리 주민일동.

위 민원인 대표: 전 만 규 군상

위건의 내용	동의	매항 1	리장
"	"	"	어촌계장
"	"	"	새마을지도자
"	"	"	청년회장
"	"	매항 2	리장
"	"	"	어촌계장
"	"	"	새마을지도자
"	"	"	청년회장
"	"	매항 3	리장
"	"	"	새마을지도자
"	"	"	청년회장
"	"	석천 4	리장
"	"	"	어촌계장
"	"	"	새마을지도자
"	"	"	청년회장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나는 금번 골재 채취사업으로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집단청구 소송비를 마련할 것이며, 상당한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분배, 지급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마련할 것이라는 개략적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제8호 주민에게 드리는 글).

규사 골재 채취사업이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규사 골재가 매장된 공동어장 노스벌을 공유하고 있는 3개리 어촌계(매향1리, 매향2리, 석천4리) 순회 총회를 소집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나는 설명회에서 “현재 평택항 규사 골재 채굴 사업자들이 우리 3개 어촌계의 어업권 인근 지역에서 모래를 채굴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20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공동어장의 규사 골재 채취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 소득사업 및 일자리 확보는 물론, 수익금 중 일부를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로 할애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매향1리 일부 어촌계원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 이유로는 “매향1리 어항에 하치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왜 타 어촌계까지 끌어들여서 수익금을 나누려 드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임강현 군수가 규사 골재 채취 허가과 수십억 원대가 투입되어야 하는 골재 하치장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3개리 주민들이 제기할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서 우리 매향1리 어촌계만 단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내막과 실상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내가 설계한 경제사업을 가로채려고 이권에 야심을 품고 있던 복○이 등은 본 사업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움켜쥐려

고 비열하고 계획적인 악랄한 짓을 저지르게 된다.

복○이는 술에 취하여 나의 다섯째 숙부에게 “네 조카인 전만규가 동네 땅을 타 부락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막지 않느냐”며, 먹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시피 했다. 이에 나의 처 등 가족 3명이 달려들어 먹살을 뜯어말렸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후 복○이는 상해진단 13주(척○압○골○)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를 했다. 숙부를 포함, 나의 처 등 가족 4명이 집단 폭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으며,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품신하였다.

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온 나는 당시 다툼 상황을 파악한 내용을 진정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검찰은 경찰에게 피의자 4명을 석방할 것과 함께 재조사 지휘를 통보하였다.

결국 내 가족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3세의 딸을 안고 유치장에 갇혔던 나의 아내(최선자)는 곧장 서울 상업은행 본사에 다니는 오빠한테 부탁하여 은행 청원경찰직과 가족의 주거 공간(2가구 공간, 처남 집)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나에게 서울로 이주하자고 애원하며 “시골 사람인 당신이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이딴 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 동네를 떠납시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마약에 중독된 정신병자처럼 투쟁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집요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에 아내를 주저앉혔다.

아내는 매향리와 나로부터 정과 마음이 떠나 버렸지만, 전만규라는 나무꾼에게 자유로운 날개옷을 빼앗겨 버린 선녀처럼 이미, 어린 딸 3명(7, 5, 3세)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린 딸들이 고아가 될까 봐 움짍달짝을 못 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특히 내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은, 늙은 어머니야야 남동생한테 맡길 수도 있다지만, 1989년 5·29 사건, 즉 미군기지 점거 파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화성경찰서로 압송되었을 때 본 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

었다. 우리 주민들이 화성경찰서 광장에서 연좌 농성할 때, 특히 할머니들이 나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포승줄로 뽐뽐 묶인 것을 보면서 눈물지어 통곡 하던 모습이 나의 가슴을 짓누르며, 떠날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뽐뽐 묶인 것이었다.

1990년 10월

차디찬 철창 감옥에서 얻은 치명적 지병

노모님과 올망졸망한 어린 딸 셋을 부양하며 살아야했기에 아내의 눈치 속에, 척추 통증과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고, 이를 악물어 버티며, 마루별 갯벌에 지주식 김(해태) 양식 시설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척추의 통증은 더 이상 진통제로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서울에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의 전신) 권헌열 간사한테 “나의 삶을 포기(자살)해야겠으니, 매향리에 와서 그동안의 매향리 투쟁 관련 자료를 가져가 달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다.

권헌열 간사는 매우 큰 걱정을 했던 모양이다. 버스를 타고 내려온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님의 몸은 개인 전만규의 몸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민중들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에 제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위험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지도위원이신 서울대병원 석○○ 박사님한테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이 돼 있으니 지금 함께 가자”며

부추기는 것이었다. 나는 처참한 몰골로 지팡이를 짚고 그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엑스레이 등, 모든 검진을 받았으나, 저명한 석○○ 교수님도 “증상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권현열은 실망하는 나에게 “친구 형이 대형 병원인 백병원 척추 전문 과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백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곳에 가 진료를 받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권현열의 섭외와 안내로 영등포역 인근의 낡은 건물(4층)에 입주하고 있던 ‘청년 한의사 협회’를 찾아갔다. 총무(훗날 김포 미성한의원장 겸 경희대 교수로 지낸 길호식 박사)가 비좁은 사무실에 작은 전자 기기(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를 마주 앉혀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의외의 얘기를 했다.

“위원장님, 별거 아닙니다. 냉기(안양구치소)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쓰며 경직된 자세로 생활하다 보니 응고된 피가 척추에서 뭉쳐 있는데, 그 뭉쳐 있는 피가 척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약을 1개월 치 지어 설명서와 함께 소포로 보내 드릴 것이니 설명서 대로 달여 드시면 깨끗하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았다. 한국 최고의 의술과 시설을 갖춘 서울대병원과 백병원에서조차도 ‘원인도 모른다’는 악성 희귀병을 별거 아니라니…. 초라한 사무실에서 청년 한의사가 지어 보낸 한약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내 최선자는 “돈도 받지 않고 지어 보낸 성의를 봐서라도 먹으라”며 강권하였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쓰디쓴 약을 들이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0여 일간 인상을 찌푸리며 억지로 마셨던 한약의 효험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20여 일 먹으니 굵었던 허리가 펴졌고, 30일분 탕약 모두를 다 소진하였을 때는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허리가 완전히 펴졌다.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며,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텅으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어,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매항리 미군 폭격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후 나는 《자주민보》라는 월간지로부터 매항리 투쟁과 관련하여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요청받은 일이 있었다. 망설일 것 없이 "청년 한의사 협회 길호식"을 타이핑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더니 그대로 게재되었다.

또한 한의사 길호식 소재를 수소문하여 그를 찾아갔다. 아내와 함께 매항리의 특산물 어리굴젓을 담가 김포에 있는 미성한방병원을 찾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1992년 7월

일본의 전투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벤치마킹

서울 갈릴리교회 담임목사(인명진·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와 관련된 사회단체의 연결로 일본 요코스카현의 핵병기 폐기 시민운동 1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되어 도일하였다.

마침, 요코스카현 시의원 등이 시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일본 중앙정부를 상대로 미군 전투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 덕에 일본 1심 법원 재판 승소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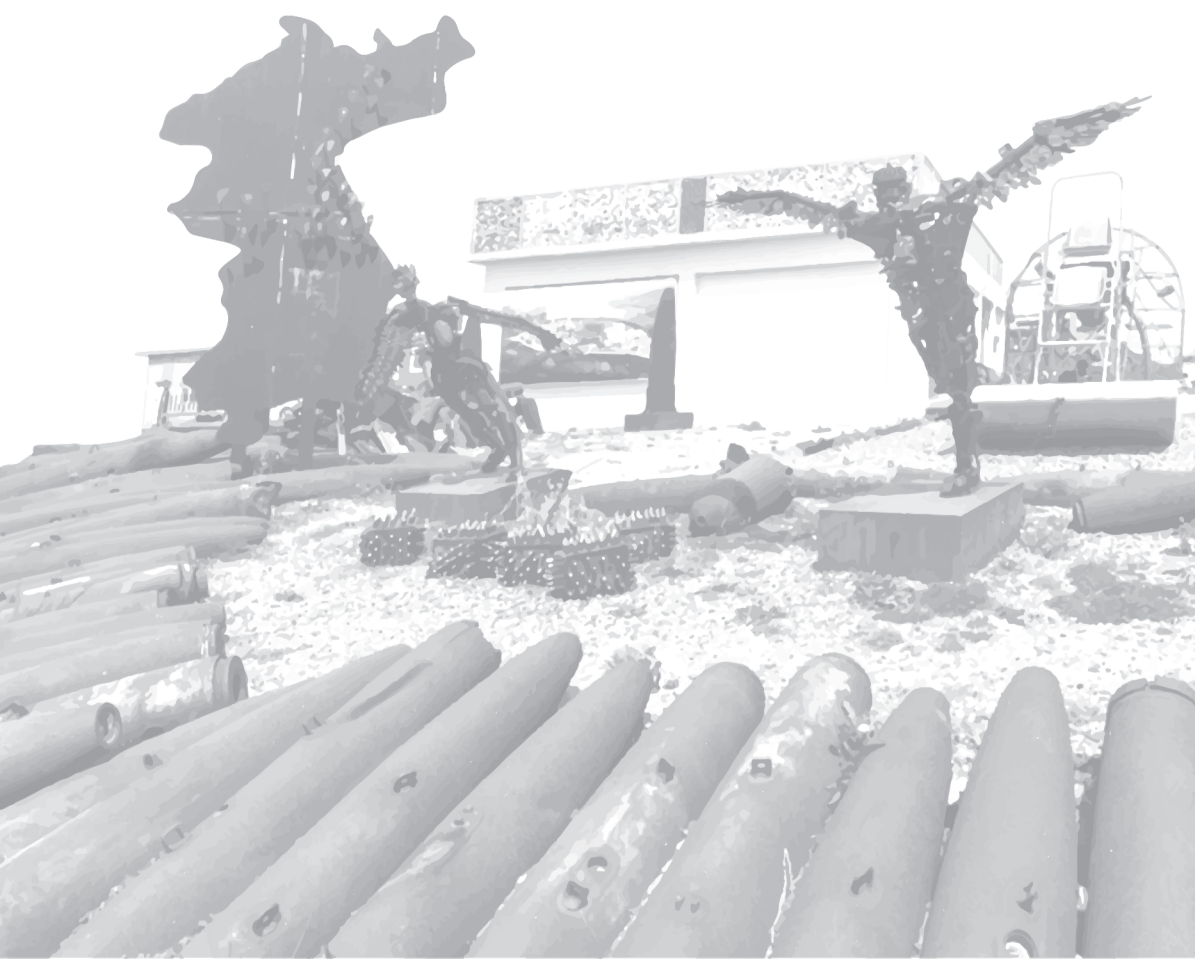
이후 이 사례가 한국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면서 나는 그 신문 기사를 복사·인쇄하여 '주민에게 드리는 글' 표지와 속지에 자세하게 내용을 수록하는 등 여기저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법정 투쟁의

관심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군기지 문제는 한미동맹과 국방 안보라는 이름 하에 성역시되고 금기시되는 터라,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청구라는 용어 자체가 용납되지도 않으며,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인지대 등 막대한 예산도 걱정이거니와 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해결해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지난 1991년 6월에 벌어진 우리 가족의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좌절을 겪어본 상황이었기에 전투기 소음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나의 정신병적인 망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다.

2

다시 투쟁의 깃발 휘날리며



이제 또다시 투쟁이다

1996년 7월

제2기 매항리 투쟁의 깃발을 올리다



아내의 횡집 식당 운영 덕분에 가족의 생계 문제에서 다소 부담을 덜게 되자, 나는 마을의 공동체 문제인 매항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 문제에 또다시 투신하였다.

일단,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주민 대표성을 지닌 매향리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미완의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주민피해 대책을 모색했다. 결국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주민대책위 투쟁본부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동단결의 의지를 모으려면 접근성부터 좋아야 했다. 그래서 물색한 곳이 지금의 매향리 평화역사관 자리이다.

당초(1995년) 그 자리는 사통팔달의 상업적 입지가 좋다 보니 매향3리 최○빈 씨가 이곳에 식당을 세워 수원에서 식당업을 하는 아들에게 물려 주려고, 일단 농가용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올린 상태였다.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식당 용도로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뼈대와 슬래브 옥상만 튼튼한 철근 시멘트조로 시공하였을 뿐 나중에 리모델링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벽체는 시멘트블록으로 허술하게 지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투쟁본부로 삼으려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곳에서는 매향리 쿠니 미군기지 및 육상과 해상 폭격 목표물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둘째, 이곳 위치는 미군 전투기가 육상의 소형 폭탄 투하와 기관포를 발사하는 길목이며, 건물 옥상에서 보면 저공비행하는 전투기가 손에 잡힐 듯이 눈에 들어왔다. 조종사 헬멧이 보일 정도였다.

셋째, 대로(大路)변이라서 대내외 내방객들의 접근성이 좋다.

넷째, 매향리·석천리·이화리 등 관련 피해 마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1988년 12월 12일 최초로 매향리 미군 사격장 주민피해 대책 투쟁 결의대회와 육상 사격장 점거 집단 시위를 하였던 역사적인 곳이다.

나는 건물주 최○빈 씨를 만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건물을 임대했다가는 자칫 많은 사람에게 ‘빨갱이 소리를 들을까 봐’ 일거에 거절하였다.

고민스러웠다. 하는 수 없이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지역의 유지인 매향3리 이종인 삼괴농협장님, 매향2리 이종국 화성수협장님, 매향3리 전 어촌계장님이자 최○빈 씨와 사촌지간인 최○언 씨 등을 아내가 운영하는 횃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며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창고 시설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최○빈 씨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향리 투쟁본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나는 3개월간 콩 튀듯 팔 튀듯이 투쟁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몰두하였다. 우선, 내방객들이 사시사철 머물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 등 냉난방 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미군 전투기 피해 대책 투쟁본부답게 건물 벽에 페인트로 투쟁 구호와 상징적 벽화를 그려 넣었다.

수원 중앙극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극장 간판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를 소개받았으며, 화가는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여러 날 출장을 오셔서 벽화를 그리고 구호를 적어 넣으셨다(당시 110만 원 지불). 벽화의 모델 사진은 당시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의 표지에서 내가 발췌한 것이었다. 전투기가 급강하하면서 기관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은, 내가 요청한 그림을 화가 노인이 현장에서 벽화 작업을 하며 전투기 사격훈련을 목도하는 상황을 벽화로 표현한 것이다.

드디어 주민들의 성원 속에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소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내외빈으로 이종국 화성수협장님 및 오산·화성지역 박신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나는 개회식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히 비유할 수는 없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죽더라도 저 38선을 베고 죽겠다고 하였듯이, 전만규가 죽더라도

라도 저 미군 사격장 철조망을 베고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1996년 10월

8년 만에 또다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다

매항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을 이전하거나 주민 집단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했다. 매항리·석천리·이화리의 713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국회의의·민주당·신한국당·자민련 소속의 국회의원 33인의 서명날인까지 더해졌다.

나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갔다. 각 정당 국회의원 50인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매항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청원 및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며칠 후 다시 각 의원실을 재방문하여 3일에 걸쳐 서명날인을 받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33인에 숫자를 맞추어 서명날인 작업을 마쳤다. 오산·화성지역 박신원 의원을 포함해 총 33인(신한국당-김문수, 김중위, 권철현, 안상수, 이재오 5명/ 국회의의-김원길, 박정훈, 조성준, 정한용, 천정배, 추미애, 천용택, 이석현, 김근태, 권노갑, 이길재, 유재건, 정동영, 한영애 14명/ 민주당-김홍신, 제정구, 이부영, 이미경, 장을병 5명/ 자민련-박철언, 박종근, 이재창, 권수중, 김종학, 정석모, 이병희, 김용환 8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이후 10월 2일, 나는 국회 사무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국회 사무처 청원서 접수처 담당 계장이 매항1리 나성옥 씨의 조카딸이었는데, 청원서에 날인된 의원 명부에 깜짝 놀라며 말한다.

“어떻게 이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전국

에서 다양한 청원서가 접수되지만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 정도만 서명하는데... 이렇게 각 당의 수십 명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 극우 보수당이라 할 수 있는 자민련과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서명날인까지 받는다는 것은 사실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그들은 주한미군기지 문제라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으키는 세력이 아닌가. 그들은 '북괴 도발과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이유로 소수의 약자들이 겪는 민생 문제는 도외시하는 족속들이 아닌가.

매향리 주민 집단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매향리 상황을 다시 한번 크게 부각시키면서 여론을 환기하려는, 양수점장인 고도의 작전이었다.

첫째, 1996년 7월 매향리 주민대책위 회관을 개관할 때, 주민들에게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약 350억 원)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나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복사한 '제11호 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던 바, 이제부터 법정 투쟁으로 매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 문제를 다시 점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일단 주민들의 피해 강도에 이목(耳目)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매향리, 5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전투기 소음피해뿐만이 아니라, 오폭의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향후 추진할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피해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넷째, 한·미 당국이 전투기 소음피해뿐만이 아니라,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만약 주민들의 집단 이주대책 조건이 납득하지 못할 때는 미군 전투기 사격장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1996년 11월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호텔에서 가진 호화 설명회

매향리·석천리·이화리 주민 120여 명을 이화호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으로 초치하여,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초빙된 전문가는 한국에서 소음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인 대전 대학 김선태 교수님과 민주사회 실천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국장이며 환경운동연합의 지도위원이던 이석태 변호사님이었다. 두 분을 환경운동연합의 대외협력 간사 권○열의 도움으로 어렵게 초빙한 것이다.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비용으로 150여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지출 비용은 매향2리 이○원에게 빌린 사채였다.

설명회 이후 대전대 김선태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매향리·석천리·이화리 등 곳곳에서 60여 일에 걸쳐,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조사를 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지원과 내가 부담한 것을 포함하여 실비로 매향리 소음피해 용역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었기에, 나는 각 마을 순회 총회를 통해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그러나 참여하는 주민들이 단 1명도 없었다.

심지어 매향리 미군 폭격장 주민피해 대책추진위원으로 지금까지 위원장인 나를 물심양면 뒷받침해 주던 매향2리 이○원 추진위원조차도 소송에는 난색을 보였다. 부담감으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1997년 9월

가족 집단 살해 및 할복 자살을 기도하다

1960년대에는 미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1970년대에는 남양호 방조제로, 1980년대에는 LNG 수송선 항로 준설공사를 위한 마을 앞 간석지 굴 양식장 강제 수용으로, 1990년대에는 석문지구 및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모든 어장을 상실한 매항1리 어촌계는 아사 직전의 상태였다. 급전직하 유명무실한 어촌계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매항1리 어촌계장이었던 나는 마을의 경제회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를 썼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릴 만큼 간절했다.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끝에 빛을 보는가 싶었다.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단계에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일부 매항1리 어촌계원들로 인해, 획기적인 어촌 부흥조성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 1991년 6월의 골재 채취 사업에 이어 또다시 겪는 실패였다.

이때 추진했던 부흥 사업 추진 및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비로 화성군에 6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것이 우선 7개 어촌계에 분배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화성군수 면담을 통하여 매항1리 단독 보조사업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매항1리 어촌계가 당해 보조사업비를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보조사업비의 자부담 40%의 재정 능력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재정 상태가 전무(全無)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과 나폴레옹의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격언을 곱씹으며,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매향1리 어촌계 종합복지관 및 회 센터 건립 부지(매향리 산○○○번지·고온항 해안 언덕)를 외상 매입 조건으로 부지 소유주한테 사용 승낙서를 공증받았다.

③ 건립 부지 내 1급 군사시설인 해안포, 서치라이트, 탄약고 등에 관한 철거 동의서를 육군 제51사단장한테 받았다.

④ 매향리 미군 쿠니 사격장 부대장한테 매향1리 어촌계 종합복지관 및 회 센터 개발 사업지 고도 제한을 해제해주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⑤ 국고 보조금의 40% 자부담액인 4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화성 군청 수산과에 제출해야 보조금 60%인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 모 종합건설사로부터 본 공사 수의계약 조건으로 4억 원을 차용,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 잔고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결되었다.

그러나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일부 주민들의 악의적인 파투로 매향1리 어촌계 종합 복지회관 및 회 센터 건립사업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나는 환멸과 좌절감을 느끼고, 급기야 정신적인 패닉과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본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기존의 매향1리 횃집 식당과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었다.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나를 조롱하기까지 하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해 불가사의한 기적의 사업 착공 완결판을 만들어 냈다.

매향1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민생고를 타개하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매향1리 어촌계는 단돈 10원도 없는 무일푼의 재정에, 단 한 평의 부동산도 없었다. 그런데다가 미군 전투기 사격장의 고도 제한도 풀어야 했다. 그뿐

만이 아니었다. 육군의 해안 경계 1급 군사시설 지역에 어촌계 종합복지관 및 회 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당면한 민생고를 타개하겠다는 일념이었다. 크게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지인들에게 미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참상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한편, 외지인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저항의식을 자각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소명 의식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미군 측과 육군의 관련 인사들을 찾아다녔다. 굴욕적으로 미군을 만나고, 우리 육군 사단장 등을 독대하여 매항1리 어촌계 종합복지관 및 회 센터 건립 추진에 따르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으며, 큐브를 맞추듯 불가사의한 사업 착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기적이고 물지각한 일부 주민들과 언론사에 의해 모든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의 몸과 마음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며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당시 어촌계장이던 내가 추진했던 고온항 해안 벼랑 위 종합복지관 조감도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불가능한 것이라며, ‘전만규 어촌계장은 미친놈’이라며 손가락질받던 것들이 불현듯 모멸감과 좌절·패배 의식으로 다가와 나의 인생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싶어 가족 집단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보도 매체를 통해 종종 가족 집단 살해 사건을 접했는데, 가장이 나이 어린 자식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은, 그 가장이 죽고 없어졌을 때, 어린 자식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같은 천덕꾸러기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전쟁 지옥 같은 이곳 매항리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노모님과 어린 딸들의 미래가 크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극단적인 악마로 돌변하여, 깊은 밤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으로 들어가 준비한 와이어 줄로 목을 감아 조였다.

어머님은 여러 번 발버둥을 치시며 기를 쓰시다가 몸이 추~욱 늘어졌다. 와이어 줄을 풀고 어머님 몸을 살피니, 이부자리인 요에 오줌을 흠뻑 싸셨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를 죽이고, 딸들(진 14세, 설 12세, 통 10세)이 잠을 자는 건넌방으로, 악마가 되어 유령처럼 들어갔다.

나는, 나란히 잠을 자고 있던, 딸들 중에 첫째 딸 곁으로 다가갔다.

방금 전에 어머님한테 사용했던 와이어 줄을 만딸의 목에 감으려 하는데, 아이가 잠에서 깨며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저항했다. 그 바람에 한 침대에서 옆에 붙어 자고 있던 둘째와 셋째도 깨어나 비명을 내질렀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자, 나는 틀렸구나 하면서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다.

순간, 용수철 튕기듯이 방문 밖으로 뛰어나간 딸들은 놀란 토끼가 되어 그들의 엄마인 최선자한테 도망을 쳤다.

당시 아내는 운영하던 식당(돌고래 회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 그 식당은 나의 집에서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나는 이미 어머니도 살해하였기에 정신이 없었다. 마치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등을 살해한 직후 정신이 나가 어찌할 줄 모르는 것처럼, 멘붕 상태에서 잠시 헤어 나오지 못하다가 거실의 주방 싱크대에 꽂힌 식칼을 꺼내 들었다. 상의를 벗어 던진 다음, 명치에 칼끝을 대고, 양손으로 부여잡은 칼자루를 힘껏 찼다. 순간! 피가 솟구치며 거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그런데, 정신이 멀쩡해지는 것이 아닌가. 크게 아프지도 않았다.

나는 “어! 큰일 났네. 왜, 죽지 않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에 들려진 식칼로 왼쪽 손목의 동맥을 끊었다. 내 손으로 어머니를 살인하였으니 여기서 죽지 않으면 장기 징역살이는 물론, 패륜적인 살인범으로 낙인찍혀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아내와 첫째 딸이 나에게 달려왔다. 아내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날카로운 쉿소리를 지르더니, 내 손에 들려있는 칼을 빼앗으려고 순간적으로 나를 덮쳤다.

동시에 첫째 딸이 함께 달려들었다.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달려들며, 내가 쥐고 있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이었다. 딸 아이의 손에서 순간 피가 흐르는 것을 본 나는 순간적으로 칼의 손잡이를 놓아 버리며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제발, 나 지금 죽어야 돼.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그러자 딸 아이는 피 묻은 칼을 감추려고 주방 뒤쪽 뒤란으로 나가고, 아내는 어머니가 죽어있다고 하는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다시 주방 싱크대에 꽂힌 과도를 꺼내 들었다. 그러곤 피가 흐르는 명치의 구멍에 다시 집어 넣어 칼을 상하좌우 방향으로 마구 찼다. 소스라치게 놀란 아내와 딸이 다시 달려들어 그 칼을 뺏어 집 뒤란 시멘트 담장 너머로 던져 버렸다. 나는 다시 거실 테이블(나의 책상) 위 필기구 통에 꽂혀있던 무쇠용 큰 가위를 집어

들어 구멍 난 명치 속을 헤집었다. 그런데 다시 모녀가 달려들어 또 빼앗아 집 뒤란으로 향하기에 나는 또다시 거실 싱크대로 칼을 뽑으러 발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흥건히 고인 핏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는 나를 더 이상 그냥 놔두지 않았다. 뚫린 가슴을 수건으로 틀어막으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고, 맏딸 진이는 119 신고와 인근 매향4리에 사는 외삼촌(최인선)한테 전화를 걸었다.

조암 읍내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작은 처남이었다. 마침 인근에 사는 학원생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려고 왔다가 긴급 전화를 받고 학원 승합차를 몰고 달려왔다.

나는 처남과 아내의 손에 강제로 차에 실렸고, 조수석 뒷줄 문 옆 좌석에 진이가 앉아서 나의 구멍 난 가슴에서 쿵쿵 흐르는 피를 세면 수건으로 틀어막았다. 그러나 나는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도 정신이 멀쩡하여 두려움에 떨었다.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죄의식에 휩싸인 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좌석 옆에 달린 안전벨트를 목에 감아 나 스스로 조이는데, 진이가 “아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누르고 있던 수건에서 손을 떼면서 내 목을 감은 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달리는 차 안에서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듯, 큰딸 전진은 “이 ○× 나쁜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리쳤다.

그야말로 나는 만신창이 되어 발안에서 제일 큰 성모정형외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의 응급차에 실려 오산에 있는 서울 종합병원으로 내 달렸다.

달리는 응급차 안에서 나는 문득, 장모님(당시 66세)이 떠올랐다. 1993년 10월 10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사고를 당하신 장모님이었다. 매향리 앞

바다 작은 섬(호예기)에서 밀물이 몰려오는 와중에 승선하시다가 뱃머리에 머리가 부딪치면서 뇌진탕을 입으신 것이다.

사고 직후 매항리 포구(고온항)에 입항한 선박으로 달려간 나와 아내는 놀랄 경황도 없이 소형 승용차(티코)에 장모님을 태워 발안 성모병원으로 달려갔다. 사고 당한 지 1시간여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의술과 장비가 부족하여 다시 혼절하신 노구(老軀)가 앰블런스에 실려져 오산시에 소재한 서울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차 안에서 나의 손을 잡은 장모님은 온 힘을 다하여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아마도 우리 내외에게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와 아내는 가슴으로 울부짖으며 서울 종합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들어갔으나, 곧 숨을 거두셨다.

장모님이 비참하게 운명하신 지 4년이 지난 1997년 오늘,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며 앰블런스에 실려 가던 상황을 떠올리며, 장모님의 애통한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어리석고 끔찍한 자해로, 장모님이 저세상으로 달려가시던 죽음의 그 길을 달려가는, 비참하고 알궂은 지금 나의 기막힌 운명에 역장이 무너져 내렸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복부와 손목의 동맥 파손으로 피를 많이 쏟았는데도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이다. 병원 수술실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한테 심판받으러 들어가는 죄인 같아 두려웠다.

철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마취제에 정신을 잃어버린 후 깨어보니 병원 3층 입원실이었다.

아차! 싶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환자용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양쪽 손목과 발목이 의료용 붕대에 감겨 침대 틀에 묶여있는 것이었다.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아내가 내 곁에 다가와 “진이 아빠, 수술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며 위로한다.

아내는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는 발안 성모병원과 가게 식당(돌고래 회집)을 오고 가며, 날벼락 같은 상황을 수습하느라 밤늦게 왔다.

아내 최선자는 나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해주었다.

“4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나온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가운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힘든 수술이었다고 해요, 천만다행으로 심장이 비켜나 ‘간’만 여기저기 찢겼대요. 문제는 간의 한가운데가 땡 뚫려서 꿰맸는데, 간은 두 부처럼 부드러워서 환자가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차라리 간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면, 간은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안정적 치료가 되지만, 당신 같은 경우 꿰맨 간이 터지면 정말 위험하대요.”

나는 아내한테 “죽으려고 작정하고 저지른 놈이 간이 터지든, 심장이 터지든 무슨 상관이었어”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걱정되는 건 어머니의 안부였다.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보다도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119 응급차가 와서, 발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니,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인가?”

“지금 발안 막내 고모(내 막냇동생, 전순자)가 간병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았나?”

“당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당신의 자해를 말리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고모가 잘 수습하고 넘어갔어요.”

“어머니 목을 감았던, 그 와이어 줄은 어떻게 했어?”

“내가 치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치료나 받고 퇴원합시다.”

내 입에서는 “오! 주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이 죄인을 이렇게 살려 주시다니요” 하면서도 상처의 치유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수백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였다.

자해 사건으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를 포함하여 병원비가 46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특히, 집안의 장손이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 문제를 팽개치고, 빨갱이 가문으로 만드는 미군 폭격장 폐쇄 운동에 집착하는 나에게 실망한 집안 일가 친인척들 대부분 나를 외면하였다. 심지어 남동생(전홍규)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는데, 오렌지 주스 2병이 들어있는 상자만 들고 왔다.

그래도 마을의 우종근 선배님과 김동기 후배가 5만 원의 위로금과 편지를 병원 침대에 두고 갔다.

나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에 수술한 지 4일째 되는 날, 아내를 설득하여 어두운 새벽에 병원을 몰래 탈출하는 야반도주를 감행하였다.

아내는 내가 다시 병원에서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여,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나의 몸을 부축해 자신이 몰고 온 경차(티코)에 태웠다. 이렇게 도망하던 나의 물골은 너무도 비참하였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 관계자들이 앰불런스를 끌고 나의 집으로 쫓아왔다. 그들은 나에게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병원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오죽하면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할복을 하였겠는가. 나는 병원 비용을 납부할 능력도 자신도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끌고 가든지 맘대로 해라. 나는 절대 재입원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이 딱한 소식을 접한 오산화성지역구 박신원 국회의원이 병원 치료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 박신원 국회의원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였다(금번 나의 회고록이 출간되면 책을 들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부디 강건한 모습으로 생존해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설상가상, 이게 웬 날벼락인가. 곧이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IMF

외환 위기라는 재앙이 터지고 말았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철문이 굳게 닫히면서, 조그만 어촌은 순식간에 유명 마을이 되어 아내가 운영하던 ‘돌고래 회집’ 식당도 부채만 남기고 폐업하였다.

1998년 2월

장기매매 포기하고 기증 서약하다

소음 전문기관인 대전대 김선태 교수팀이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소음 피해를 연구 조사한 보고서가 이미 서울의 덕수법무법인 이석태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되었으나, 일이 풀리질 않았다. 소음배상 청구 소송을 반대하며,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단 1명도 없었다. 소음배상 청구 소송을 주민들 몰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납부해야 할 소송수행 비용 및 인지대 100만 원이 필요했다. 문제는 내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이미 소비하였기에 더 이상 돈을 빌릴만한 곳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궁여지책으로 자금 마련의 돌파구로 생각해 낸 것이 장기매매였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1월 12일에 방문했다. 장기매매를 상담하러 갔으나, 장기매매는 안 된다고 했다. 기증만 가능하다고 하여, 영겁결에 사후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장기 기증서에 서약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나의 운전면허증에는 장기 가운데 심장을 뜻하는 빨강색 그림 옆에 ‘장기기증’이라는 적색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결국, 새벽에 혼자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소임을 저에게 맡긴 것이니, 제발 기적 같은 구원

을 주옵소서!”

그러곤 물에 빠진 늬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2월 19일 나는 갯끝 너머(매항5리, 해안 언덕 위) 김명돌(당시 82세) 노부부가 사시는 오두막집을 찾았다. 김명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어르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만, 오늘 새벽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지금 나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듯이 발길이 옮겨지는 대로 온 것이 이곳 어르신 댁이었네요. 제가 급하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 혹시 돈 100만 원만 있으시면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 식당(돌고래 회집, IMF 파동으로 폐업) 문도 닫고 어린애들과 얼마나 힘이 들면 우리 두 늬은이가 사는 집에까지 돈을 빌리러 왔겠는가. 마침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줘서 모아 놓은 돈 100만 원이 있는데, 갖다 잘 쓰고 열심히 해서 갚게나.”

그러면서 김명돌 할아버지는 장롱 속에서 고무줄로 묶은 현금 100만 원 다발을 꺼내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당장 쓸 활동비도 필요했다. 그래서 무작정 매항1리 이춘분 할머니(당시 86세) 집을 찾았다.

이춘분 할머니는 1956년 불발탄에 의해서 사망한 4명의 소년 중 전상록의 어머니이다. 남은 아들들은 간암 등으로 모두 사망하여 집을 마주하고 있는 사위 내외(황정선, 전인화)와 화성시에서 극빈자 보호를 받으며, 그 할머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주와 손녀 남매를 뒷바라지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1996년 7월 매항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개소식 때, 투쟁기금으로 마련된 1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내가 종종 식량과 과자 등을 사다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한 할머니한테 거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도 나는 귀신이 씌워진 미친놈처럼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한테 돈이 있으면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 그 할머니는 분명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할 것이며, 불과 3미터 거리에 마주하고 거주하는 큰딸이나 사위한테 '전만규가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면 마을에서 망신이나 당할 일인 것인데 무작정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 기적이란 말인가. 속담처럼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이 춘분 할머니는 마치 나에게 돈을 주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방안의 향아리 속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나에게 차용증서나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마도 그 할머니는 전만규가 2년 전에 100만 원 봉투를 기부하고 종종 식량과 과자 등을 사다가 드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그런데, 20여 일 후 그 할머니의 손주(중3, 전기석)가 학교에 통학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졸라대 오토바이를 사줘야 한다면 그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나는 참으로 난감하였다. 내가 오죽하면 고령의 할머니한테 창피를 무릅쓰고 거금을 빌렸겠는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몰던 오토바이가 있었고, 내가 드린 말씀을 받아들이셨다는 점이다. 그 할머니의 손주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한다는 말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10개 마을에 알림장(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내가 직접 배달할 때 쓰는 전용 오토바이(100cc)를 대신 내주며, 3개월 이내에 돈을 마련하여 드리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때 김명돌 할아버지와 이춘분 할머니를 통하여 소송비 등을 마련해 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갖게 되었다.

1998년 2월

소음피해 청구 소장을 주민들 몰래 접수하다

매향5리 김명돌 할아버지한테서 빌린 100만 원을 덕수법무법인 이석태 변호사 사무실에 진행비와 법원 인지 대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소음배상 청구 소송(15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미 작성된 대전대 김선태 교수팀의 소음도 연구 용역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울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때, 집단 소송의 원고인 15명 명단은 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몰래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매향1리 전만규, 백영기, 매향2리 민창학, 이기연, 매향3리 김월성, 최중언, 매향4리 장성재, 매향5리 양홍규, 전석진, 석천3리 이창호, 최해문, 석천4리 하달성, 이화1리 한천덕, 이화2리 ○○○, 이화3리 최경숙이다.

내가 15명을 임의로 선정하면서도 향후 전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감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각 마을에서 이재(理財)에 밝은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내게 약간 착오가 있었다. 매향2리에서 새마을 지도자 민창준 씨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의 형님 민창학 씨와 이름을 착각하였고, 이화3리 대표로 오명환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에 그의 모친 최경숙 씨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 이석태 변호사가 청구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대주 최경숙 씨가 등록된 에피소드가 있다.

또 매향1리 백영기 노인회장께서 소송 중에 사망하여 소 취하가 되었다.

만약 백영기 노인회장의 배상 청구 소송을 그대로 이어 가려면 그의 직계 자녀들 모두가 인감증명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자녀들 중에는 미국으로 이민 간 자식도 있었다. 그러니 6남매의 대습 서류를 모두 갖추는 건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 소송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반대하여 전만규가 미

친놈처럼 당사자들 몰래 임의로 제소한 것이기에 고(故) 백영기 회장의 이름은 원고 명단에서 빠지고, 첫 번째 시험적 집단 제소의 원고는 14명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법정 투쟁방식의 집단 소음배상 청구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나는 매향1리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현안 사업을 안건으로 부쳐 총회를 소집하였다.

매향1리 어촌계장은 매향1리와 5리 2개 마을 주민들의 공동어장의 재산권과 조업권 등을 총괄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들보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파워)도 크지만, 주민들의 생활 경제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어촌계 총회에는 주민 대부분이 참석한다.

그래서 나는 어촌계 총회를 기화(奇貨)로 “매향리 미군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노라”고 조심스럽게 발표하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관 내부가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화끈 일며 여기저기서 씹씹거리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매향1리 이장과 어촌계장직을 역임한 황○재 씨가 발언권 신청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게거품을 물고 격노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

“지금 어촌계장이 동네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냐! 감히 어촌계 총회 절차와 결의도 없이 가당찮게 집단 소송을 벌이다니, 당장에 취하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취하시키겠다!”

이렇게 마을회관을 무너뜨릴 것처럼 고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에 취하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소음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1998년 7월

소음배상 청구소송 취하요구 집단 민원 발생

내가 가슴을 졸이며 가장 염려하던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매향1, 5리 주민들 9명(김○식, 김○기, 김○선, 나○옥, 백○기, 신○덕, 전석진, 최○태, 황○재)이 백○기 씨의 봉고 승합차로 덕수법무법인(당시 동대문 소재)을 방문하였다.

덕수법무법인의 이석태 변호사를 면담한 주민들은, “마을에서 전만규가 진행하는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동의하지 않았으니, 손배소송 사건을 취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석태 변호사로부터 사전 전화 연락을 받은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하여 면담 자리에 동석하였다. 상당히 불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이석태 변호사는 통명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솔직히 사실을 얘기했다.

“1996년 겨울 김선태 교수님과 변호사님이 직접 매향리 지역 호텔로 오셔서 소음 배상 청구 절차에 관해 설명을 해주신 후, 제가 그동안 유인물이나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주민들에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집단 소송을 제안하며 원고인단을 모집하였으나, 우리 주민들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소송을 반대하여, 사실 제가 주민들 몰래 금번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곤 “우리 주민들이 금번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요소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첫째, 금번 소송의 결과는 100% 패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생각에는 전투기 비행기 소리가 우리 매향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지켜 주려고 미군 조종사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배상 소송은 절대 승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패소 판결이 되었을 때, 망신과 함께 소송비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전만규가 마을 총회에서 금번 배상 청구 소장 사본을 배포한 내용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아봐야 소송비와 변호사 수입료를 공제하면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몇십만 원으로 예상되는 적은 돈 때문에 위험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석태 변호사가 이들의 의문점을 조근조근 설명하였다.

“첫째, 물론 패소할 수도 있지만,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만규 위원장의 첫째 목적과 의도는 금번 소송을 통하여, 매항리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소음 피해와 고통에 대해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미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둘째, 설령 패소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소송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만약 1심에서 1인당 청구금 100만 원 배상을 승소하게 되면, 2심인 항소심에서 1인당 1천만 원으로 확장하여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배상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 원고 15명의 명단에 등록된 전석진 씨가 참여 포기로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원고 측의 실점과 약점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석태 변호사가 나한테 귀띔하여, 나는 집안 어른이신 전석진 씨에게 종친으로서 간곡한 부탁을 드려 취하를 막았다.

이석태 변호사와 가진 면담에서 들은 설명에 따라, 매항1리장 백동현 씨

는 매향2, 3, 4리장, 석천3, 4리장, 이화1, 2, 3리장에게 등기 우편으로 “매향 1, 5리는 소음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매향1리 5리만 따로 주민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악마와 의인

1998년 10월

가족들의 보금자리 주택을 팔아 빚을 갚다



1917년 전만규 조부모님 때부터 터 잡고 살아온 집을 팔고 알거지가 되었다.

비록 계딱지만 한 시골집이지만, 나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옥이며, 내가 직접 리모델링한 여섯 식구의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매향1리 어촌계장과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 주민피해 대책위 활동 등을 하면서 쌓인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

집을 팔자 연로하신 어머니(박순엽)은 발안으로 시집간 막내딸(전순자)의

작은 빌라로 내쫓기고, 나의 아내와 세 딸(당시 15세, 13세, 12세)은 나와 함께 매향1리 마을회관(1971년 시멘트 블록 구조) 단칸방으로 기약 없이 입주했다.

일단 집을 판 돈으로 2월 19일 매향5리 김명돌(당시 82세) 할아버지한테 빌린 돈 1백만 원을 갚아야 했다.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120만 원을 드리자 김명돌 할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자를 주고받는 게 아닐세” 하시면서 20만 원을 되돌려 주셨다.

1998년 11월

만삭의 아내를 대로변에 내팽개치다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주민 대책위 회관 사무실에서도 쫓겨날 판이었다. 임차 월세를 내지 못하자 건물 주인(최○빈)은 수도와 전기를 끊었다. 나중에는 현관문 셔터에 자물쇠를 채워 나는 생쥐처럼 창문으로 주인 몰래몰래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단체 손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는 아내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훔쳐 농협에서 돈을 인출해 대책위 회관 월세를 건물주에게 지불하였다. 만삭의 아내가 눈보라 치는 겨울날에도 손가락 호호 불며, 타 지역인 원안리, 호곡리 어촌계 관할의 갯벌에 나가 굴을 따 읍내(조암)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날그날 조암 농협에 저축한 돈이었다.

통장에서 돈을 빼낸 건 금방 들통날 일이었다. 아내는 다음 날에도 시장에 나가 굴을 판 돈을 입금하였다. 금액이 인채된 내역을 들여다보는 순간,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통장에서 왜 돈이 빠져나갔는지 농협은행 창구 직원에게 따져 물으니, 인출한 범인은 남편 전만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 돈은 2개월 후 아기를 분만할 병원 입원비와 내년 초 셋째 딸 중학교에 입학할 등록금이었다.

아내(최선자)는 금방 살인이라도 할 태세로, 온몸에 독기를 품고 대책위 사무실로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나의 따귀부터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개만도 못한 ××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파리 목숨 같은 돈까지 훔쳐가면, 나와 네 새끼들을 죽이려는 것이냐! 지금 당장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네놈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돈 어떻게 했어!”

따귀를 맞자 별이 번쩍이더니, 이번에는 천둥 번개 같은 뜨거운 살기(殺氣)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아내는 나에게 “빨리 말 안 해! 쪼다 ××야!” 하며 더 화를 냈다. 나는 주눅이 들어 손가락으로 옆집(최○빈 맥)을 가리키며, 밀린 사무실 임대료 주고 셔터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매섭게 반응했다.

“사무실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게 정신병원이지 무슨 개 × 같은 사무실이나,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때려치우고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나 해라!”하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최○빈 씨 맥으로 식식거리며 갔다.

그러나 매향리에서 자린고비로 소문난 최○빈 씨는 자신이 당연히 받을 돈을 받은 것인데, 그 돈을 내어 줄 리가 없다.

그러자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최○빈 씨 맥 대문 밖 대로변에서 뒹굴며, 배속의 아이와 화물차에 치여 죽겠다며 울부짖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오가며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들이 클랙슨을 울리며, 도로가 순식간에 마비가 되었다.

나는 매향1리에 소재한 고온교회에 함께 출석하는 정○자 권사님 맥으로 뛰어가 권사님을 모시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자 권사님이 아내를 달랬다.

“진이 엄마, 그 돈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만 일어나서 갑시다. 며칠 전

에 버스를 타고 지나면서 보니까 최○빈 씨가 사무실 셔터 문을 내려 자물쇠로 채우는 것 같더라구.”

1999년 1월

인간사 하늘이 정하는 것, 낙태 시술 실패

앞에 썼다시피 불과 14개월 전인 1997년 9월, 나는 가족을 집단 살해하고 할복자살하려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 깊은 상처만 남겼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내 나이 44세에 ‘늦둥이’라니….

무엇보다도 아내가 임신 5개월일 때, 나는 땀달하듯이 태아를 낙태하라고 종용했다. 나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친언니가 있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 며칠 후 병원을 내원하여 확인 검진을 받는데, 낙태 시술의 고무줄이 빠져 태아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이번에는 수술칼로 시술을 다시 해야겠다며 나의 아내한테 수술대로 올라가라고 했다. 아내는 수술대에 올라가 누웠는데,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다. 이번에는 칼로 잘라내는 집도를 하겠다는 의사의 말에 겁을 먹고 있었다. 마침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아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 병원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도망을 왔다.

결국, 내가 섬기는 고온교회 김용운 목사님과 정경자 권사님 등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낙태는 죄악”이라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를 기르기가 힘이 들어 낙태하려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기르겠으니, 제발 낙태하지 말고 분만하도록 아내를 구박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유했다. 아내의 처연한 모습에 나는 도리어 아내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워 위로하며 평안하게 분만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서는 양육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그 아들은 운명처럼 매항리 투쟁을 함께하게 되었다. 이듬해 2000년 3월 갯난아기 때부터 나의 강제에 의하여, 아버지와 함께 칼바람이 부는 매항리 집회 현장에서 의젓한 삭발 투쟁을 하며, 대를 잇는 투사가 되고 동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성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 태워 죽이려 했던 것처럼, 어리석게도 한때는 매항리 투쟁의 제물로 갯 태어난 아들을 죽일 뻔하기도 하였다.

1999년 10월

늦둥이 아기 목숨을 소음 소송 제물로 바치다

서울지법 561호 법정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매항1리 우운식 씨가 전투기 소음피해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증언대에 서기로 하였다.

우운식 씨의 이날 증언에 앞서, 덕수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석태 변호사와 면담하면서 사전에 증언 질문 요지를 숙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우운식 씨를 증인으로 섭외하는 과정에는 피눈물 나는 사연이 담겨있다.

모든 주민이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매우 패배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승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무관심과 외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게다가 시골 사람들로서는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것이 커다란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매항리 주민 중에서 증인을 섭외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아무나 증인으로 세워 법정에서 증언부연 횡설수설하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우운식 씨는 재판 경험(1991년~1993년도 노스벌 해태양식장 손실피해 배상 청구 사건)은 물론, 매항1리 어촌계장직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법정에서 명료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따라서 나는 여러 차례 우운식 씨 댁을 방문하여 법정에서 소음피해를 증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결국, 끈질긴 나의 간절한 호소에 법정 증인 승낙을 받아냈다.

이석태 변호사와 만나 재판 전에 사전 질의 응답을 하기 위해 상경 면담 날짜에 우운식 씨를 모시러 댁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우운식 씨 내외분이 바다 어장에 쳐 놓은 꽃게 그물을 걷으려고 어선이 정박된 포구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분명히 어제저녁에도 댁을 방문하여, 함께 이석태 변호사 사무실을 동행하기로 약속을 철석같이 하였건만 이게 웬 낭패란 말인가.

나는 주저앉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아저씨!” 하며 절박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우운식 씨는 움찔 놀라면서, “아, 내가 깜박했구먼” 하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함께 바다에 조업을 나가던 우운식 씨 아내(주경희)가 우운식 씨에게 “오늘은 안 돼요!” 하며, 나의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오늘 꽃게 따지 못하면,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소리쳤다.

나는 그 두 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우운식 씨가 나의 손을 잡아 세우며, “내가 약속을 한 것이니 갔다 오세나. 한 30만 원 버리는 거지 뭐!”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고 나오셨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우운식 씨와 함께 택시로 조암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 25분 간격의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우운식 씨가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자네 안 식구는 아침에 바다에 굴 따러 가던 것 같은데, 어린애(전 만규의 아들 생후 9개월)는 어떻게 했나?”

“네, 방에 채워 놓고, 방문 밖에 자물쇠로 채워 놓았습니다.”

우운식 씨는 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나를 야단했다.

“이 사람, 미쳤군! 빨리 가서 데리고 오게나!”

사실 나는 우운식 씨를 어렵게 섭외하여, 모시고 상경하는 것이라서 여느 때처럼 할 수 없었다. 내가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포대기에 둘러업고 기저귀 가방에 우유병까지 담아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우운식 씨가 창피해할까 봐 우려되었다. 그래서 첫머리 아기를 업고 마을 고온교회 김용운 목사님 사모님한테 찾아갔다. 내가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고온교회 집사 직분의 신도이기도 하였지만, 목사 사모님은 마을에서 바다에 굴을 따러 가지 않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의 불가피한 사정과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니 사모님이 정색을 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이었다.

아마 그 사모님 생각에는, 내가 가정을 팽개치고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게 못마땅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빨갱이 짓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과 더불어, 혹시 갓난아기가 잘못되면, 사모님이 원망을 들을 것을 염려한 것 같았다.

결국 별수 없이 나는 아기를 마을회관 단칸방에 채워 놓고, 자물쇠로 방문을 밖에서 잠갔던 것이다.

다행히, 우운식 씨의 호통에 나는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피눈물의 속울음을 토하며 집(마을회관)으로 달려갔다.

방문 앞에 다가서자 아기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어보니, 생후 9개월 아들의 얼굴은 눈물범벅으로 초주검이었다. 미군 전투기 조영탄 낙하산 ‘나이롱’ 천을 덧댄 문풍지를 여린 손가락으로 긁어대어 손가락 끝에는 피멍이 들었다.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토록 정신 나간 미친 짓을 하였는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과 회한이 막심



이 사진은 1999년 1월생 전만규의 늦둥이 '전국'이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 당시 저 아이를 독방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을까. 그러나 나의 아들은 민들레처럼 곳곳하게 잘 자라났다.

하다. 만약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데리고 매향리 고향 땅을 떠나거나, 귀머거리 짐승처럼 미제 전투기 폭격 소리에 순응

하며 살 것이라는 회한이 밀려온다.

나는 당시 우운식 씨의 진실한 마음이 고마워서, 2006년 7월 소음배상금의 전만규 가족 성금 중 100만 원을 우편 봉투에 담아 우운식 씨 댁을 방문하여 내외분이 피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며 드렸다. 또한 수년 동안 명절 때마다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하였으며, 2006년 1월 북한 금강산에서 가수 안치환이 공연할 때 우운식 씨를 모시고 다녀오기도 하였다.

1999년 11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먹을 걸 구걸하다

매향리 고향을 지키며 사는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편지를 띄웠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고향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겨울 식량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절망절망한 네 자식(16, 14, 12, 1세)이 일단 겨울은 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마침 고향 지킴이 초등교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김익규 회장과 송기백 총무가 쌀(80kg) 두 가마니를 화물차로 실어와 제공해 주었다.

사실, 내가 시위를 선동해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미군들이 보복으로 우리 논을 자갈과 모래 등으로 매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족의 식량을 이렇게 구걸 동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의 아내가 식당업 등에 종사하면서 식량을 구매하여 해결하였지만, IMF로 식당업은 폐업하였고, 갓난아이가 있어서 아내가 고정적인 노동의 일자리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당장 올겨울 식량마저 마련하지 못했다.

더욱더 역장이 무너지고 서글픈 것은, 5·29 미군기지 습격 사건으로 내가

친구들이여! 잘있느뇨.

사납이 살다보니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울때도 있는가 보지요.
영똥한 짓거리(美공군 사격장)로 10여년 이상을 허송세월 하다보니,
그아마로 거짓말이 터어 목숨보다 귀중한 자존심을 점고 정박한 심정으로,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어리운에 처해있는 이놈(만규)에게
십시일반(十是一飯)으로 겨우살이 식량(쌀) 두어망씩만 보태주지 않으냐.

죽음보다도 싫은 이,편지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벌여놓은 큰일(사격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에 집이 터고있는 어린 새끼들 때
문에 고민하고 망성이다가 틱을 들었네만,
이 못난 만규를 옥하거봐 홍보는대신 도움중수 있다면 전화 부탁하네. (017-358-2806)
자존심이 강한 내 처(妻)한테는 이,편지 내용의 언급을 삼가하여 주시게나.

친구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복이 영원하길 기원하겠네.

이 못난 만규도 새 천년에는 반듯이 멋진 모습의 좋은 친구로 함께 할것을 약속하겠네

1999년 11월 29일.

매항리에서 전 만규.



구속되자, 매립된 그 논을 미군들의 장비 지원 하에 논으로 복원하여 매항1리 엽○정이 가로채 경작했다는 사실이다. 비통함과 울분이 끓어 올랐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 독립군 가족들이 친일파들에게 더욱더 치욕스러운 능멸을 당하는 것처럼 적개심마저 들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하던가. 엽○정은 비열한 방법으로 식량은 얻었지만, 목숨이 끊어졌다. 엽○정은 미군 전투기 폭격 소음 스트레스로 농약을 먹고 음독자살하였다.

2000년 3월

매향리 대 투쟁을 예고하는 피눈물의 번제



3월 23일, 매향리 미군기지 앞 집회장에서 생후 14개월 된 늦둥이와 함께한 식발식

서울 민사지법에서 펼치는 소송 투쟁을 보다 신속하게 승소로 유도하기 위하여, 나는 매향리 현장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대내외적으로 표출시켜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투쟁 방안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1단계로 매향리 미군기지 철조망 하나 사이로 접속된 매향리 주민 대책위 투쟁회관 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에게 투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1톤 화물 트럭을 집회 무대로 삼았다.

그리고 읍내 단골 이발사한테 사전에 예약해 놓은, 무대 위에서 나의 식발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나는 집회에 참여한 마을 아주머니한테 잠시 맡겼던 생후 14개월 된, 나의 늦둥이(전국)를 품에 안고 화물차량 무대로 올라와 이발사한테 늦둥이 아기의 삭발을 요구하였다.

그날따라 꽃샘추위 칼바람이 세차게 불었기에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눈물지었고, 이발사도 예약되지 않은 아기의 삭발 요구에 당황해 하며 머뭇거렸다.

그러나 꽃샘 칼바람보다도 더 차가운, 나의 성격을 잘 아는 이발사는 차가운 '바리깡'을 아이의 머리에 갖다 대야 했다. 그런데 나는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아기는 도리어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숙여, 무겁고 엄중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감당하며 현장의 대중들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그 장면은 마침, KBS-TV 추적 60분 촬영팀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촬영하였으나, 추적 60분 <매항리에도 봄은 오는가> 영상에서는 편집 삭제되었다.



그해 7월 전국(全國)은 아빠 전만규 위원장을 대신하여, 벌거숭이 몸으로 홀연히 단신으로 전투 경찰대를 막아섰다. 전투 경찰 삼촌들아, 위험한 황색선을 넘지 마시라!



야! 새끼들아! 대가리 숙여! 나 전만규 위원장 아들 전국이야! 그해 뜨거운 여름 아빠(전만규 위원장)는 감옥에 갇히고, 아빠를 대신해 벌거숭이 아기는 매항리 투쟁 현장을 휘저으며 지키고 있다.

이후 5세이던 전국에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 매항리 주민대책위원회 회관 마당에 열기설기 쌓아 놓은 폭탄 더미 위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였다. 미군 전투기가 농섬에 폭격 훈련을 하며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키자, 어린 전국은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가 썩을 것 같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침 이 장면을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가 포착하여 다큐멘터리로 보도되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가 아팠으면, ‘귀가 썩을 것 같다’고 중얼거렸을까.

2000년 3월

국방부 장관 조성태를 오싹하게 꾸짖다



3월 23일 매향리 주민대책위 투쟁회관 마당에서 가진 집회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 그날 참석하셨던 주민들이 전만규 부자(父子)의 결연하고 쇼킹한 투쟁 의지에 탄복하셨는지, 이날(3월 29일) 국방부 앞 상경 집회에 대다수(600여 명) 주민들이 투쟁 비용 1만 원씩을 지참하고 참석하였다.

전세버스 13대에 분승한 주민들은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광장에 하차하였다.

일단, 질서정연하게 좌정한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매향리 투쟁가인 <매향리 청년>이 실려 있었다.

이 투쟁가는 <소양강 처녀> 곡에 가사를 바꿔 입혀 만든 노래다.

내가 이날 집회에 주민들과 함께 부르기 위하여, 이를 전 밤에 순식간에 작사한 투쟁가이다.

나는 가끔 노동자 또는 운동권 학생들의 집회에 가보면, 정말 가슴이 뻐만끔 기분이 고조되는 걸 느꼈다. 피가 끓는 투쟁가를 부르며 집회 의지를 뜨겁게 달구는 현장을 목도하였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전날 밤, 나는 상경 집회 준비를 하면서 일단 매향리 주민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부터 선정하기로 생각하고 인터넷을 접속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1위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고, 그다음 2위가 <소양강 처녀>였다.

나는 여기에서 <소양강 처녀>를 택하고, 이 노래의 곡에 맞추어 개사에 착수해 노래 소절을 바꿔나갔다.

의외로 개사의 소절이 거미가 풍구멍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술술 나오며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날마다 육신으로 부딪치며 겪는 척박한 환경, 영혼까지 명들게 한 사고(思考), 이런 것들이 합쳐져 순식간에 노랫말로 튀어나온 것이다.

그래서 단 2시간도 안 되어 투쟁가 <매향리 청년>을 3절까지 완성하였다.

1. 해 솟는 매향리에 깃발 올리면, 폭격은 시작된다 귀머거리 주민들아!
무식한 주민들아, 참고 살아라 너마저 데모하면 미군미군 어찌나,
아~ 매향리가 제일 좋아요 미 공군 폭격
 2. 해 뜨는 매향리에 전폭기 뜨면, 외로운 농섬 밑에 작살나는 조개들아!
50년 짓밟힌 원통한 심정 미군 놈 몰라주면 우린우린 어찌나,
아~ 억울해서 분통 터지는 매향리 청년
 3. 해 저문 매향리에 폭탄 터지면, 주민들 불안하여 밤 잠을 설친단다.
순진한 우리네를 참아왔지만, 더 이상 폭격하면 아니아니 안 된다.
아 ~ 화가 나서 투쟁한단다. 매향리 청년
- * 이후 우여곡절을 겪고 폭격장이 폐쇄되면서, 간주곡과 4절까지 완성되어 2010년 3월 회고록 일지에 기록.

이어서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저명한 민중가수 안치환 씨가 처음으로 매향리 주민 집회에 찬조 출연하였다.

물론, 매향리 투쟁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 형제와 함께하는 고향 집회 현장의 허접한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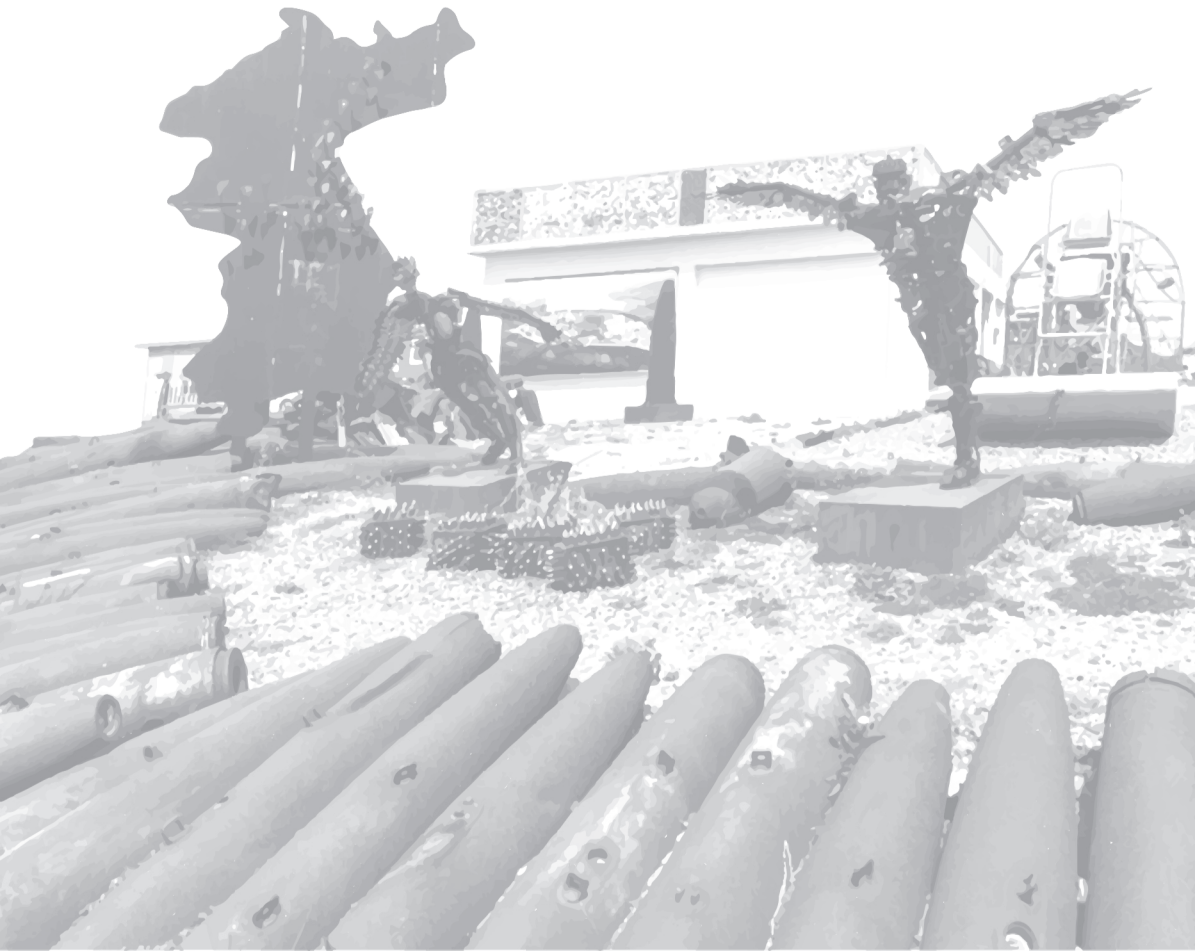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부터 대중 앞에 나서면서 운동권 노래로 안치환이 대학가에서 명성을 날릴 때, 청년 학생으로서 그 애국적인 끓는 피를 만민 투쟁과 고향 매향리를 해방시키는 활동에 투신하였다면, 매향리 미군 폭격장은 훨씬 전에 폐쇄되고, 해방과 평화는 더 일찍 찾아왔으리라.

또한 중졸 출신의 어부 전만규가 오늘과 같은 희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인간사 숙명이라고 하던가. 나는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고기잡이나 하던 촌놈이었다.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미군 폭격장 폐쇄운동으로 온갖 고난을 겪으며, 범죄자가 되고,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수 안치환은 같은 마을 출신이면서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류 대학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며,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 속에 추앙받는 명사가 되고, 대를 이어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

3

평화는 반드시 온다



매향리에 와보지 않고 반미를 외치지 마라

2000년 5월

매향리 촌놈, 한총련 출범식 본 무대에 서다



어깨에 방매탄(BDU-33)을 둘러매고, 터질듯한 분노의 가슴으로 무대에 섰다.

매향리 촌놈인 내가 한총련 제8기 출범식 본 무대에 올라 3만여 명이 운집한 청년 학생들을 향하여,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가인 <매향리 청년>을 목청껏

불려제꼴다. 이 노래는 나중에 내가 전국 방방곡곡 집회장이나 강연장 등에 다닐 때마다 부르는 '18번'이 되었다.

부산대 광장에서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서 마침, 전년도 여름 방학 때 매향리로 농촌 봉사활동을 왔던 한신대 학생들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지난여름 농활 때 함께 불렀던 <매향리 청년> 투쟁가를 본 무대에 함께 올라가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나에게 역으로 제안하기를 “위원장님이 노래 가사 본 소절을 부르시고, 저희들은 간주곡 ‘새야 새야 두견새야’를 ‘철거 철거 주한미군 철거’로 개사해 부르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래서 사회자의 호명에 우리 일행은 함께 본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나는 수만 명이 운집한 청년 학생들에게 매향리에서 벌어지는 미 전투기 폭격 실상을 전했다.

“매향리 촌놈 전만규입니다. 지금 우리 매향리에서는 미 제국의 미군 전투기가 연간 250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수백 회씩 마을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주택 지붕 위에서 밤낮없이 폭격 연습을 합니다. 유사시에는 우리 민족을 전멸시킬수 있는 핵폭탄 투하훈련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오폭과 불발탄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전범 행위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애국 청년 학생들이 우리 매향리로 달려오셔서 선봉 투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매향리 촌놈 전만규는 감히, 우리 애국 청년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1. 우리 매향리를 와보지 아니하고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논하지 마라!
2. 우리 매향리를 와보지 아니하고 반미 구호를 외치지 마라!
3. 우리 매향리를 와보지 아니하고, 애국 청년 학생이라 말하지 마라!

다음 달 6월 6일에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애국 청년 학생들과 연대하여, 매

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 기지 철책을 철거하는 투쟁을 결행할 것입니다. 우리 애국 청년 학생들이 투쟁의 선봉에 나서 주리라 믿겠습니다.”

그러곤 <매향리 청년>을 불러제낀 것이다.

“끝으로, 우리 매향리의 참혹한 현황을 <매향리 청년>이라는 투쟁가에 담아 여러분들께 보고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 2000년 3월 29일 자 회고록 일지에 매향리 투쟁가 <매향리 청년> 가사 기록됨.

2000년 6월

5·8 오폭 사건 한·미 합동조사 결과 발표

6월 1일 국방부 기자회견장에서 미군 장성이 매향리 5월 8일 오폭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상황판을 내보이며 브리핑하였다.

그런데 미군 측 발표 결과는 내 예상대로였다.

“매향리에서 5·8 오폭 사고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떠한 피해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내일부터 매향리에서 정상적인 폭격 훈련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 네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 내일 매향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메가톤급 육탄으로 반드시 본때를 보йм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동안 매향리 투쟁을 하면서, 목숨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축적된 자료들을 사과 종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나의 작은 처남 최○선에게 부탁하여, 상자를 그의 동서네 조암 아파트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성명서와 현수막은 물론, 퍼포먼스에 사용할 철조망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준비해 두었다.

5·8 오폭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며 세상을 강타했던 무게에 비추

어, 한미합동조사반의 영터리 발표에 국민들은 매향리 주민들의 반응을 궁금해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자들이 지닌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직접 매향리 주민들의 반응을 보러 달려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을 던져서라도 전 국민에게 매향리 주민들의 처절함과 분노를 보여 주겠다고 각오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고온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

2000년 6월

제2의 매향리 대투쟁을 선포하다

6월 2일 주민대책위 기자회견을 경찰이 사전 봉쇄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대책위원이던 김영철, 지기선, 최용운 등은 물론, 갓난아기를 안은 이웃집 며느리 10여 명과 소파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평통사 김종일, 서울 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육상사격장 철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대책위 사무실과 육상사격장은 그 철조망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접속된 상태였다.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각 언론사 기자들 수십 명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왔다.

육상사격장 철책에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50년간 주민피해 보상하라”고 쓴 현수막을 걸었다.

그리고 매향리 주민들은 운동권이 아닌, 순수한 시골 사람들로서 생존권 보장을 호소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내기 논에서 사용하는

노란색의 물 장화를 착용하였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준비한 절단기로 철책을 끊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제스처를 취하자, 대기 중이던 사복 경찰들이 나의 예상대로 내 손에 들린 절단기를 빼앗았다. 그러자 함께 있던 주민들과 평통사 집행위원장 김종일 등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서로 뒤엉켜 실랑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수라장이 된 그 틈을 이용하여 나는 철책을 넘어 들어갔다. 폭격 연습을 알리는 위험 신호의 황색 깃발이 나무끼는 깃대를 향해 달려갔다. 황색 깃발을 내리자마자,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미군의 심장을 찌르듯이, 세차게 깃발을 찌른 다음, 구멍 난 틈에 손을 집어넣고 깃발을 찢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압제하던, 미제의 상징인 황색 깃발을 찢어내는 퍼포먼스였다. 깃발을 찢는 나는 마치 정글의 맹수वाद 같았다.

명장면으로 꼽히는 이 사진이 전파를 타고 국내외 곳곳으로 날아갔다.

현장의 사복 경찰들도 나의 기습적인 시위를 막지 못했다.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야 그들에게 체포된 나는 곧바로 화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또다시 유치장에 갇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유치장 문을 열더니 나를 형사과장실로 인도하였다. 내가 응접 소파 앞에 이르자 형사과장은 나를 본 그는 신문을 소파 테이블에 내동댕이치더니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아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신문에 뭐가 실렸는지 알 수 있었다. 방금 테이블 위에서 폭발된 신문 지면을 내려다보니 예상한 대로였다.

마치 초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황소 가축을 찢어발기듯이, 미군 사격장 내 위험 표시인 황색 깃발을 힘주어 갈기갈기 찢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내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었다. 사진과 함께 “매향리의 분노가 폭발”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가 신문(동아일보) 전면에 톱으로 실린 것이다.



제2의 매향리 대투쟁을 선포하며, 압제의 상징 미군 폭격 황색 깃발을 미군을 처단하듯 찢어버렸다.

촌놈인 전만규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한·미 당국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으니, 상부로부터 이들이 얼마나 커다란 질책을 받았을 것인지 짐작이 갔다.

식식거리며 붉으락푸르락하는 형사과장의 표정은 수갑을 찬 내 모습보다도 더 안쓰러워 보였다.

2000년 8월

통한의 법정 진술문

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인간 차별 속에 살상 실험용으로 활용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고통을 외면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매향리 촌놈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군과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이 폭격중에 표적지로 달려들어 목숨을 건 시위 농성을 해야만 하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해야 합니까?

왜, 촌놈 전만규가 가정을 팽개치고 반미투사가 되어야 합니까?

Why do the residents of Maehyang village have to be used as test rats for killing by the discriminatory U.S. force?

Why do the right to live of Maehyang village residents have to be threaten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pain ignored?

Why do country folks of Maehyang village have to hurriedly set up counter measure organization and struggle for the right to live against the U.S. military and the government?

Why do the residents of Maehyang village have to risk their lives in the target field during bombing to protest pouring our precious time and money against the nation?

Why does an ordinary fisherman like Chun Man Gyu have to throw away my family and become an anti-American activist?

전만규 위원장의 법정 진술문

2000. 6

재판장님!

이 촛놈이 왜 구속 기소되어 이곳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답답하여 머리가 깨어지고,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분통스러운 심정은 미군의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력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 나라 정부와 사법부에 진정한 주권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제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 군대의 살상 실험용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당방위적 저항권 행사로 미 공군의 사격 깃발 하나 찢었다고 해서 갖은 악법을 적용하여 피해자인 주민대표만 구속하여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는 국가 공권력은 한심스럽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원흉인 미군 수사대에서조차 사건 직후 화성경찰서로 달려와서 전만규의 불법 침입만을 주장하며, 앞으로 기지 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서류 한 장만 남기고 갔습니다.

이 나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안검찰과 정

의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미군의 앞잡이가 되어 미군에 맹종하고자, 힘없는 촛놈 하나를 잡아 가둬버리는 개떡 같은 식민지의 나라. 감히 비유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의 심정은 지난 일제 36년 치하에서 애국열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총독부와 반민족 친일파들에 의해 온갖 고초를 당했다는 독립운동가가 된 기분이며, 저의 한 맺힌 가슴 속에는 일제 치하의 애국선열보다도 더 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설하고, 올분에 찬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재판장님께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첫째, 저는 사회 질서 유지의 규범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정의를 알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짓밟히며, 철저한 외면과 고통 속에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양키놈들에 의해 장장 50여 년간 전쟁의 공습을 방불케 하는 지옥의 무법천지에서, 인간 차별

적 개죽음과 고통, 그리고 수탈(토지, 어장, 가옥)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국방 안보라는 미명하에, 매항리 주민들의 고통과 수탈의 희생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여 법관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촌놈을 단죄하겠다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을 생각하면 분노에 앞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서 논리정연한 화술과 전문적인 지식의 문장력이 전무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두서없는 진술이나 답변을 양해하여 주시길 재판장님께 두 번째로 당부 드립니다.

우선 본 건 담당 검·판사님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다면, 이놈을 구속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이 결코 미제의 앞잡이가 아니요 권력의 시녀가 아닌 정의로운 법 정신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검·판사님들의 가족을 데리고 매항리 땅에 가서 단 며칠만이라도 살아보십시오. 아니면 반인륜적이고 전범(戰犯)행위적 만행을 자행하는 주한 미 공군 사령관과 양키놈들에게 맹종하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고통을 외면하는 관계 당국자들을 당장에 구속하여 법에 형평을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주권국의 사법부라면 살인적인 만행을 자행하는 미군놈들을 즉각 처단하고 분통스럽도록 억울한 이 촌놈을 즉각 석방 조치함이 당연한 일인 것이며, 바로 사법부가 우리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책무인 것입니다. 정의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입장에서

는 사법부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행협(SOFA) 개정 등 당면한 주권과 국익의 문제인 근본적 대책을 완수시키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주권을 회복시키는 데 이 촌놈이 지렛대 역할로 의로운 일을 한 것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구속하고 멸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한 미8군 전(前) 사령관 위컴 장군이 미국의 신문 기고문을 통하여 한국인의 민족성을 들쥐와 비교하며 비하하였겠습니까만, 시골 촌놈 전만규 하나를 때려잡기 위해 무리한 악법을 적용하여 권력과 미군들에게 알아서 충성하고 맹종하는 반민족적 처사에, 이 촌놈은 서글픔과 함께 차라리 이 땅 조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만규가 악법 몇 구절에 의해 실형을 받고 출옥하게 되면, 내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매항리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주국인 미국으로 이민을 갈까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세며 안전하고 쾌적한 미국으로 말입니다. 들쥐가 들쭉거리고 판치는 식민지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투쟁의 가치와 의지도 갖고 싶지 않은 현실에 자괴감과 비애감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땅에서 점령군을 몰아내고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는 날, 바로 검·판사님들이 우리 민중 민초들이 이루어 낼 투쟁의 결실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일 터인데 말입니다.

각설하고, 얼마 전 매항리 땅을 들여다본 어느 예술

대학 사진작가 교수님의 표현을 약간 빌리자면, 매항리 땅은 행정적으로는 한국 영토이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땅이며 가상으로는 북한 땅이라고 그는 사진집에 썼습니다. 아무리 가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폭격은 매일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 즉 땅이 완벽하게 불모지로 변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해안의 한 작은 마을, 작은 섬이 제 몸을 깎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지금 매항리에 처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민족적 의식이나 평화운동 의식이 부족한 갓마을 촌놈에 불과합니다만 매항리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체험을 통해서 어렵듯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저렇게 열심히 폭격 연습을 하는 것은, 결국 유사 시에 북한의 우리 동포, 우리 동족을 대량살상하고 제2, 제3의 노근리 양민학살 연습을 우리 매항리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격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기잡이하던 어부가 기총사격에 팔뚝이 관통을 당하고, 엄마를 따라 조개 따러 바다로 갔던 열 두 살 먹은 소녀가 폭탄의 파편에 다리가 잘려나가고, 굴을 따던 임신 8개월의 산모가 포탄에 명중되어 즉사당하는 참상이 50년간 매항리 땅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시름에 젖어 푸념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살아보았고 6.25전쟁 초기에 인민군 1개 중대 병력에 매항리 땅이 점령당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인민군에게 우리 주민의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토지와 바다 어장을 빼앗기지기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미군에게 도리어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인간의 삶마저 폭격당하며 정신마저 짓밟히는 참상이 일제 36년보다도 긴 50년간 지속되어왔으며,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미군놈들에게 짓눌리며 전쟁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암울하기만 합니다.

재판장님,

국방 안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단을 위해 목적이 상실되는 본말의 전도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판장님도 국방부 관계자나 본 건 담당 검사 말대로 “국방 안보를 위하여 국가 간의 협정 때문에 매항리 미 공군 폭격장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로 폭격장을 이전하여 청와대와 미대사관저, 국방부 청사, 국회의사당 지붕 위로 저공 비행하며 폭격연습을 하게 해보란 말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시골보다는 대도시의 시가전이 더욱 치열해질 터이니 말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매항리 미 공군 폭격장 문제로 고민하게 된 것은 1978년 방위병으로 마을 무기고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당시 정기 구독하던 조선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에 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용인즉 미국 모 대학에서 항공기 소음에 관해 조사한 결과,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한적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보다도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하!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결핍하면 자살하고, 폭하면 흥기를 들고 싸우는 것의 원인이 폭격 소음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소름 끼치는 전율 속에, 제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기르던 고양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방문 앞에 와서 야옹 소리를 내며 잠을 깨웠다고 해서 다리를 울무에 씌워 마을 앞산으로 끌고 가서 생매장하고, 다음날 그 새끼들조차 바윗돌에 처서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저 자신의 포악성을 뒤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장애와 결혼 후에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 전쟁지옥인 고향을 하루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건축업 관련 직업훈련소에 입소, 직업훈련을 통하여 80년 6월 중동 쿠웨이트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1년간의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던 날, 김포 들녘을 질주하는 택시 창문을 통해 코끝에 와닿는 풀 내음과 푸른 들판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산등성이와 한강변을 내려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조국을 2년 짝이나 떠나 있었나 하며 단절음에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고향집에 돌아가보니 아버님은 목을 매고 자

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600만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먼 소재지 시장에서 점포를 얻어보려 했지만, 자금이 턱도 없이 부족해 그대로 고향에 눌러앉아 홀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7년간 사귀었던 이웃 마을 처녀와 결혼하여 예쁜 딸 셋을 낳아 기르면서 저놈의 폭격장을 언제나 애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폭격 소리를 들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면에 있는 유치원에 2년씩 보내야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먼 소재지에 있는 학원에서 놀다가 오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도 폭격 소리에 새파랗게 질리면서 깜짝 놀랄 때는 부모가 된 저로서는 피가 마르는 것이었고,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폭격 소음은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흉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마을 교회에 나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포악한 성격의 장애를 교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되는 폭격 소음 때문에 정신적 장애 요인은 잘 순화가 되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는 매항 1리 170여 가구에서 60년대 이후 서른 두 명이 자살을 하고, 최근엔 70세가 넘는 노인들끼리 장기를 두다가 식칼로 목을 찌르고, 어린 중학생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를 버스 안에서 가슴을 찔러 죽였으며, 공교

몹게도 매항리 사람 다섯 명이 현재 폭력범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 내에서 저와 우연히 만나기까지 하겠습니까. 실제로 소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프랑스의 의학계에 보고된 바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소음에 노출된 어미 쥐가 처음에는 새끼 쥐를 물어 죽이더니 며칠 뒤 자신도 심장이 터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생활 터전인 토지와 바다 어장을 빼앗기고 보금자리였던 가족이 박살나는 것보다도, 어쩌다 오히려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폭격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항리 기지 내 미군들은 이미 육상의 기총 사격이 실시되던 1969년부터 청각을 보호하는 헤드폰처럼 생긴 초록색 장구를 사격할 때마다 착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노출된 무방비 상태에서 귀머거리 짐승처럼 미군 조종사들의 담력을 키우는 실험용으로 활용되어온 것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들의 묵인 내지 지원 협조 하에 말입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예를 하나 든다면, 1989년 4월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관계자와 주민 대표간 간담회 때 김재창 함참작전국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매항리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총 사격을 할 때의 소음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나도 전방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기총 사격 소리를 들어보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은리(매항리)에서는 기록 사격만 하고 A-10기 기총 사격 등은 한국 공군 사격장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가

분만하기 위하여 산고가 있다든지 결혼을 하기 위해 손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할 때는 현지의 미군 부대에 협조를 구해서 사격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격장 이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당장에 사격장을 옮기자고 한다면 파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 농성을 계속할 때는 기지 내 농경지 출입을 일체 금지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건강부회하는 말과 비열한 협박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기만적으로 우롱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모내기 끝나는 89년 6월 10일부터 목격 목표물을 완전 점거, 장기 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군 측에서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대책위원장인 전만규의 모내기를 끝낸 논에 미군용 트럭으로 자갈과 모래를 실어다 부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이 미군 기지로 물려가 사과와 원상 복구를 요구하였지만, 도리어 미군놈들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주민 대표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피를 본 주민들이 분노하여 미군 기지 영내 시설물과 차량 등을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만규를 구속 기소하였고, 매항리 현장이 잠잠해지자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90년부터 95년까지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성에서 5km 떨어진 지점의 바다를 매립하여 매항리 사격장을 이전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발표를

하였고, 13대 국회에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요식행위적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그 약속은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2000. 7. 4) 국방부에서 또 다시 그와 같은 발표로 매항리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비등한 여론에 의하여 5월 12일 김대중 대통령이 매항리 사건의 투명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어떠한 피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미리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한 미합동 조사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항리로 달려와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얼렁뚱땅 며칠 둘러보더니, 주한 미대사관(보즈워스)은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하여 5월 8일 사건으로는 어떠한 피해도 없으며 5월 22일부터 사격을 재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깔보며 일국의 대통령령을 무시하는 미국과 국방부 당국의 작태에 다시금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재조사를 하겠다며 사격 재개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 몇 명을 몰래 유인, 현혹시켜 엉뚱하게 주택안전진단을 하더니만, 역시 피해가 없으며 사격을 재개한다며 한·미 당국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고 6월 2일부터 폭격 연습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현장에서

폭격 연습 반대와 사격장 철폐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으며, 사격장 철폐를 바라는 마음을 전 국민에게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주민대표 전만규가 사격장 철책 하나를 끊으려 했지만 출동해 있던 사복 경찰에게 절단기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현장에서는 마침 폭격 연습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마침내 철조망 사이 기지 안으로 진입하여 사격중임을 알리는 붉은 깃발을 찢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님,

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인간 차별 속에 살상 실험용으로 활용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고통을 외면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매항리 촌놈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군과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폭격중에 표적으로 달려들어 목숨을 건 시위 농성을 해야만 하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해야 합니까?

왜, 촌놈 전만규가 가정을 팽개치고 반미투사가 되어야 합니까?

만약 미국 본토에서라면, 자국민을 50여 년씩 실전 폭격 연습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 당국자들의 가족이 매항리 땅에 살았다면 반세기 동안 전쟁 지옥 속에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주민들의 원성을 13년씩이나 우롱하고 기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본 건을 맡은 김·판사님들이 매항리에 살고 계신다면 전만규를 구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지의 미군들은 기총 사격을 할 때면 청각보호 장구를 착용하는데, 기총 사격 소음에 매항리 주민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만 있습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매항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전폭기 기총 사격장을 무엇 때문에 인공섬을 만들어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라도 입산 부까지 폭행해가며 강제 진압하는 서슬 퍼런 공안당국이 말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폭탄 투하 때 일어난 방바닥의 균열로 연탄가스가 틈으로 스며들어 죽을 고비를 겪은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폭탄 투하로 인한 진동으로 찬장에 보관해두었던 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자, 할머니와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나쁜 비행기놈들, 바다에 꼭 떨어지거나 해라!” 하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논밭과 어장을 빼앗기고 생때같은 아들이 포탄을 맞아 죽음을 당했어도 장례비는커녕 빨갱이로 몰려 집안이 패가망신할까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개죽음을 당할까봐, 가족끼리 모여 앉은 밥상에서조차 하소연하지 못했던 참담함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반공냉전 이데올로기

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미군 기지 문제가 금기시되고 성역시되었지만, 그러한 강권이 허물어지고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바람이 갯마을 매항리에까지 불어와 가슴에 웅어리와 한을 안고 있던 청년들이 미제 치하 37년만인 88년 7월 관계 당국에 폭격장 이전 등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미군 당국에서는 태평양 사령부 기지에서 당시 최신 장비를 들여다 매항리 일대에서 주야 2주간에 걸쳐 소음 등의 조사를 한 결과, 항공기 폭격 소음은 주민 생활에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사격장 이전을 검토할 것이며 당장에 비행 항로 변경과 기총 및 야간 사격과 저공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대책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고 도리어 성능이 강한 폭탄을 발사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한·미 당국자들이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항의데모라도 하면 대표자를 구속하여 잡아 가두기 때문에, 또한 외부 단체나 학생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려고 하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이다 뭐다 매도하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시간과 아까운 돈을 들여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제시하는 법정 투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격 연습의 피해 강도

는 높아졌고, 주민들의 원성이 또다시 대내외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3월 23일에는 우리 주민들 600여 명이 국방부 청사 앞까지 몰려가서 주민생존권 보장 대책 요구를 하며 정부와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5월 8일 폭탄 투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당일 폭탄 투하 사건을 처음부터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지축을 흔드는 진동과 폭음에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폭발음은 늘 겪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작 놀란 것은 5월 8일 사건으로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국내외적 관심과 여론이었습니다. 사상 처음 매항리에서 이색적인 재난이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경악스러운 일들 중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폭탄과 로켓 포탄이 투하되고, 사격장이 아닌 어장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을 향하여 계획적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살인적 만행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덤덤했던 여론이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으로 변화된 것은 군사독재 강권 하에서 반공의식에 길들여진 협심증이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진통입니다. 또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통해 양의 탈을 쓴 미군의 존재가 늑대였음을 바로 알게 된 분노와 함께,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SOFA 협정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혐오스러움을 매항리를 통해서 씻어버리자는 민족적 주권 회복 의식과 국가적 권익을 수호하자는 애국애족의 분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 전만 규와 매항리 주민들의 생존권 회복 투쟁의 몸부림이

적어도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의 지렛대 역할에 일부분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SOFA 개정 운동과 애국청년학생 및 세계 각국의 외신과 KBS 「추적60분」팀 등 많은 국내의 언론인들이 종군기자의 심정으로 매항리에서의 미군 만행을 전 국민에게 잘 전달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으나, 가장 확실하게 큰 몫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오늘 법정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재판이 된 본 사건입니다.

결코 미국의 권력의 편이 아닌 정의와 민중의 편이 되어 심판할 때만이, 이 땅에 진정한 주권과 정의로운 법이 확립될 것이며, 두번 다시 저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서없는 모두진술을 끝마치겠습니다.

매향리주민들 '으뜸 다윗'

희망과 좌절이 교차했던 한해를 돌아보며 <한겨레>는 지난 19일부터 10차례에 걸쳐 부정과 편견에 맞서 의롭지만 정의로운 '다윗들'을 찾아다녔다. 이 시리즈에 이어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인터뷰한겨레>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은 '올해의 다윗'을 뽑았다. 네티즌들은 매향리주민, 총선연대, 프로아구 선수협 등을 '올해의 다윗'으로 꼽았다.

야구선수협 법인화 구슬땀

역전타 노리는 선수 다윗

인의협 의료개혁 희망찾기

스스로 다윗 택한 골리아트

'다윗들'은 감잡힌 세상,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을 '부수는 도전의 발걸음으로 2000년 가는 해와 2001년 오는 해를 하나로 잇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회(회장 송진우)와 구단의 한면 '싸움'은 내년으로 이어진다. 구단쪽이 선수협의 사단법인화가 강행되면 야구경기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간화와 유가협 어버이들의 애끓는 400일 천막농성 끝에 지난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도 내년 본격적 활동으로 수십년 견고하게 유지되는 '비밀'의 철벽에 도전한다. 생때같은 젊음이 스러졌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맞서, 군과 경찰, 옛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 과거 폭압적 국가권력에 시민사회

의 메시지를 들이칠 작정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을 한해 누구보다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지만, 새해에도 넘어야 할 장벽은 녹록하지 않다. 가운을 벗고 진료를 맡았던 동료 의사들과 시민 사이에 쌓인 깊은 불신의 골을 벗겨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을 중심에 둔 참된 의료개혁의 전망을 보여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 군대의 정예병으로, 폭다운 젊음이 감가리 쫓겼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행군도 계속된다. 20세기의 마지막 달 일왕 히로히토, 군국주의 일본의 야만성을 국제법정에 세워 인권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었지만, 인류사회 야만의 부활을 막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치에 맞서 시민의 이름으로 희망을

2000년 최고의 다윗(총1739명)

50년 미군 폭격 이제 그만 - 매향리 주민들	26.9%
부패정치인, 더이상 안된다 - 총선연대와 낙선운동	19.9%
노비론자를 불태워라 - 프로아구 선수협	9.7%
성노예 일제 전범 단죄하라 - 종교인연대와 국제연대	9.26%
참지 않을 수 없는 다윗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8.91%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 롯데호텔노조	7.53%
선정주의의 희생양은 실디 - 가수 백지영씨	5.58%
학교알려져야 할 현실이나 - 고원씨 주민들	4.20%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라 - 유가협회 민기협	4.14%
통제집시 시위를 거부한다 - 지문날인(7만5천)	3.74%

만들었던 총선연대와, 불법 아닌 불법 파업을 벌이며 경찰 테러특공대의 무수한 발길질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롯데호텔노조, 그리고 흩쳐보기 풍조와 선정적 언론의 '무차별 폭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콘서트 강행을 선언한 가수 백지영씨도 새해엔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골리아트'와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반기 위원장

"불평등, 대물림할 순 없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나선다면 세계 최강 군대의 횡포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000년의 끝자락,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의 송년 소감은 각별한 데가 있다. 이들은 한 해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하지 않지만 뜻깊은 '일보전진'을 이뤄낸 때문이다. 지난 8월, 미군사격장 철거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사진) 결성 12년 만에 '사격장 일부 폐쇄'의 결실을 일궈낸 것이다.

싸움은 험난했다. 그러나 그 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거센 문제 제기로 활활 번져나갔다.

하지만 아직 행복선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사격장 옆 이화리 이장 김영철(46)씨는 해안에서 불과 2km 떨어진 농성 폭격장을 가리키며 "하루 13시간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빼앗긴 토지와 어장을 둘러싼는 일 또한 벌기만 하다"고 말했다.

29일 전만규 위원장 등 매향리 주민 20여명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법제 근절과 한-미 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300번째 금요일회가 열린 자리였다. "매향리가 전국민의 문제이듯, 이 땅의 모든 불평등과

대싸움은 끝까지 무쌍을 날려막아 이상한 물건을 발견



녹색환경선상, 올해의 인권뉴스 등 수많은 상인들이 매향리에 쏟아졌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기쁨보다는 각오를 끝까지 세우게 하는 재촉일만 같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부터 3대째 대물림된 공포와 불평등의 기억을 우리 아이들 대에서만은 끝장내고 말 것입니다. 그날까지 내

2002년 1월

서울고법 항소심 소음배상 감액 판결

2001년 4월 11일 자 서울지법 민사부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있었다. 매향리 주민들에게 1인당 월 30만 원, 그 외 석천리·이화리 등의 주민들에게는 1인당 월 25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피해 산정 기간은 민법이 보장하는 시효 3년에 한하여 역산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매향리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50여 년간 입었다 해도,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후부터 배상을 적용하는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매향리 주민들이 지난 50여 년간 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손해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전혀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소액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금번 서울고법 항소심의 판결은 사법부 고위 관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기적인 보수 집단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 주는 판결이었다.

인간의 정신마저 파괴시키는 전투기 폭격 연습이 50여 년간 매일 밤낮으로 이루어지는 전쟁 지옥에서 인권과 경제적 핍박으로 겪는 고통과 희생의 가치와 대가가 고작 3년 치로 제한되는 소음피해 배상이 1심 판결의 절반인, 월 17만 원, 15만 원이라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때 나의 울분은 극에 달했다. “우리 매향리 주민들이 당신네 법관 가족들에게 1심 판결의 소음 배상금을 지불하겠으니 매향리에서 단 며칠만이라도 살아 보라”며 피를 토하고 싶었다.

그런데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에피소드(episode)가 있다.

매향2리 강○숙 씨가 2018년 10월 매향리 평화역사관으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님, 예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 판결한 김영

진 재판장이 저의 고향 초등학교 친구인데, 지난주에 헌법재판관으로 영전 하였습니다. 영전 축하 현수막을 제가 개인 돈으로 제작해 매향리 주민대책 위 명의로 이곳 사무실 앞에 게시하였으면 해서요.”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일언지하에 “안 됩니다”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냈다.

내가 소음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김영진 판사가 배상 판결을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주민들의 외면과 반대 속에 내가 몰래 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 낸 악전고투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가 판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작정 칭송하겠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특히, 2001년 4월, 서울중앙민사지법 1심에서 판결한 소음배상 금액을, 2002년 1월 서울중앙민사고법 2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감액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1심 단독 장준연 재판장이 매향리 지역 주민 1인당 매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17만 원으로, 석천리·이화리 지역은 매월 25만에서 15만 원으로, 2심인 김영진 서울중앙고법 판사가 감액 판결한 것이다.

도리어, 서울중앙민사고법 재판부(김영진 판사 등)의 감액 판결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이 100억 원대 이상 손실을 봤다.

하지만, 결국 강○숙은 화성드림파크 유소년 야구장 입구 가드레일에 김영진 헌법재판관 영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매향리 주민 일동” 명의로 게시하였다.

2002년 5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장 벼랑에서 목숨을 걸다



어민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토록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나 스스로 복장(腹臟)이 터진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한 획을 긋는, 9.8km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었다.

마침 사회적 이슈로, 죽음의 호수 시화호가 인재라며 국내외적으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웃 시화호의 전철을 밟는 인간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며 사람들이 움직였다.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 및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화성호 물막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숨 건 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강석찬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과 함께, 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으르렁거리며 휘돌아가는 물막이를 향하여 고무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갔다.

그러자 궁평리 어촌계 소속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과격하게 고무보트를 강제로 밀어 방조제 뚝방으로 몰아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대형 덤프 트럭들이 집채만 한 바윗돌들을 쏟아붓는 물막이 벼랑으로 달려가서, 미리 준비한 쇠사슬로 서로의 허리에 묶어 자물쇠로 채우고 벼랑 끝에 누웠다.

그러자, 농어촌진흥공사 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이 나타나서 우리 일행을 제압하였다.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1명의 목살을 잡고 벼랑 아래 폭포수로 뛰어내리려 했다. 그렇게 물막이 방조제 비탈에서 실랑이를 벌이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농어촌진흥공사 직원들이 쥘쥘하게 붙잡아 끌어 올렸다.

그런데 당시 우정 남양 서신반도의 관련 14개 어촌계에서는 마을 어귀에 “국책사업 방해하는 불순세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다만, 매항2리 어촌계는 매항리 방향 화성호 방조제 입구에서 집회를 하였다. 집회의 목적은 화성호 방조제 중간 지점에 외항을 건설하여 매항2리 어민들이 어선을 정박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박카스 음료수 상자를 어깨에 메고 이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했다.

“우리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면, 물막이 공사를 중단, 저지한 다 음 협상을 해야 한다. 일단 물막이 공사를 못 하게 저지하면, 매항2리 어촌계 외항뿐만이 아니라, 향후 간척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간척 농지를 분배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해서 물막이 공사 저지 투쟁을 하자.”

하지만 이들은 외부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2004년 3월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끌어내다



지난 6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1, 2심에서 승소하였기에, 이날 대법원의 역사적인 소음배상 확정판결을 방청하려고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본래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배상 집단 청구 같은, 사회적 파장이 커다란 대형 사건은 10년 20년이 넘도록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기도 한다고 한다.

만약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집단 청구사건이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되면, 하나의 판례가 되어 이후 전국적인 군용 사격장과 비행장 주변 등으로 들불처럼 퍼지게 되는, 태풍의 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 앞 집회에서 내가 스피커를 통해 던진, 시한폭탄과 같은 최고 통첩은 대법원 청사를 뒤흔들어 놓는 지진이었을 것이다.

나는 새벽에 고온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45명의 주민들을 전세버스에 탑승시켜 대법원 청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던 날이었다. 대법원 로비로 들어서자 벽걸이용 대형 텔레비전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이 쑥대밭으로 난장판이 되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이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수구 보수 세력의 회귀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 집단인 사법부의 최고 상층부 대법원에서 과연 개돼지 같은 매향리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런 회의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나마 이용훈 대법원장 등 개혁적인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매향리 사건이 심리가 되었기에, 거미줄 같은 한 가닥 작은 희망을 안고 대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대법관들이 입정하기 전 나는 가슴을 졸이며,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이윽고 이강국 재판장(현 현재소장) 등이 입정하여 판결문을 낭독했다.

“전 국민의 국방 안보를 위해, 매향리 주민들이 겪는 특별한 피해와 고통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는 늦게나마 인권 존중의 의미로, 금전적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배상하여 위로를 해야 한다.”

나는 순간,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우리 매향리에도 대법원 현관의 현판에 각인된 자유·정의·평등이 주어졌고, 비로소 우리 매향리 주민들도 인간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또한 가슴 벅찬 희열과 함께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전국의 전투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피해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군용기 소음피해를 극심하게 겪으면서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

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던 전국 각처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줄을 잇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나는 1심 판결 승소 직후부터 군산·평택·보령 등지에 초청되어 매항리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과정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생각할 만한 일이 있었다. 2004년 4월 24일에 실린 보수 일간지 《문화일보》 기사에 내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스(Box) 기사로 “세계 이목 끈 ‘극비 訪中’ 김정일과 경합”이라는 제목하에 사진 3장을 게재하였다. 가운데 사진은 나였고, 좌측 사진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측은 39경기 연속 안타를 쳐낸 박종호 야구선수였다. 이렇게 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걸어 놓고 ‘금주의 인물’ 후보에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물론,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야 일국의 원수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라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 후진타오와 회담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다.

거기에 나온 ‘금주의 인물 후보로 경합 이유?’ 기사에는 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합을 벌이며 추천된 이유가 나온다. 매항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은 세계 최강의 군사시설로서 주민 투쟁을 통하여 54년 만에 폐쇄가 진행되며, 금번 매항리 소음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라 세계 이목을 끈 ‘금주의 인물’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이목 끈 '극비 訪中' 김정일과 경합

■어떻게 선정했나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년 만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그의 방중행보가 화제가 된 한주일이였다. 게다가 김 위원장의 귀국 직후 터진 용천 열차폭발사고도 배일에 가려진 채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금주의 인물을 뽑는 편집회의에 김 위원장이 먼저 후보로 거론됐다.

그가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지는 등 그의 방중행보는 북핵6자회담의 물꼬를 트

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이번 중국방문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향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전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추천 사유로 한몫했다.

매항리 사격장이 54년 만에 폐쇄된다는 소식과 함께 전만규 매항리사격장주민파해대책위원장도 후보로 떠올랐다. 그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이글어냈다는 점이 추천이유였다.



김정일위원장 전만규씨 박종호선수

세계최초로 '아빠 없는 쥐'가 탄생했다는 뉴스가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한국의 생명공학분야의 우수성을 다시한

**매항리 사격장 폐쇄 이끈 전만규씨 후보에
네 자녀 훌륭히 키워낸 시각장애인 부부도
독자 '39경기 연속안타' 박종호 선수 추천**

번 과시한 서정선 서울대의대교수도 강력한 후보로 부각됐다. 그의 이번 실험성공이 포유류는 정자나 난자 한쪽만으로는 정상적인 개체발생을 할 수 없다는 학계의 정설을 깬 중대한 과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이번주에도 훈훈한 미담가사의 주인공이 금주의 인물로 추천됐다.

시각장애인인 박흥식 지인자씨 부부, 이들이 네명의 자녀를 정상인 부모보다 더 훌륭히 키워낸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독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들의 삶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었다.

독자들이 e메일(editor@munhwa.co.kr)로 추천한 후보로는 박종호 선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39게임 연속 안타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지만 40게임에서 기록경신이 멈춰 아쉬움과 함께 그를 격려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1차투표결과 서정선 교수와 김정일 위원장이 최종후보로 남았다. 두 후보를 놓고 열린 찬반토론은 여느때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 위원장과 서 교수 둘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뉴스메이커였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서 교수의 이번 개가가 국가나 대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무한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며,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골목활판한 성과를 일궈낸 서 교수를 격려하자는 의견이 좀더 우세했다.

박현수조사업장 phs2000@

북한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있다면, 남한에는 전만규 위원장이 있다.

2004년 5월

강원도 태백·영월에서도 삭발 투쟁하다

매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을 폐쇄시키고, 강원도 태백·영월 필승사격장과 전라북도 군산 직도로 폭격연습장을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매향리 주민대책위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도로 달려가 그곳 주민들을 비롯, 서울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기로 했다.

강원도 태백·영월과 전라북도 군산을 오고 가며, 매향리 미군 폭격장 이전 반대 연대투쟁을 하였다.

이어서 나는 MBC-TV 스튜디오로 부름을 받아 김연국 앵커와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국 앵커는 이렇게 물었다.

“매향리 미군 폭격장이 폐쇄되면, 우리나라 어디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희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전쟁의 공습을 방불케 하는 미군 전투기 폭격장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으며, 자연 생태계까지도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곳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와 고통을 전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과 우리 인간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매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이 우리나라 그 어느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절대 반대하지만, 심지어 미국 본토로 옮겨가는 것조차 반대합니다.”

2005년 6월

매향리 투쟁의 성지를 매입하는 데 성공하다

1988년 12월 12일, 매향리 투쟁 쫓기의 합성을 최초로 터트리며, 지축을 흔들었던 역사적인 성지이자, 1996년 7월 제2의 매향리 대투쟁의 발호를 점화한, 매향리 주민대책위 회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는 건물주인 최○빈 씨를 여러 날 찾아가 매향리 주민대책위 건물과 부지 400여 평을 매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최○빈 씨는 나에게 건물 용도를 물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매향리 투쟁 사무실로 사용한 저 건물을 이제는 매향리 투쟁 역사 기념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빈 씨가 “얼마에 사겠느냐”고 하기에, 나는 “제 개인 돈도 아니니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평당 70만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의향을 물었다.

최○빈 씨는 내 제안을 거절했다. 당초 수원에서 식당업을 하는 큰아들 내외를 위해 농가용 창고 용도로 만든 건물인데, 용도 제한 기한이 경과하면 용도를 변경해 아들 내외가 여기서 식당업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내놓은 매매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대책위 회관과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밤낮없이 최○빈 씨 댁을 불쑥불쑥 찾아가다. 10여 일을 찾아가 괴롭히듯 졸라대자, 최○빈 씨는 “위원장이 대책위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접속된 1,750평 부동산 모두를 20억 원(부지는 평당 100만 원, 여기에 주택 1억 5천, 창고 1억 원)에 사라”고 했다.

나는 “그것은 팔지 않겠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건강도 좋지 않으시면서 화물차들이 밤낮없이 시끄럽게 덜커덩거리며 매년 뽐어내는 이 땅을 갖고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팔고 조용하고 공기 맑은 오리울(석천1리) 같은 땅을 더 크게 장만하시고 은행에 두둑히 예금하셔서 편하게 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했다.

그동안 끈질긴 집착으로 매향리에서 투쟁한 나였다. 것처럼 집요하게 최○빈 씨 내외분을 설득하기로 했다. 매도가 18억, 17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최○빈 씨 큰아들까지 오고 가면서 15억 원으로 마지노선을 정하였다.

이때 나는 고도의 전술 전략으로, 극약처방의 교묘한 계책으로 최○빈 씨의 심경을 거꾸러뜨렸다.

즉, 부지 1,750평 10억 원, 주택 1억 5천만 원, 창고 1억 원으로 하되, 비밀리에 나한테 5천만 원을 사례하는 조건이면 내가 계약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더 싼값으로 다른 데 넓은 땅을 사겠다고 했다.

결국 최○빈 씨는 12억 5천만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최○빈 씨가 계약을 파기할 것을 염려하여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였다.

최○빈 씨 정신을 홀린 극약처방은 ‘전만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을 착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땅을 비싸게 사주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이게 주효했다.

만약 최○빈 씨가 향후 나한테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주면, 매향리 평화영농협동조합법인 제자로 입금하면 되는 것이고, 주지 않아도 최적의 하한가로 매매 계약 체결에 성공한 것이라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최○빈 씨와 매매 계약을 한 직후 나는 아내에게 “혹시 최○빈 씨가 현금 뭉치를 당신한테 건네주더라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최○빈 씨한

테 돈을 받으면, 당신과 나는 징역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듯 단단히 일러두었다.

어안이 병병해진 아내는 내게 되물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 구두쇠 최○빈 씨가 나에게 뭇
칫돈을 준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내 예상대로 최○빈 씨가 현금 뭇치를 들고 와서 “700만 원인데, 애들하
고, 힘이 들 것인데 쓰라”며 건네기에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년여 후, 경찰에서 최○빈, 지○열 등의 소환 조사를 통하여, “전
만규 위원장한테 건네준 돈이 있는지” 자금 흐름을 확인 조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빈 씨 부지 옆 도로변에 알박기로 된, 지○열의 가건물과 시부
(嫗父) 김○환 주택 등 180여 평 부동산을 매도가 5억 원에서 시작하여, 3억
3천만 원으로 지○열 씨가 마지노선을 그었다.

그래서 나는 이때도 또 한 번 특단의 비책으로, 앙큼한 지○열 씨가 손가락
을 계약서에 위에 올려놓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내가 지○열에게 이르기를 “만약 매매 계약이 3억 원이 넘으면, 가옥이 두
채인 알박기 대지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의심하여 본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니 계약서에 매매 대금은 2억 9천 5백만 원으로 체결하되, 내
가 개인 돈 5백만 원을 채워서 3억 원을 지불할 테니 더 이상의 금액을 고집
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결국 지○열은 내 현란한 술수에 현혹되어 3억 원으로 매매가를 결정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지난 2005년 8월 12일 폭격장 완
전 폐쇄에 이어 8월 30일 자로 매향리 미군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됨으로
써 매향리가 수도권의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크게 싹틔
다. 미군 전투기 폭격이 멈춘 매향리에 미군 폭탄의 폭발이 아닌, 매향리 부

등산이 폭발한 것이다.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 대문짝만한 활자로 “매향리 부동산 광풍”이라는 제목을 뽑아 톱뉴스로 보도하니 매향리로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경작한 농작물을 지게로 운반해야 하는 맹지라서 평당 5~6만 원에 불과하던 부동산이 외지인들의 투기로 평당 60~70만 원이요, 도로변은 100여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지라 최○빈 씨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최○빈 씨는 나를 찾아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던가, 매매 대금을 더 올려서 내놓으라”는 것이다.

처음엔 나도 그냥 점잖게 되물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었다.

“위원장은 자격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를 현혹해 내 땅을 계약한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그와 같은 미군의 극비 군사 기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면, 계약의 배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나는 통상의 계약금 10%를 훨씬 웃도는 돈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었다.



1951년 8월 시작된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이 54년 만에 완전히 중단되면서 열린 기자회견

2005년 8월

환경부 장관이 100억 원대 선물 들고 찾아오다

미군들은 농섬의 폭탄 잔해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폭약을 실은 미 군용 차량과 중장비 등을 바지선에 싣고 농섬에 입도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우리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농섬에 미군 측보다 앞서서 먼저 입도하여 저지 투쟁을 펼쳤다.

그렇게 농섬 입도 저지 투쟁을 벌여 미군의 폭발 처리반들을 농섬에서 물리치고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마을 식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식당(이화리 이화정) 현관문으로 들어서는데, 일행들과 식탁에 착석하고

있던 이재용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한테 성큼 다가와서 덥석 포옹하며, “우리 아우님, 고생이 얼마나 많으노!” 한다. 나의 손을 잡고 일행들이 있는 식탁으로 데리고 가서는, “여러분, 나의 의형제 동생입니다”라고 말하자, 화성시청과 화성경찰서 간부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재용 장관과의 인연은 내가 매향리 투쟁 연대단체인 대구의 반딧불 야간 고등학교 개교식에 초청되어 대구를 방문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반딧불 학교를 지원하던 대구 남구청장인 이재용 장관을 그때 우연히 만났던 것이다. 이후 반딧불 학교장(임현수) 안내로 남구청장실을 예방하였을 때, 이재용 청장은 정치인 특유의 너살을 떨었다.

“국내외적인 스타로 부상한 매향리 투사, 전만규 위원장과 의형제를 맺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곤 귀한 선물로 받은 거라면서 진열장에서 도자기 찻잔 세트를 꺼내 나에게 건네며, 의형제 맺는 증표로 선물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재용 환경부 장관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정부 대표로서 매향리 미군 폭격장 환경오염 치유 및 복원 등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로, 전만규 위원장한테 커다란 선물을 갖고 왔으며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는데, 그것은 ‘지역 오폐수 정화 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00억 원 예산이었다.

지역 오폐수 정화 종말처리장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직방출할 수 있게 지역에 종합 정화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정을 서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주택 건축 등에서 필수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하는 시설비용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해지는 것이다.



매항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주한미군 적십자병원 앞의 농성 상복을 지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매항리 주민·미군 '농성 대치'

주민들, 위험물제거 명목 섬 폭파 시도 저지

12시께 포크레인 1대와 군용차량, 폭파 도구를 배치하여 섬과 농성 상복을 시

미군 폭격으로 섬의 토양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섬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고 400여의 이사를 옮길 수밖에 없어 옮기지 않게 제주해협 통항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지난 2001년 6월에는 이 항로에 사전 통보 없이 상선 3척을 일방적으로 잇달아 진입시켜 한국측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로 서해와 동해를 오가는 북한 선박이 황해(해로는 400해리, 시간으로는 반 나절 이상)의 단속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방호된 남북해운협약에 따라 우리 측 해운회사들도 조만간 남북간 항로에 국적선 투입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뒤편 그간 제도와 국적선에 의해 이루어졌던 남북교류물자 운송도 우리 국적선이 맡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북측이 악용해 민간선박으로 위장한 무기수출 선박 등을 통과시킬 경우 또 다른 말벌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말벌 소지의 북한 선박은 정선과 해상안전 등을 통해 해협 통항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환기자hyunyou@kbc.co.kr

매항리 미군 사격장



대도 미군 측은 일방적으로 농성 폭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김경규 공보관은 "현재 폭발을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농성 폭파"라며 "지자체 이상 이면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15일부터 폭탄 제거 작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SOFA 합의서에 대해서는 언

2006년 5월

포장마차 강제 철거 폭격으로 생계 위협

미군 전투기 폭격 연습 때문에 갯벌에서 어패류 채포 조업이 통제를 받아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렵다 보니, 매항리 아녀자 10여 명이 농성이 바라보이는 마을 앞 해안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

시골 아낙네들로서는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포장마차 영업이라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벌이에 나서야 했다. 가족들의 생계를 잇기 위하여 폭격하지 않는 주말이나, 또는 배를 타고 폭격장을 벗어난 먼바다에 가서 채포한 어패류를 조리해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니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온 동네가 북적거렸고, 아낙네들은 작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생존 경쟁과 이기심으로 작은 어촌의 포구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존의 횡집 식당 주인들이 화성시청에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횃집 식당 주인들의 생각은 뻔했다. 불법 포장마차만 없으면, 저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식당으로 몰려올 것이라 착각을 한 것이다.

특히, 화성시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전만규 위원장 아내 등이 포장마차를 한다고 하니, 즉각적으로 대규모 용역 철거반 투입은 물론, 경찰 경력의 경호 지원까지 받아 가며 무자비하게 철거하였다.

나의 아내 최선자 등 아낙네들은 용역 철거반이 쳐들어오는 것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망연자실 낙심하였다. 실의에 빠져 한탄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 아낙네들에게 “포장마차에서 휘발유통과 가스통으로 대응하는 집단 장기 농성을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순박한 촌부들은 경찰 경력의 비호 아래 무자비하게 강제 철거하는 용역 철거반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파괴 현장을 속절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설상가상, 화성시는 불법 포장마차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고발까지 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수부로 사건을 배당하여 작은 어촌의 촌부들을 조사하고 과도하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미군 전투기 폭격장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이 생계를 잇기 위한 일이었다. 촌부들의 생리에도 맞지 않는 장사였다. 포장마차 영업이 무슨 중범죄라도 되는 양 검찰 특수부 조사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집단 멘붕까지 일으킬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바닷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촌부들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불안해하는 처와 아낙네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나는 그들과 동행하여 조사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그들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검사실 출입문이 열려있어서, 나의 아내 최선자가 조사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담당 검사는 나의 아내에게 재산 상황을 캐물었다. 아내가 “재산은커녕 가족들이 잠자야 할 허름한 방 한 칸조차 없다”고 대답하자, 담당 검사 왈, “전 만규, 헛똑똑이로구만!” 이랬다.

조사받고 나온 아내는 내게 다가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저 검사가 당신한테 헛똑똑이래! 도대체 당신은, 미친 짓(폭격장 폐쇄 운동)을 하느라, 지 계집이 불법 포장마차 하다가 이런 데 와서 죄인으로 조사나 받게 하고, 이제 제발 다 때려치우고, 정신 차려서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나 해!”

제3의 매향리 대투쟁

2006년 9월

국방부 앞, 제3의 대투쟁 선포와 삭발 시위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이 9월 19일 국방부 앞에서 불발탄 및 중금속 환경 오염 치유를 요구하며, 세 번째 삭발을 했다. 1988년, 2000년에 이어 2006년 세 번째 삭발을 한 전만규 위원장은 이날 제3의 투쟁을 선포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2005년 8월 15일, 폐쇄된 농섬 폭격장에서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서울 환경 운동연합과 함께 불발탄 등 환경정화 축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향리 복원에 나섰다.

이후 2006년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가열차게 환경정화를 촉구했다.

8월 1일에는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매향리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촉구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8월 3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매향리 농섬 갯벌 중금속 오염 및 불발탄 제거 등 환경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급기야 9월 5일에는 폐쇄된 농섬 폭격장 갯벌 환경정화 및 미군 전투기의 매향리 상공 비행훈련 중단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명부(주민 세대주 1,290명)를 첨부해 국방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당국은 그 어떠한 환경정화 치유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전세버스 10대에 주민 400여 명과 불발탄 등을 싣고, 국방부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삭발까지 하며 강력한 규탄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매향리 미군 반환 폭격장 환경정화 및 치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양측 어느 곳에서도 일언반구조차 없이 꿈적도 않는 것은 막대한 예산 때문이었다.

즉, 미군이 매향리 폭격장을 완전 폐쇄하기 이전에 미국 본토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연구조사를 의뢰한 결과, 환경정화 사업의 일환인 농섬 갯벌에 처박힌 폭탄 잔해들을 수거하는 데 무려 4년의 기간과 약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결국,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가 직접 폭탄을 수거해야 했다. 농섬 일대 갯벌을 정화하고 치유를 해야 생태계가 복원돼 주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그래야만 도시민들도 안전하게 갯벌 체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는 일단 폭탄 수거 작업을 강행하였다.

물론, 매향리 주민대책위 회의에서는 대책위 차원의 폭탄 수거 작업을 크게 반대하였다.



바닷물이 얼어 버릴 정도로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폭탄을 수거했다.

첫째, 불발탄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수거 작업 중에 불발탄에 의해 인명사고가 생기거나 중장비가 파손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 거

나는 것이다. 둘째, 한·미 당국도 환경정화 비용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지려 하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불발탄 등 폭탄 수거 작업 중에 그 어떠한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단, 매향리 미군 폭격장 운영 당시 폭발물 처리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자를 섭외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만약 그 어떠한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나는 현장에서 자결할 것인바, 그다음 민·형사적 책임은 한·미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에서 공제한 투쟁기금 등으로 충당할 것이며, 이 모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차피 매향리 소음배상 청구 소송은 주민 모두가 반대하며 포기한 것을, 내가 주민들 몰래 추진한 소송에 성공하여 주민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횡재의 혜택을 본 것이며 그 덕에 투쟁기금 등도 마련된 것이지 주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생돈을 내놓은 게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농섬 일대 갯벌에서 폭탄 수거 환경정화 사업으로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외적으로 매향리 수산물물의 중금속 오염 우려가 해소되고, 어패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 등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농섬 일대 갯벌의 불발탄과 중금속 오염원 등의 위험성 때문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화성시가 난색을 보이거나 외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갯벌 등에서 수거하는 폭탄 잔해들은 향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괴보다도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될 것이다.

사실, 이곳 매향리 미군 폭격장에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이 폭탄 잔해를 자유롭게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매향리 주민들의 생계에 다소 보탬을 제공함으로써 미군 사격장 문제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이기도 했다. 그래서 한·미 당국으로부터 묵인되고 일상화되었지만, 매향리 외의 그 어떠한 군사시설도 민간인에 의하여 대량의 폭탄 잔해가 자유롭게 취급되는 곳은 없다.

게다가 매향리 미군 폭탄 잔해는 매향리 주민들의 지난한 삶의 상흔이며 역사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각종의 미군 전투기 총·폭탄은, 그 어떤 조형물보다도 귀중한 반전 평화의 상징인 문화재인 것이다.

내 의도와 예전은 적중하였다.

약 500여 톤에 이르는 폭탄 잔해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폭탄 박물관이 되었으며, 매향리의 투쟁과 평화의 역사관이 되었다.

지난 십수 년간 매향리 폭탄 전시장이 각종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에서 수백 회 이상 보도가 되고,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이 이를 관람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물론, 많은 학생과 단체들이 역사 교육장으로 탐방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매향리 주민들의 쓰라린 고통과 상처의 역사를 알게 하였고, 매향리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적 핍박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공감을 갖게 하였다.

이렇듯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소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폭탄 더미가 1년 365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향리 주민들의 지난한 삶의 역사에 탄식하고 공감하는 무형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매향리 주민들 수백 명이 매일같이 국방부 앞이나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가서 격렬한 시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커다란 위력을 받

휘하는 홍보와 유형의 힘으로 변환되고 있다.

이미, 저명한 임옥상 화백의 <자유의 신 in KOREA>(2000), 푸죽간의 고기처럼 폭탄의 잔해를 진열한 <매향리의 시간>(2007) 등의 작품을 통하여 서울 올림픽공원 광장 및 경기도미술관에서 전 세계의 노동·인권·환경 등 활동가들의 시선을 압도하며 매향리를 알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부부 작가(김운성, 김서경)도 폭탄으로 다양한 정크 아트 작품을 탄생시켜 서울시청 광장과 평창 올림픽 대회 기간 고성 통일 전망대 및 인사동 갤러리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또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10여만 평 부지에 200억 원대 예산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매향리 평화기념관 앞에 1백여 개의 중형 폭탄(1기당 500파운드)이 2m 간격을 두고, 조형물로서 거창하게 세워져 그 위용을 뽐낼 것이다.

향후, 시민 펀드 및 화성시 등의 예산으로 임옥상 화백이 무쇠(주철) 재질로 된 BDU33 연습폭탄을 녹여 거대한 무쇠 그릇으로 탈바꿈시킨 조형물을 만들어 세울 계획이 있다. 이를 농섬에 설치하면 정안수가 흐르는 반전·평화 상징으로 우뚝 설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매향리 무쇠 폭탄은, 4대째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안성 주물에서 고철로 매입하여 이를 가마솥과 프라이팬 등으로 제작, 판매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MK82(500~2천 파운드) 등 중형 폭탄은 식도 및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과 공예품으로 제작 판매할 수도 있다.

타이완 금문도의 경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을 침공하기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발사, 공격하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금문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였지만, 지금은 금문도 주민들의 경제 회복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 상품으로 변신하였

다고 한다. 포탄을 녹여 명품 식도로 변신시키는데, 10kg 포탄 1개로 식도 2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식도를 개당 15만 원에 판매하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는 2022년 현재 전국에 각종 박물관이 780여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는 폭탄박물관이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매항리 폭탄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총·폭탄들은 매항리에서 지난 54년간 투하·발사된 총·폭탄들로서 시대의 역사성까지 함축된 것이다.

다만, ‘핵’ 훈련탄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크다. 미·소 냉전시대가 무너지기 전, 1991년까지만 해도 하루 수십 기(器) 이상이 농섬 목표물을 향하여 투하되었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 마을 청장년들에게 1기당 200달러씩 지불하며, 굳이 핵 모조 폭탄은 회수해 갔다.



위 사진은 농섬 앞 갯벌에 투하된 핵 모조 폭탄이며, 폭탄을 휘감고 있는 흰색 그물망 천은 낙하산이다. 핵폭탄이 천천히 낙하함으로써 투하한 전투기가 안전거리 밖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장착된 것이다. 1992년 미·소 냉전시대 폐막으로 매항리에서 벌어진 핵 연습폭탄 투하훈련도 막을 내렸다.

2010년 6월

몰염치한 화성시의 세금 폭탄을 맞다

매향리 미군 전투기 사격장이 운영될 때는 미군 전투기의 총·폭탄 세례를 받았다면, 천신만고 끝에 자유와 해방을 맞은 뒤에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화성시는 매향리 주민들에게 무지막지한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

그동안 화성시는 우○태 시장을 위시하여, 행정력을 통한 매향리 미군 전투기 폭격장 폐쇄 운동을 방해하던 적폐였다.

지난날 내가 주민들 동의 없이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매향리 지역 예비군들도 소집된 정신 교육장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연을 하던 우○태 화성시장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미군 전투기가 훈련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것이지 무슨 개인회사처럼 사익을 취하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매향리 전만규 위원장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 청구 사건은 100% 패소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는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 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30억 원대의 배상금을 받았다.

배상금 중 일부로 수십억 원대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향리 주민대책위 투쟁 회관으로 사용하던 사유지 2천여 평을 매입, 매향리 평화영농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밭 용도인 땅을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5천 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착취해 갔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최소한 사전 계도가 기본적인 절차이며 공무원들의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마치 올라미 뗏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악의적인 조폭 조직 같은 행태를 보였다. 적개심마저 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00년 6월 매향리에서 국내외의 각계각층이 모여 민중연대 투쟁을 하면서 미군기지 철책 철거 투쟁 참가자들 다수가 부상을 당했었다. 전경들이 무자비하게 방패와 곤봉 등을 휘두르며 폭행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들이 읍내 조암 제일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제일병원 측(원장의 처)으로부터 그때의 치료비(214만 원)를 납부하라며 내게 독촉 경고 전화가 왔다. 1주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부상자들이 치료받은 기간에 나는 매향리에 없었다. 미군기지 내로 침입하여 폭격 연습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은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그때의 일이었다.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까지 조직하여 투쟁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국내외를 떠돌썩하게 만들었던 매향리 대투쟁 사건의 부상자들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조치 운운하는 전화를 받은 나는 처음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로 인해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 병원에서, 불과 2백여만 원의 치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민형사상 조치까지 거론하는 험악한 전화를 받은 나는 끝내 역장이 무너져 내렸다.

제일병원의 경고에 나는 우○태 화성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김영철 총무 등을 대동하고 화성시장실을 방문해 매향리 투쟁에서 발생한 부상자들 치료비를 화성시가 대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태 시장은 “그러한 사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일거에 거절하며 우리 일행을 돌려세웠다.

결국, 나는 김영철 총무한테 사채라도 구해 달라 요청하여 체납된 치료비를 납부하였다.

2010년 11월

매향리 상징 매화나무 식재 프로젝트



미군 반환 공여지 내에서 매향리 주민들이 매화(매실) 묘목 1년생을 가식 작업하고 있다.

미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 화약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며 파괴하던 육상의 소형 폭탄 투하장 부지에 생명 평화의 매향리 상징인 매화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매화 식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묘목장을 조성하였다. 약 2만㎡에 1년생 묘목 2만 5천여 주를 가식하였으며, 3년 숙성시킨 후 매향리 일대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매화 꽃축제는 물론, 매화차(茶) 및 매실 축제 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매실청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과 소득 증대사업을 꾀하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그런데 매실나무에 대한 조예가 전무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 물이 고이는 습지라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많이 얼어 죽었다.



매향리 매화나무 식재에 따른 벤치마킹 보고 [시장님 지시사항]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담 당	녹지 담당
연 락 처	(행)6125

□ 목 적

- 매년 매화나무를 특화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전남 광양시 벤치마킹 하여 매향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개 요

- 일 시 : 2011. 4. 8.(금)
- 장 소 : 전남 광양
- 인 원 : 녹지담당 외 2명 (평화마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전만규)

□ 세부계획

- 매화축제 대상지 현장 방문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축제 취소)
- 광양시 매화축제 관련 담당부서 방문실시
 - ⇒ 매화나무 식재위치, 식재패턴 등 자문
 - ⇒ 매화나무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 자문

□ 관련사진



광양시 매화나무 식재지



광양시 매화축제 관련 홍보사진

그나마 그 넓은 묘목밭의 풀을 매향리 아주머니들이 호미질로 매며 가꾼 매실나무를 2년 후에 캐서 미군 반환 공여지 내 및 이화2리 서호석 등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이 또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역시 매실나무

재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걸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인들의 대민 활동으로 이화2리 산과 밭에 식재한 매실나무가 모두 폐사되었다.

2011년 4월

화성시장 특명으로 매화나무 식재 사업 벤치마킹

전년도부터 매향리에 매화를 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성시장에게 강력히 협조를 요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화성시 공원녹지과가 주선했던 매향리 평화마을 건립추진위 위원들과 함께 전남 광양시 매화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광양시청 담당 부서로부터 매화 특화사업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었다.

당초 섬진강변 매화마을은 산악지대로 일반적인 경작이 불가능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밤나무 군락지 조성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면서 밤을 수확하여 생계를 이어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홍쌍리'라는 여인 덕에 매화마을로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산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이곳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매화나무 몇 그루를 선물로 가져왔다. 새댁 홍쌍리는 깊은 산중에서 너무나 외롭고 답답한 나머지 시아버지가 일본에서 선물로 가져온 매화나무를 열심히 가꿨다고 한다. 정성을 쏟아서 그랬는지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고 향기 또한 진해서 매화에 흠뻑 매료된 채 시를 쓰면서 더 애지중지 잘 가꾸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지고 여름이 되니 튼실한 매실도 열렸다.

홍쌍리는 고문헌까지 찾아 연구하며 그 매실을 건강식품 재료로 활용하였으며, 매실 씨를 받아 묘목을 만들고 키워 이웃 마을에까지 매화나무를 확산시켰다고 한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한 밤나무 단지의 밤나무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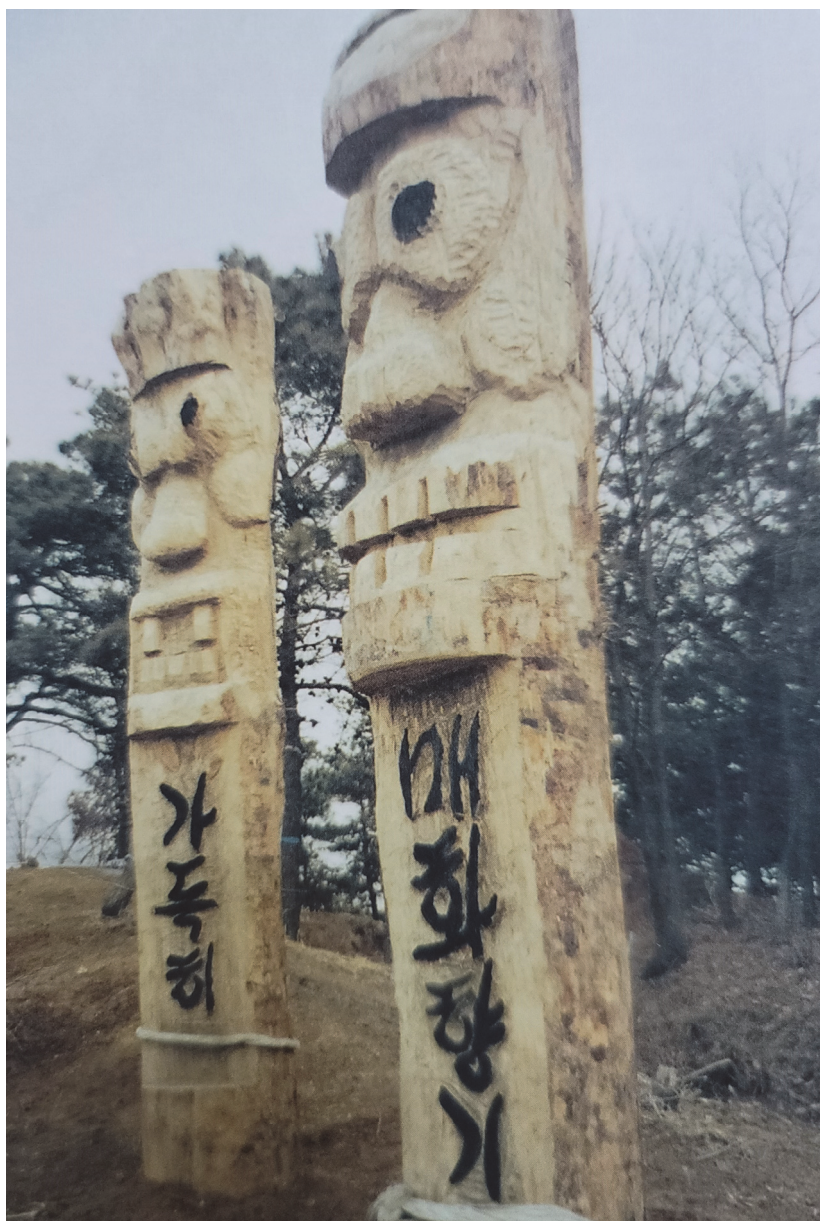
조리 배어내고, 매화 군락지가 조성되면서 봄, 여름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매화 구경과 매실따기 체험 등을 한다. 그 덕에 벽촌이 부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가구당 연간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섬진강변 매화마을 사람들은 논과 밭에도 매실을 심어 특화된 매실 농사에만 집중한다.

광양시에서는 매화마을에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물론이고, 산악지대에서 매실 가꾸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 시설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2011년 8월

화성시에 매화(매실) 식재 사업 제안하다





梅香里 梅香마을 가꾸기 사업제안서

지난 54년간 미군 폭격기의 고막을 찢을 듯 한 굉음과 폭격으로 매화향기 가득한 마을 매향리는 사라지고, 전봇대만한 포탄의 잔해와 마을 이름만 덩그러니 남아 상처투성인 채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전쟁과 죽음의 그늘에서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을, 매화향기 가득한 마을로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던기 위해 매향리 매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안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추진 주체 : 화성시 ·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 식재위치
 - 화성시 우정읍 매향1~5리, 석천3·4리, 이화1~3리 등 사격장 주변마을
 - 우정읍 1인 1가구 자기집에 매화심기
- 식재 량 : 약 150,000주
- 식재 기간 : 2011 ~ 2015(5년 간)
- 총 사업비 : 시비 15억원

□ 추진계획

- 2011년 09월 : 사업시행여부 결정
- 2011년 11월 : 매화나무 식재를 위한 장소 및 생육실태조사
- 2011년 12월 :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 및 심사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2012 ~ 2014(3년 간) : 년 약 30,000주씩 묘목 구입

□ 세부 추진계획

- 매향리 매화나무 식재 현황

식재장소	그루 수	수령	식재형태	기타
주민대책위 가식재 부지	30,000	2	가 식재	
사격장 철조망 주변	150	성목	식 재	

매향리 역사박물관이 서다

2011년 4월

미군 폭탄으로 매향리 역사박물관을 세우다

농섬 일대 갯벌에서 미군 전투기가 투하한 MK82(500파운드) 연습용 모조 폭탄을 수거한 것을 재활용하여 매향리 주민대책위 부지에 역사박물관을 조성하였다.

1기당 무게가 227kg이나 되는 무지막지한 폭탄 450기를 장승처럼 세워 울타리를 치고, 돔 구조로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차광막을 덮는 방식으로 150여 평 규모의 가건물 형태로 지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중형 폭탄 수백 기를 울타리로 조성한 폭탄박물관은 우리 매향리밖에 없을 것이다.

박물관 전시장에는 매향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물론 역사박물관의 구색을 갖추고 풍성하게 꾸미기 위하여, 전국의 골동품(민속품) 경매장 등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민속 재료들을 구매하여 전시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매향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인간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기 위한, 폭격 연습으로 사용되던, 각종 폭탄 잔해들이 주민들의 생활용품으로 재활용되던 유물들과 한몫을 이뤄 전시된 것이다.

조명탄 탄피(알루미늄 재질, 지름 20cm, 길이 100cm)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다라, 뚱통, 물통, 모말, 부계반침, 쌀통, 쓰레받기, 시루, 양동이, 지계받침 등이 있으며, 조명탄의 타이머 장치 등 부속품은 담배 재떨이나 바늘 그릇이 되었다.

또한 조명탄 낙하산은 콩, 깨, 쌀 등을 담은 자루와 베갯잇, 이불 홀청, 여름철 모기장으로 바뀌고, 심지어 매향리 어머니들이 나일론 재질의 낙하산 천에 물감을 들여 속옷으로 만들어, 남녀노소가 즐겨 입었다.

아마도 세상에서 최초로 망사 속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은 매향리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옷감이 주로 광목천이라 피부에 닿으면 까끌거리고, 세탁하여 풀을 먹여야 하는 불편함에 비추어 나일론 천으로 된 낙하산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가볍고, 세탁 후 건조도 간편하였기에 매우 유용한 재활용품이 되었다.

2012년 3월

국방부의 몰염치한 행태



국방부 지시에 따라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불발된 폭탄의 뇌관 제거를 위해 군 시설로 이동하려고 작업하고 있다.

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을 불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불발탄 등을 농섬 갯벌에서 수거하는 것을 뒷집만 지고 구경하던 국방부가 몰염치하게도 주민대책위 마당에 적치한 불발탄을 분리하여 공군 부대 폭발 처리장으로 이송해가기 시작했다.

이미 나는 매향리 미군 폭격장이 완전 폐쇄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 매향리 일대 전 주민의 서명 날인을 받아 불발탄 등 중금속 오염원 정화사업을 국방부에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왔다. 그런가 하면, 수십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고, 불발탄을 화물차에 싣고 수백 명의 주민이 국방부로 몰려가(2006년 9월) 삭발 시위를 하며 불발탄 제거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꿈적도 하지 않던 그들이었다.

그렇게 방치만 하다가 이제야 군 시설로 이송해가는 것을 보면서, 세계 10위권인 경제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 분노를 넘어, 그들의 지배하에 살아가야 하는, 개돼지 같은 나 자신의 존재에 서글픔마저 들었다.

2012년 5월

폭탄 수거비용 청구 회피하려고, 불발탄 반납하다

나는 2008년부터 6년여간에 걸쳐 농섬 및 주변 갯벌의 폭탄 잔재물을 상당 부분 수거(약 500톤)하여 환경을 정화하였으며, 수거된 폭탄 잔해는 매향리 주민대책위 마당에 적치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의 지시로 한국군 폭발물 처리반이 연인원 800명(20여 명이 40여 일간 작업)이나 동원되어, 매향리 주민대책위 마당에 적치된 폐폭탄 수만 개를 일일이 검수해가며 일부(MK-82, 500파운드) 불발탄(39기)을 한국군

폭발물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뇌관을 제거한 다음 나에게 반납하였다.

확 인 서

미공군이 매향리 농섬사격장에 투하했던
불발탄(일명MK82/500파운드:약227kg)
을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거한
것을 한국군의 관련부대에서 뇌관을 제거
하고 주민대책위에 반환(39기)하였음을
확인함

2012년 5월 11일

소속부대 : 3015부대

계 급 : 중 사

확 인 자 : 김 태 훈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전만규)귀하

오히려 교통, 복지시설, 상하수시설 등 지역인프라 구축에 제약을 받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격에 의한 인명피해(사망 11명, 부상 15명) 및 폭격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해양오염으로 갯벌 어패류를 채취하지 못해 연간 24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폭격장(농섬) 주변 일대 갯벌 표면 및 지하에 불발탄이 해야될 수 없을 만큼 산재해 있어 자연폭발에 따른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격잔재물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불발탄 제거가 완료될 지라도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등 매항리 쿠니사격장은 폭격이 멈춘 5년이 지난 세월에도 지역발전에 제약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은 매항리 폭격장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기회를 줄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염원인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갯벌 표면 및 지하에 산재해 있는 불발탄을 정밀조사하여 조속히 제거하여 줄 것과, 육상부 환경정화사업과 같이 농섬주변 해양부 환경정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화성시민과 전국민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본 건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불 임 서명부 1부.

2012.10.10 .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위원장	전 만 규	(서명)
화 성 시 장	채 인 석	(서명)
화 성 시 의 장	하 만 응	(서명)

2016년 4월

제6차 매화(매실) 묘목 식재 사업

2010년에 이어, 대규모 매실(매화) 묘목 1년생 2만 8천 주를 매향2리 이정원 이장네 밭 6천여 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식하였다.

매실나무 묘목을 3년 정도 키운 다음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하여 향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미군 전투기 폭격장의 화약 연기를 거둬내고 매화 향기를 휘날리기 위한 사업이었다. 매향리(梅香里)라는 지명에 걸맞은 랜드마크(landmark)로서, 매화 평화마을 조성사업 프로젝트였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간의 경험을 자양분 삼는다면, 매화와 매실을 주제로 한 축제들과 더불어 매실청 등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과 소득 증대가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2016년 6월

탈환한 미군기지에서 평화공원 공간설계 회의 주재



매향리 쿠니 사격장 카페(Koon-ni Range cafe)에서 가진 민·관추진협의회 회의

6월 16일 오후 3시, 반환 미군기지 존치물(카페)에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 2016년 제5차 회의를 가졌다.

나는 민·관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말과 함께 이렇게 말하며 회의 개최를 선포하였다.

“미군이 반세기 동안 점령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며 사용하였던 이곳에 이제야 이 땅의 원주인이 입성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화생태공원 및 문화예술 공간과 함께, 주민들의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역사적인 추진협 회의에 감개무량한 감회를 갖게 됩니다.”

2017년 3월

매향리 미군기지 건물 철거를 막아내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 폐쇄 이후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주민 간담회에서 미군기지를 역사 유물로서, 향후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존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2009년 9월 국방부에서 쿠니 사격장 반환기지 내 환경정화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하에 스며든 기름을 정화한다는 이유로 쿠니 사격장 본부 사무실(Main office)을 철거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지하 환경정화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파이프 공법’을 통해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굳이 철거할 이유가 무엇이나? 비용이 더 수반되는 예산 문제라면, 지하 환경정화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본부 사무실을 철거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강력히 요구하여 본부 사무실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매향리 미군기지가 폐쇄되면서 반환받은 공여지 부지 중 일부에 화성시가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를 7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공사가 펼쳐졌다.

거대한 야구장 그라운드(Ground) 8개 면을 조성하는 화성시 도시개발공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매향리 주민대책위 앞에 있는 미군 경비초소 한동을 철거하겠다고 한다. 나는 몹시 속이 쓰리고 울화가 치밀었다.

그곳 초소는 매향리 대투쟁 당시인 2000년 6월 2일, 내가 미군 전투기 폭격 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지 철책을 넘어 들어가 초소 옆에 게양된 황색 깃발(폭격을 알리는 위험 표지)을 내려 찢으며 주민을 대표하여 분노를 표출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모든 사업권을 움켜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도로변 철책을 63m와 68m, 두 곳을 역사적 상징물로 존치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1963년 21만 평을 징발한 것으로도 모자라 1968년 강제 수용 면적을 29만 평으로 확장한 육상사격장이었다. 미군기지 철책이 둘러쳐졌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4m의 기둥 존치물은 미관상 적정해 보였다.

그러나 이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변의 존치 철책이 모두 철거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화성 드림파크 후문 주차장 및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중앙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미군기지 정문 경비초소를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불발탄을 터뜨리듯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웠다.

“이곳 평화생태공원이 담아야 할 핵심은 매향리 역사이다. 그 역사의 증거이며 유물들을 모두 철거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만약 도로 확장공사로 불가피한 것이라면, 정문 초소

매향리 주민대책 위원회

우445-950/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TEL:351-3388. / HP:010-9191-4188

시행일자 : 2017. 03. 22.

발 음 : 화성시 도시개발공사 화성드림파크 현장 감독관장.

참 조 : ㈜영동건설 화성드림파크 현장 사무소장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660-9

제 목 :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장 內, 舊미군 정문초소 보존 요청건

1.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포함니다
2.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당해 사업장 內에 위치한 미군(반환공여지)정문 초소로 활용되던 구조물(블럭조)을 어떠한 경우라도 철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절대로 존치하여야 함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당해 구조물(舊미군 정문초소)은 일명 “koon-ni” 미군 육상사격장이 1969년 설치된 이후 2005년 폐쇄 될 때까지 기지 출입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이 사격장 內 영농 활동등으로 출입을 할때에 통제의 관문이었던 아픈 역사적 상징물로서 반듯이 보존되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4. 부연해서 첨가한다면 당 주민대책위에서는 당해 구조물을 포함하여 매향리 미군 반환공여지 內 시설물에 대해서 존치할수 있도록 과거 국방부와 협의 및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상당하였다는 사실도 고지합니다.
5. 만약 당해 구조물 재산 관리권이 화성시에 있다하여 일방적인 철거나 훼손 조치를 한다면, 주민을 대표한 전만규가 우리 매향리 일대 주민들과 함께 지난 30여년 지켜내려 했던 것의 가치를 망가 뜨리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대응으로 역사와 주민의 원성이 대내외적으로 표출될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우편물은 2017-03-22
제 3435302017210호에 의하여
내용물인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장안우체국장

매향리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



를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하는 공사를 하든가, 그도 아니면 도로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정문 초소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하라!”

만약 일방적으로 역사적인 유물인 미군기지 정문 초소를 철거한다면, 내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하게 어필하였더니, 공사 수주 업체인 (주)영동건설 현장소장이 내게 이렇게 요청했다.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 명의로 미군기지 정문 초소를 철거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화성시 도시개발공사에 보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군기지 정문 초소 존치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철거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2017년 5월

매향리 평화마을 협동조합 설립

매향리 5개, 석천리 4개, 이화리 5개 마을 이장님들을 매향리 평화마을 건립 추진위 사무실(구 주민대책위)로 여러 차례 초치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복지 증대사업을 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설명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이어서 나는 ‘주민에게 드리는 글’ 유인물을 통해 주민들의 충의를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다. 협동조합 설립의 목적과 개요 등을 적고, 부연 설명과 함께 책자를 만들었다. 이를 행정 서류 봉투에 담아 5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14개 리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배포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충의를 모아 매향리 평화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17년 12월

매향리 문화·역사·투쟁 등에 관한 백서 발간

화성시가 2016년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향리 문화·역사·투쟁 등에 대한 백서 발간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경쟁 입찰 공모하였다. 매향리 미군 반환공여지에 평화생태공원 및 매향리 평화기념관 등을 건립·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과 관련된 일이었다.

연구용역 전문기관인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에 참여하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하였다. 성공회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매향리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2000년 매향리 대투쟁 때도 학생회와 일부 교수들까지 참여하였던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내가 매향리 투쟁을 하며 축적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매향리 백서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내용도 풍성해졌다.

2022년 1월

테레사 수녀 같은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시다

나의 어머니 박순엽은 1924년 전라도 지리산 자락 구례군 봉동리에서 태어났다.

22살 때 “한양 서울과 가까운 수원 지역”이라는 고향 선배 언니의 말만 믿고 따라나서 도착한 곳이 서해안의 작은 갯마을 매향리 고온포구였다.

1946년 낫설고 물선 이곳 매향리 바닷가 어부 집안으로 시집와서 2022년 한 줌의 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셨다.

❶ 비록 초라한 빈소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특급 비자인 성경책이 놓여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모든 근심 걱정과 고통을 짊어지려고 고난의 인생길을 순례하듯이, 처절하고 처량한 삶을 온몸으로 극복하시다가 말없이 기약 없이 홀연히 저세상으로 떠나셨다.

고 박순엽 여사는 죽어서야 입관식에서 장남 전만규가 저지른 패륜의 사죄와 생전의 모정에 대한 감사의 통곡을 들으시며, 걱정 근심 없는 영원한 삶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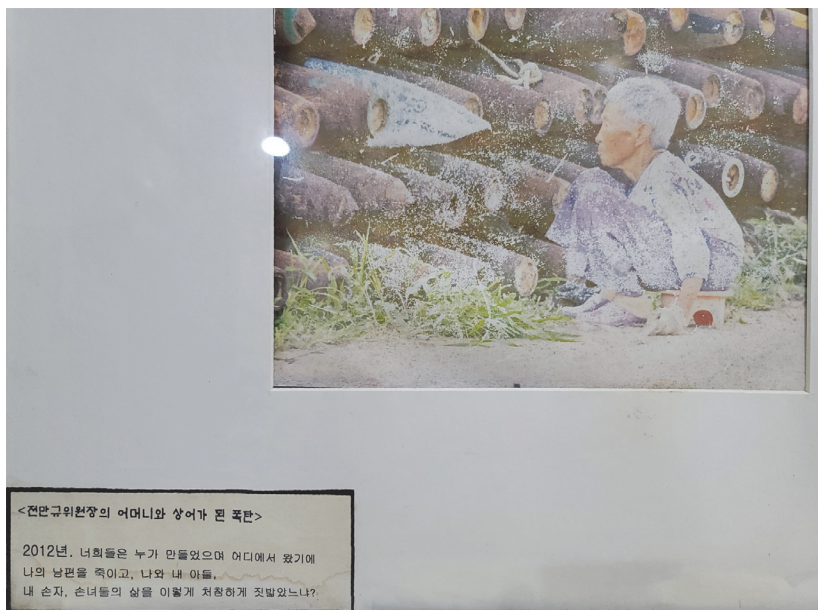
❷ 내가 중동 쿠웨이트 발전소 건설 노동 현장으로 팔려 가 있을 때인 1980년 겨울,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하시면서 그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는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전 씨 문중 종산 양지바른 곳에 매장되었다. 이후 41년 만에 고 박순엽 여사는 남편(전상천)이 묻혀있는 묘지 옆에 안장되었다.



③ 바닷가 촌놈인 내가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전 세계 평화, 온 세상 평화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평화는 없었다.



④ 괴물 같은 너희(폭탄)들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에서 왔기에 나의 남편을 죽이고(소음 스트레스로 자살), 나와 내 아들, 내 손자 손녀들의 삶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았느냐!



⑤ 참혹한 전쟁 지옥의 매향리보다도 더 지독한 장남(전만규)의 시한폭탄 같은 미군 폭격장 폐쇄 운동은 가슴을 줄이게 했고, 매향리 주민대책위 회관 옆의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 주거 공간에서 뜨거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을 노쇠한 당신의 몸이 견디기에는 극한의 인체실험과 다를 게 없었다는, 그런 한탄을 하며, 넷째 시동생인 전상현 숙부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다.



⑥ 그래도 당신께서 낳은 반미 투사 전만규가 매항리를 해방시키고, 평화마을을 만드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냐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순엽 여사를 위로하고 있다.



⑦ 박순엽 당신이 식사 준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노쇠한 늙은 몸이 되어, 만 딸(전옥순) 집에서 의탁하며, 이승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자랑스러운 아들 청년 전만규의 역사기록 책을 받아 안아보고 운명하셨다.



2022년 6월

70년 만에 돌아온 매향리 신사

매향리 갯벌 화성습지를 주제로 다큐 방송을 준비하던 KBS-TV 촬영팀과 농섬을 찾았다.

그곳에서 나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귀하고 멋진 가족을 상봉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검은머리물떼새’였다. 바다의 신사로 불리는 이 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었다. 이런 검은머리물떼새가 평화를 찾은 농섬에 둥지를 틀고 산란하고 부화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둥지 옆에는 아직도 흉물스러운 폭탄이 금방이라도 둥지와 부화 중인 알을 박살이라도 낼 듯이 따리를 틀고 있다.

농섬 아래 사구에는 무지막지한 폭탄 잔해들이 여전히 나뒹굴고 있었다. 어디선가 떠밀려온 산업 쓰레기들이 칠면초, 갯메꽃 등과 뒤엉켜 있는 그 사이로 텃새인 흰물떼새가 둥지를 틀고, 물방울처럼 아주 작은 알을 거친 모래 위에 낳았다.

참으로 기특하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한 산란이었다.

매향리 사람들은 미군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와중에도 갯벌로 나갔다. 생존 본능으로 살아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선 임산부도 갯벌로 나가야 했다.

농섬 앞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며 ‘설마 미군 전투기가 오폭으로 사람을 죽이겠어!’ 하며 태연자약 무심하게 굴을 따던 임산부가 죽은 일도 있었다. 미군 폭탄이 등허리에 직통으로 꽂혀 배 속의 아기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 일을 알고 있더라도 한 것인지, 농섬 사구에 아무렇지 않게 알을 낳아 놓았던 흰 물떼새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농섬에 오르려고 사구로 다가가자, 둥지의 알이 짓밟히게 되거나 앓을까 염려하는 듯했다.

위험을 느낀 흰 물떼새는 곧바로 우리 일행 앞으로 다가와 빠른 속도로 짹 짹 뻑뻑거리며 눈길을 끌려고 했다. 병아리만 한 작은 몸의 날개를 찢룩거리며, 부상당한 새처럼 위장하여 등지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일행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바닷새 알을 귀신처럼 찾아내는 데 숙달된 달인 아니던가. 흰 물떼새의 유인책에 현혹되지 않고 정반대 방향에서 산란한 알을 금세 찾아냈다.

70년 만에 농섬에 평화가 찾아와 등지를 틀어 산란을 하고, 작지만 귀중한 생명이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이 광경은 2022년 8월 5일 밤 KBS-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땅 매항리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농섬과 기러기 떼



농부의 '트랙터 열차'를 타고 농심을 돌아보는 탐방객들

헛똑똑이 투사와 투쟁, 그리고 악마와 의인

© 전만규, 2022

2022년 12월 12일 발행

지은이 전만규

펴낸곳 매향리 평화마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인간 차별 속에 살상 실험용으로
활용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고통을 외면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매항리 촌놈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군과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이 폭격 중에 표적지로 달려들어 목숨을 건 시위 농성을
해야만 하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해야
합니까?

왜, 촌놈 전만규가 가정을 뒤흔치고 반미투사가 되어야 합니까?

